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博士學位論文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高 順 希

2011年 12月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博士學位論文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高 順 希

2011年 12月

dCollection @ jeju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指導敎授 張 賢 珠

高 順 希

이 論文을 理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2月

高順希의 理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송 미 경 印

委 員 강 동 석 印

委 員 백 영 미 印

委 員 장 애 란 印

委 員 장 현 주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12月

dCollection @ jeju

국문초록

제주도는 지형적 여건, 척박한 풍토, 정치적 수탈 등으로 문화교류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지배를 받았었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생활은 본토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못해 원시적인 양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특히 제주도 중산간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테우리(목자), 화전민, 사냥꾼 등은 추운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동물의 털과 가죽을 이용하여 복식을 착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이러한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을 중심으로 그 기원 및 발달요인과 착용사례 및 용례를 분석하고, 제작관리 및 방법을 규명하는 데 있다. 또한 실증유물을 통해 봉제특성, 장식특성, 소재특성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과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실증고찰, 면담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을 위해서 유학자들이 유배생활 기간 동안 제주에 관해 기록한 문집과 민담을 중심으로, 실증고찰로는 제주도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민속학적 조사방법으로는 제주도 중산간지역 70세 이상의 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가 갖는 지형학적 특성, 자연환경, 사회·문화 환경은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산간지역의 거주민들은 직물농사를 지어 의복소재를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 있는 소와 말 또는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즉 노루, 오소리 가죽을 이용하여 복식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말 목축업이 발달하여 대대적으로 말을 키웠으나 말가죽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 말가죽 소재의 의복은 착용하지 않고 대신에 사냥을 통해 얻은 노루, 오소리의 털과 가죽을 주로 이용하여 방한용으로 복식을 만들어 착용하였던 것이다.

둘째, 문헌고찰, 실증고찰, 면담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복식의 종류에는 두식, 의복, 족의, 주머니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두식에는 가죽감티와 털벌립 종류가 있으며 이

dCollection @ jeju

들은 주로 노루, 소, 개, 오소리 등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었다. 가죽감티 중 오소리 감티가 가장 고급품으로 여겨졌으며 다른 가죽에 비해 털이 촘촘하고 가볍고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털벌립은 검은 소의 털로 된 것이 고급품으로 제주에서는 황소보다 흑우가 유명하였기 때문에 흑우의 털이 귀했음으로 여겨진다.

의복에는 가죽 옷과 가죽발레가 있으며 가죽 옷은 개 또는 소가죽으로 된 옷이 있다. 유물조사 결과 가죽옷은 무두질한 가죽을 소재로 하지 않고 개나 소의 털을 가공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가죽 옷의 경우 여러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개를 집집마다 키웠기 때문에 그 가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얇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털이 따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죽발레는 선행 연구에서는 개가죽으로 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털을 모두 제거한 노루가죽으로 만들어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죽발레는 덧바지형태의 것으로 방한 및 방수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족의는 가죽버선과 가죽신이 있으며 주로 소가죽, 노루가죽으로 제작되었다. 가죽버선은 발목부터 발바닥까지 소가죽이나 노루가죽을, 발목 윗부분은 광목이나 무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발을 신고 벗는 데 편이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이다. 가죽신은 노루가죽, 소가죽으로 만들며 가죽을 얇게 자르거나 꼬아서 제작하거나 신깍에 칼집을 넣어 제작한 것으로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발이 편하도록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였다.

셋째, 바느질법을 살펴본 결과 코걸이, 감침질, 홈질, 온박음질, 휘갑치기 등의 봉제방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코걸이기법은 제주에서만 사용된 특이한 기법으로 우산살을 지탱하는 철사나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구를 이용해 가죽에 구멍을 낸 뒤 가죽실을 신발 끈 꿰듯이 한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이다. 특히 소가죽으로 만든 복식에 사용되며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죽을 겹쳤을 때 두꺼워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죽실을 사용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주만의 특색있는 바느질기법이다.

dCollection @ jeju

넷째,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바느질 기법에는 패치워크, 상침, 코걸이, 패치, 꼬임, 절개, 찍기 등의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개가죽 옷에서 가죽을 조각내어 연결한 패치워크장식과 가죽버선에서 가죽과 면 연결 부분에 사용된 상침장식, 가죽버선의 바닥부분과 직사각형 부시주머니에 사용된 코걸이기법, 버선 뒤축에 나뭇잎 모양의 가죽을 오려 잘 헤어지는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면서 장식했던 패치장식이 있었다.

다섯째, 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제주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노루, 소, 개, 오소리, 말, 송아지 등 목축이나 사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다. 이러한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모피·피혁류 재료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용도에 맞게 털이나 가죽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전통 모피·피혁류는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해 본 결과 두 지역의 복식에 있어서 형태, 소재, 장식기법에서 유의미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긴 포 형태이며, 제주의 가죽발레와 기능적인 면이 유사한 '투고(套褲)'라는 덧바지가 입혀지고 있었다. 이는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에서도 바지위에 덧 착용했던 것으로 바지를 보호하거나 눈 또는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입던 덧바지의 용도와 유사하다. 가죽신은 장화의 형태로 발목 윗부분까지 가죽으로 만들고 윗부분은 신고 벗기 편리하게 천을 덧대었다. 주머니류에서도 부시주머니로 둥근 형태 등 유사하였다. 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경우 양, 소, 고라니, 사슴가죽을 복식에 사용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개, 소, 오소리, 노루 등 그 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복식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장식기법으로 중국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복식에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장식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품류에서 주름·셔링·턱, 프린지, 아플리케, 자수, 선·파이핑 등의 기법이 사용된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일상사가 주로 물질 및 목축 등의 노동과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식성 보다는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에서 만큼 화려한 장식기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dCollection @ jeju

일곱째, 면담과 문헌고찰, 실증고찰을 통하여 모피·피혁류 복식이 하나의 복식으로서 완성된 형태와 위상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털옷이나 가죽옷을 목자복 또는 노동복으로 분리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목자복 외의 중산간지역에서 삶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테우리(목자), 화전민, 오랜 시간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면담 결과 중산간지역에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방한 용도로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피·피혁류 복식을 목자복이나 노동복으로 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검색어: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가죽감티, 가죽발레, 털옷, 코걸이기법

dCollection @ jeju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2. 연구방법 ····· 4
1) 문헌 고찰 ····· 4
2) 실증 고찰 ····· 4
3) 면담 ····· 5
3. 연구범위 및 제한점 ····· 8

II.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기원 및 발달요인 ····· 10
1. 기원 ····· 10
2. 발달요인 ····· 11
1) 자연환경 ····· 12
2) 사회·문화적 환경 ····· 13
3. 착용사례와 용례분석 ····· 16

III.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 ····· 24
1. 두식 ····· 24
1) 가죽감티 ····· 24
2) 털벌립 ····· 34

dCollection @ jeju

2. 의복 ····· 40
1) 가죽옷 ····· 40
2) 가죽발레 ····· 48
3. 족의 ····· 55
1) 가죽버선 ····· 55
2) 가죽신 ····· 67
4. 주머니류 ····· 74
1) 부시주머니 ····· 74
2) 자루형 주머니 ····· 79

Ⅳ.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특성 ····· 80
1. 봉제특성 ····· 80
2. 장식특성 ····· 85
3. 소재특성 ····· 89

Ⅴ.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모피·피혁류 복식 비교 ····· 97
1. 중국 동북 내몽골지역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 ····· 97
1) 두식 ····· 98
2) 의복 ····· 99
3) 족의 ····· 100
4) 소품 ····· 101
2. 제주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과 비교 ····· 103
1) 형태 ····· 103
2) 소재 ····· 104
3) 장식기법 ····· 106

dCollection @ jeju

Ⅵ. 결론 ····· 109

참고문헌 ····· 115

부록 ····· 120

1.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 ····· 121

2.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면담내용 ····· 145

ABSTRACT ····· 162

dCollection @ jeju

표 목 차

<표 1> 박물관 유물자료 목록 ····· 5
<표 2> 면담자들의 인적사항 ····· 6
<표 3> 연구모형 ····· 9
<표 4>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문집내용 ····· 17
<표 5>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민담내용 ····· 19
<표 6>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착용사례 ····· 20
<표 7> 가죽감티에 관한 면담내용 ····· 25
<표 8> 가죽감티 유물 목록 ····· 27
<표 9> 털벌립에 관한 면담내용 ····· 35
<표 10> 털벌립 유물 목록 ····· 36
<표 11> 가죽옷에 관한 면담내용 ····· 41
<표 12> 의복 유물 목록 ····· 43
<표 13> 가죽발레에 관한 면담내용 ····· 49
<표 14> 가죽발레 유물 목록 ····· 53
<표 15> 가죽버선에 관한 면담내용 ····· 55
<표 16> 가죽버선 유물 목록 ····· 57
<표 17> 가죽신에 관한 면담내용 ····· 67
<표 18> 가죽신 유물 목록 ····· 68
<표 19> 주머니류 유물 목록 ····· 74
<표 20>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봉제방법에 관한 면담내용 ····· 80
<표 21> 일반실로 제작한 경우 ····· 82
<표 22> 가죽실로 제작한 경우 ····· 84
<표 23>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장식방법에 관한 면담내용 ····· 86
<표 24>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장식기법 ····· 87

dCollection @ jeju

<표 25>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용도별 소재특성에 관한 면담내용 90
<표 26>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용도별 소재의 종류 ····· 93
<표 27> 제주 전통 복식에 사용된 모피·피혁의 관리법에 관한 면담내용 ·· 95
<표 28>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두식 ····· 98
<표 29>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의복 ····· 100
<표 30>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족의 ····· 101
<표 31>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소품류 ····· 102
<표 32>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의 비교 ·· 103
<표 33>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 용도별 사용 동물소재 105
<표 34> 제주지역과 동북·내몽골지역의 장식기법 비교 ····· 107

dCollection @ jeju

그림 목차

<그림 1> 면담자들의 거주 지역 ····· 7
<그림 2> 대정조점 ····· 15
<그림 3> 공마봉진 ····· 15
<그림 4> 애월조점 ····· 15
<그림 5> 별방시사 ····· 15
<그림 6> 가죽옷 입은 사냥꾼 ····· 22
<그림 7> 정의고을의 가죽옷 ····· 22
<그림 8> 조선시대 화전민 ····· 23
<그림 9> 1900년대 화전민 ····· 23
<그림 10> 가죽감티 I 앞 ····· 29
<그림 11> 가죽감티 I 뒤 ····· 29
<그림 12> 가죽감티 I 앞 도식화 ····· 29
<그림 13> 가죽감티 I 뒤 도식화 ····· 29
<그림 14> 가죽감티 I 안쪽 ····· 30
<그림 15> 가죽감티 I 안쪽(나무틀부분) ····· 30
<그림 16> 가죽감티 I 바느질 ····· 30
<그림 17> 가죽감티 I 나무틀 부분 ····· 30
<그림 18> 가죽감태Ⅱ 앞 ····· 31
<그림 19> 가죽감태Ⅱ 옆 ····· 31
<그림 20> 가죽감태Ⅱ 뒤 ····· 31
<그림 21> 가죽감태Ⅱ 앞 도식화 ····· 31
<그림 22> 가죽감태Ⅱ 뒤 도식화 ····· 31
<그림 23> 가죽감태Ⅲ 앞 ····· 32
<그림 24> 가죽감태Ⅲ 뒤 ····· 32
<그림 25> 가죽감태Ⅲ 앞 도식화 ····· 32

dCollection @ jeju

<그림 26> 가죽감태Ⅲ 뒤 도식화 ····· 32
<그림 27> 가죽감태Ⅳ 앞 ····· 33
<그림 28> 가죽감태Ⅳ 뒤 ····· 33
<그림 29> 가죽감태Ⅳ 앞 도식화 ····· 34
<그림 30> 가죽감태Ⅳ 뒤 도식화 ····· 34
<그림 31> 털벌립Ⅰ ····· 37
<그림 32> 털벌립Ⅰ 양태 가장자리 ····· 37
<그림 33> 털벌립Ⅰ 도식화 ····· 37
<그림 34> 털벌립Ⅱ ····· 38
<그림 35> 털벌립Ⅱ 양태 가장자리 ····· 38
<그림 36> 털벌립Ⅱ 도식화 ····· 38
<그림 37> 털벌립Ⅲ ····· 39
<그림 38> 털벌립Ⅲ 양태 가장자리 ····· 39
<그림 39> 털벌립Ⅲ 도식화 ····· 39
<그림 40> 개가죽 옷 ····· 44
<그림 41> 개가죽 옷 앞 도식화 ····· 44
<그림 42> 개가죽 옷 뒤 도식화 ····· 44
<그림 43> 개가죽 옷 깃부분 ····· 45
<그림 44> 개가죽 옷 바이어스 처리부분 ····· 45
<그림 45> 개가죽 옷 깃 안쪽부분 ····· 46
<그림 46> 개가죽 옷 앞길 연결부분 ····· 46
<그림 47> 소가죽 옷 ····· 47
<그림 48> 소가죽 옷 매듭단추 부분 ····· 47
<그림 49> 소가죽 옷 앞 도식화 ····· 47
<그림 50> 소가죽 옷 뒤 도식화 ····· 47
<그림 51> 소가죽 옷 배래부분 ····· 48
<그림 52> 소가죽 옷 깃 안단부분 ····· 48
<그림 53> 소가죽 옷 겨드랑이부분 ····· 48
<그림 54> 駿馬輕騎 ····· 51
<그림 55> 套褲 ····· 51

dCollection @ jeju

<그림 56> 공마봉진 ····· 52
<그림 57> 산장구마 ····· 52
<그림 58> 명월조점 ····· 52
<그림 59> 별방조점 ····· 53
<그림 60> 가죽발레 ····· 54
<그림 61> 가죽발레 연결부분 ····· 54
<그림 62> 가죽발레 도식화 ····· 54
<그림 63> 가죽버선Ⅰ ····· 58
<그림 64> 가죽버선Ⅰ도식화 ····· 58
<그림 65> 가죽버선Ⅰ 섶코 ····· 59
<그림 66> 가죽버선Ⅰ 뒤축 ····· 59
<그림 67> 가죽버선Ⅰ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 59
<그림 68> 가죽버선Ⅰ 면 누비 뒤축부분 ····· 59
<그림 69> 가죽버선Ⅱ ····· 60
<그림 70> 가죽버선Ⅱ 도식화 ····· 60
<그림 71> 가죽버선Ⅱ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 60
<그림 72> 가죽버선Ⅲ ····· 61
<그림 73> 가죽버선Ⅲ 도식화 ····· 61
<그림 74> 가죽버선Ⅲ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 62
<그림 75> 가죽버선Ⅲ 바닥부분 ····· 62
<그림 76> 가죽버선Ⅳ ····· 63
<그림 77> 가죽버선Ⅳ 도식화 ····· 63
<그림 78> 가죽버선Ⅳ 뒤축부분 ····· 64
<그림 79> 가죽버선Ⅳ 뒤축 ····· 64
<그림 80> 가죽버선Ⅳ 바닥부분 ····· 64
<그림 81> 가죽버선Ⅴ ····· 64
<그림 82> 가죽버선Ⅴ 뒷부분 ····· 65
<그림 83> 가죽버선Ⅵ ····· 65
<그림 84> 가죽버선Ⅵ 도식화 ····· 65
<그림 85> 가죽버선Ⅵ 앞트임부분 ····· 66

dCollection @ jeju

<그림 86> 가죽버선Ⅵ 뒷부분 ····· 66
<그림 87> 갑실신Ⅰ ····· 69
<그림 88> 갑실신Ⅰ 도식화 ····· 69
<그림 89> 갑실신Ⅰ 섶코 ····· 69
<그림 90> 갑실신Ⅱ ····· 70
<그림 91> 갑실신Ⅱ 도식화 ····· 70
<그림 92> 갑실신Ⅱ 섶코 ····· 70
<그림 93> 국쉬신Ⅰ ····· 71
<그림 94> 국쉬신Ⅰ도식화 ····· 71
<그림 95> 국쉬신Ⅰ 섶코 ····· 72
<그림 96> 국쉬신Ⅰ발창부분 ····· 72
<그림 97> 국쉬신Ⅰ바닥부분 ····· 72
<그림 98> 국쉬신Ⅱ ····· 73
<그림 99> 국쉬신Ⅱ 도식화 ····· 73
<그림 100> 국쉬신Ⅱ 섶코 ····· 73
<그림 101> 국쉬신Ⅱ 뒷굽 ····· 73
<그림 102>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 75
<그림 103>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도식화 ····· 75
<그림 104>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 75
<그림 105>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앞) ····· 76
<그림 106>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뒤) ····· 76
<그림 107>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도식화 ····· 76
<그림 108>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앞) ····· 77
<그림 109>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뒤) ····· 77
<그림 110>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도식화 ····· 78
<그림 111> 자루형주머니 ····· 79
<그림 112> 자루형주머니 도식화 ····· 79

dCollection @ jeju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서 '바람이 많은 섬'이라 불릴 만큼 바람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져있다. 고려 13세기 말 100년 동안 원의 지배를 받았으며, 17세기 인조대부터 19세기 초 200년(1629~1830) 동안 출륙금지령[1]이 지속됨으로써 육지와의 인적교류와 문화의 단절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주 사람들은 더욱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고립된 지형적인 여건과 척박한 풍토, 그리고 정치적인 수탈 등은 문화교류의 단절과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의생활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민은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며 이러한 의식구조는 열악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상사는 주로 노동의 연속이었으므로 노동복이 일상복화 되었으며, 제주의 복식은 이러한 기본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2]. 이러한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은 제주도민의 의생활이 육지와 달리 크게 발달하지 못한 채 비교적 원시적인 양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의 의생활에 관한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면 1577년 임제(林悌)는 "여자들은 치마가 없다. 단지 허리에 삼끈을 두르고, 그 삼끈의 앞뒤로 몇 자의 베를 매달아 겨우 음부만을 가릴 뿐이다"[3], 1601년 김상헌(金尙憲)이 "섬사람 가운데 가난하여 옷이 없는 자는 흔히 멍석과 도롱이를 쓰며 추위를 막고 있다"[4]라고 하였

1)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은 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으로, 제주도민이 제주를 떠나야 했던 원인으로는 중앙 관리와 지방 토호의 이중 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주 유민의 수가 증가하고 제주 인구는 감소하였다. 지정학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잇는 거점 지역으로서 방위 전략상 중요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명과의 말 무역에 있어서 말의 생산지였으며, 제주지역 특산물 또한 중요한 자원이었다. 제주도민들이 제주를 떠나 제주 인구가 감소되어 특산물의 진상, 군액의 축소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1629년(仁祖 7) 8월 13일 조선 정부에서는 제주도민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 고순희, 장현주 (2008). 제주전통 털 소재 복식의 유형과 특성. *복식. 58권 9호.* p. 115.

3) 임 제 (1958). 홍기표 역. *濟州古記文集 南溟小承.* 제주문화원. p. 75.

dCollection @ jeju

으며, “1702년 이형상(李衡祥)은 “마(麻)와 면(棉)은 나지 않아서 의식(衣食)이 모두 부족하다”[5], 1777년 조정철(趙貞喆)은 “정의성(旌義城) 소녀들은 뙤약볕에도 치마도 아니고 위는 적삼도 아닌 옷을 입었다. 치마는 성안(城內)의 여자들도 입지 않고 다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6]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의 의생활(衣生活)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복식은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여 질기고, 값싸고 편리하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었으며, 재료 또한 동물의 털이나 가죽, 야산에 자생하는 풀이나 덩굴, 짚 등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7].

제주 의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부자(1971)[8]의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硏究’, 고부자(1995)[9]의 ‘濟州島 衣生活의 民俗學的 硏究‘, 김의숙(1991)[10]의 ‘濟州道 牧者服 硏究’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고부자는 1971년을 시작으로 제주도 민속복식에 관한 최초의 연구자로서 제주도의 민속복식을 한국복식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고부자(1971)의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硏究’에서는 제주도의 복식을 유아복, 농부복, 해녀복, 목자복, 무당옷 등으로 분류하여 민속복식 전반에 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고부자(1995)의 ‘濟州島 衣生活의 民俗學的 硏究‘는 일상복, 노동복, 일생의례복, 상복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김의숙(1991)은 ‘濟州道 牧者服 硏究’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제주의 민속복식 중 목자복의 종류를 두의, 표의, 상의, 하의, 족의로 구분하여 유물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모피·피혁류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목자복 종류의 기원 및 변천과정 및 제작방법 유형의 성격기조 등의 제안점을 남긴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제주도의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을 중심으로 기원 및 발달요인, 문집, 민담, 면담 등을 통한 착용사례와 용례분석, 제작관리 및 방법, 실증 유물고찰을 통한 봉제·장식·소재특성,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과의 상관성 등을 포함하여 제주의 의생활 중 모피·피혁류 복식에 대해

---

4) 김상헌 (1976). 박용후 역.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p. 50.
5) 이형상 (1993). 김봉옥 역. *李衡祥編著南宦博物 (Ⅱ)*. 제주도. p. 311.
6) 조정철 (1824). *靜軒瀛海處坎錄 卷4. 耽羅雜詠條*. p. 247.
7)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誌, 第5卷.-문화유산*. 제주도: 제주도지편찬위원회. pp. 54-61.
8) 고부자 (1971).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고부자 (1995). *濟州道 醫生活의 民俗學的 硏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김의숙 (1991). *濟州道 牧者服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Collection @ jeju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제주에 유배되었던 목사들의 일기 등의 여러 문집 및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한 문헌적 방법,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하였던 중산간지역 이상에 거주하는 도민과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도민과의 현지 면접 확인방법을 통해 모피·피혁류 복식의 착용자 및 종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박물관 등에 남아있는 모피·피혁류 유물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를 이해하고, 이러한 의복에 나타난 봉제특성, 장식특성, 소재특성 등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고려 중국 몽고와의 교류를 통해 제주 의생활에 있어 상관성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두 지역의 복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기원 및 발달요인을 고찰하고 실제로 착용사례를 중심으로 용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민속학적 조사방법인 도민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조사 방법과 제주에 유배되었던 목사들의 일기 등의 문집 및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한 문헌적 방법, 그리고 제주도내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실증적 방법을 통해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봉제, 장식, 소재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제주지역의 복식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를 고찰한 후 제주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을 규명함으로서 제주 전통 복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복에 나타난 봉제기법 및 장식미 등을 도출하여 제주적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 전통 목자복의 종류로 포함 되었던 모피·피혁류 복식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것은 본 연구자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위상과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재정립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Collection @ jeju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관련 문헌 및 보고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과 제주도내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는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을 중심으로 한 실증고찰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에 거주하여 목축을 하거나, 모피·피혁류 복식을 접하거나 보았던 경험이 있는 70세 이상의 도민, 사냥꾼과의 면담도 병행하였으며 고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 고찰

『三國志』『高麗史』『耽羅巡歷道』『濟州道誌』등 제주도 관련 문헌 및 보고서, 선행연구, 유학자들의 유배생활 기간 동안 제주에 관해 기록한 문집을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제주지역의 역사와 제주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나타난 모피·피혁류 복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2) 실증 고찰

제주도내 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두식, 의복, 족의, 주머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고찰에 이용된 박물관 자료의 목록은 <표 1>과 같으며, 실증유물 총 39점을 통해 종류별로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dCollection @ jeju

<표 1> 박물관 유물자료 목록

유물자료	유물수량	소장처
가죽감티	4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10점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옷	2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발레	1점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10점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8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주머니류	4점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3) 면담

모피·피혁류 복식을 주로 착용하였던 제주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대대로 목축을 하거나, 모피·피혁류 복식을 실제로 착용하거나, 착용자의 모습을 보았던 70세 이상의 도민, 사냥꾼(제주에서 '사농바치', '사농꾼'이라 함) 등 39명의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기간은 2009년 12월~2011년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표 2>는 면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였고, <그림 1>은 면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dCollection @ jeju

<표 2> 면담자들의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생년월일)	현 주소지
제주시	고원우	남	1937년생	노형동
제주시	김경득	여	1929년생	봉개동
제주시	고한구	남	1936년생	봉개동
제주시	김익수	남	1937년생	삼도1동. 한학자
제주시	진성기	남	1936년생	삼양3동. 제주민속박물관장
제주시	이여생	여	1928년생	아라2동
제주시	박석중	남	1926년생	아라2동
제주시	김민철	남	1938년생	애월읍 광령1리
제주시	김두만	남	1937년생	애월읍 상가리
제주시	고태호	남	1933년생	애월읍 상가리
제주시	송재희	남	1933년생	오라3동
제주시	김인순	남	1933년생	오라3동
제주시	이창엽	남	1940년생	조천읍 교래리
제주시	김맹봉	남	1937년생	조천읍 교래리
제주시	고두진	남	1954년생	조천읍 와산리
제주시	고우탁	남	1925년생	한경면 고산1리
제주시	김정숙	여	1940년생	한림읍 귀덕리
제주시	김덕민	남	1940년생	한림읍 귀덕리
제주시	박월춘	여	1923년생	한림읍 월림리
제주시	김만철	남	1939년생	화북1동
서귀포시	김창익	남	1940년생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고신화	여	1923년생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정신생	여	1921년생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김두생	남	1940년생	남원읍 의귀리
서귀포시	양두칠	남	1935년생	남원읍 의귀리
서귀포시	고춘일	여	1933년생	남원읍 한남리
서귀포시	오영종	남	1929년생	남원읍 한남리
서귀포시	변기섭	남	1937년생	성산읍 수산2리

dCollection @ jeju

	이름	성별	나이(생년월일)	현 주소지
서귀포시	박영국	남	1935년생	성산읍 수산2리
서귀포시	김영훈	남	1939년생	성산읍 신풍리 5대째(200년) 소목장을 운영
서귀포시	김영남	남	1941년생	중앙동
서귀포시	김영철	남	1940년생	중앙동
서귀포시	양기석	남	1940년생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고민철	남	1939년생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고창우	남	1937년생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정만근	남	1936년생	표선면 세화리
서귀포시	고영재	남	1940년생	표선면 세화리
서귀포시	김대진	남	1941년생	표선면 토산리
서귀포시	김순생	여	1934년생	표선면 토산리

<그림 1> 면담자들의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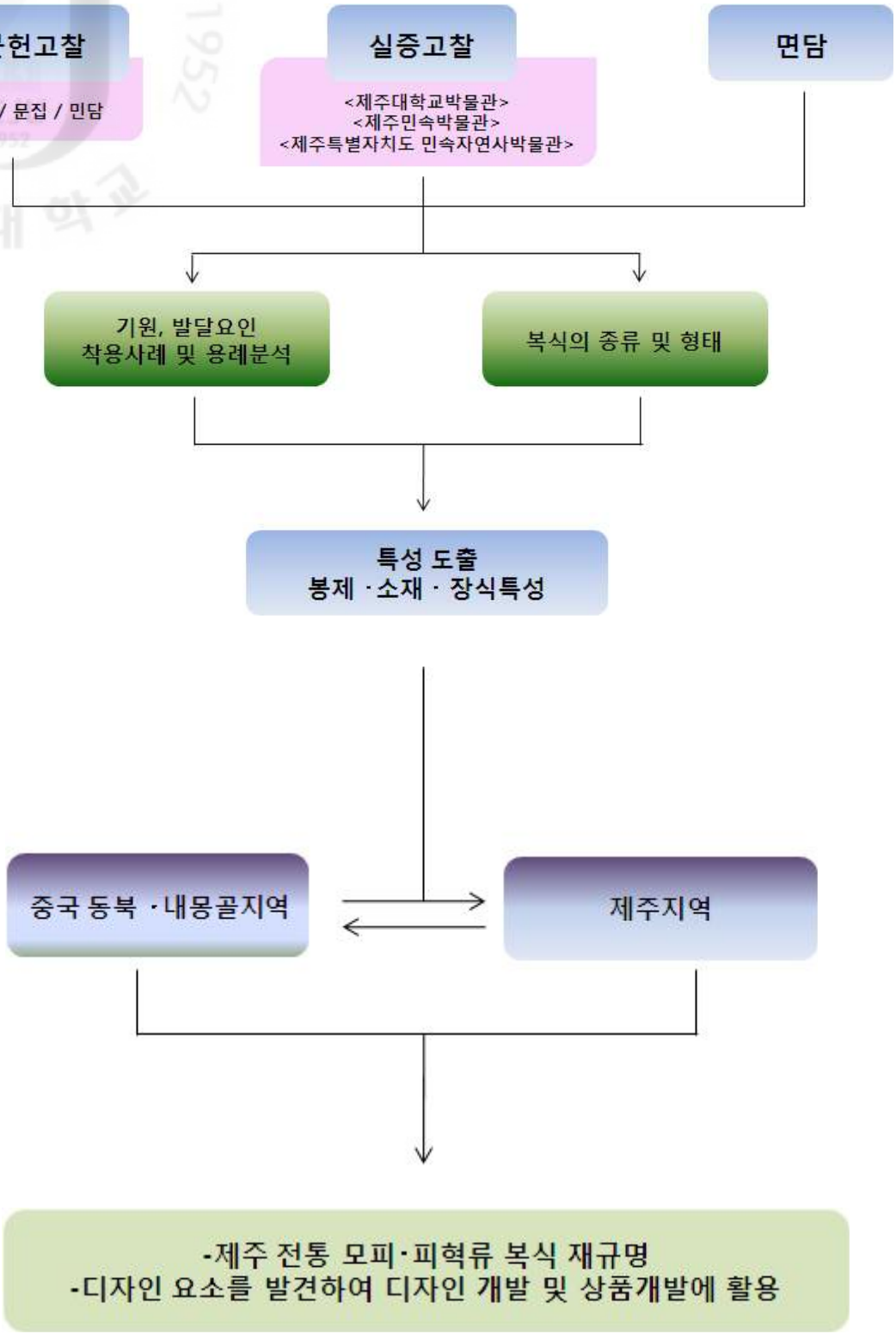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3. 연구범위 및 제한점

제주지역에서 모피·피혁류 복식은 주로 중산간지역에서 착용되었는데, 1948년에 일어난 4·3 항쟁으로 인하여 현재는 중산간지역 마을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많은 지역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훼손되면서 복식 또한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의복과 달리 모피·피혁류 복식은 관리 및 보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증적 자료를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실증 고찰은 현재 제주도내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되어진 모피·피혁류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했음을 미리 밝힌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문헌적 방법으로 제주도 관련 서적, 제주에 유배되었던 목사들의 일기 등의 문집 및 다양한 제주관련 문헌기록을 통한 모피·피혁류 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70세 이상의 도민과의 민속학적 조사방법인 현지조사를 통한 면접 확인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내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되어진 유물을 통한 실증 고찰을 통해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를 이해하고 의복에 나타난 봉제특성, 장식특성, 소재특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동북·내몽골 복식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표 3>과 같다.

dCollection @ jeju



<표 3> 연구 모형

dCollection @ jeju

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기원 및 발달요인

한 지역이 갖는 기후, 토양, 위치, 크기 등 지정학적 특징과 자연적인 환경은 다른 요소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규정짓는 요인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문화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며, 그 속에서 오랜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습관화된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 중에도 민속 문화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매우 넓게 형성된 기층(基層)의 생활문화라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11]. 따라서 제주는 지형적, 환경적으로 고립된 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다른 지방과의 교류가 통제되었던 영향과 사회·문화적인 역사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했을 뿐만 아니라 의생활에 있어서도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 양식이 형성되었다.

1. 기원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태풍의 길목인 바다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섬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화산사 등이 지반을 형성하고 있다[12]. 제주가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유적에 나타난 연대는 약 6만 년 전 빌레못 동굴 발굴품이며, 섬으로 독립된 연대는 약 1만 8천 년 전이다[13]. 제주도의 역사는 기원전 63년경 현재 제주시 소재의 삼성혈의 모흥혈에서 용출한 고, 양, 부의 삼을나(三乙那) 탐라의 시조로 하는 삼성신화(三姓神話)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수렵과 채집의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高麗史 (地理志)』의 '삼을나 신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중략)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동쪽바닷가에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함 속에는 돌 상자와 사자가 있었고, 돌 상자를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세 공주는 궁벽환 황무지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중략) 비로소 오곡의 씨

11) 김동섭 (2003). *제주 갈옷의 특징과 지역성. 향토사 연구 (15).*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p. 217.
12) 김동섭 (2002). *제주도 전래 농기구 연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p. 1.
13) 진성기 (2003). *제주 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도: 제주민속연구소. pp. 48-52.

dCollection @ jeju

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갔다.(하략)…"[14], 『耽羅文獻集』에 "위에는 가죽옷을 입고 아래는 입지 않았다"[15]는 기록에서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당시 수렵과 목축을 통해 동물을 잡아 고기를 먹고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이용하여 방한 의료로 만들어 착용하였으며 4·3 항쟁 때까지 이어져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5세기 후반부터 삼국과 7세기 중반부터는 당과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으며, 고려시대 원종 13세기 말(1273년)부터 약 100년 동안 고려와 원의 이중통치하에 들어가는데 이 때 삼별초군으로 인한 영향으로 고구려계의 기본복식에 북방 몽고계의 한대 복식에 관한 제주와 몽고의 공통점을 "帽子·衣服·靴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모피모(毛皮帽)·수피의(獸皮衣)·獸皮버선 등을 사용하며 濟犬으로 사냥하는 것은 蒙古의 遺風"이라는 것이다[16]. 따라서 생계수단이었던 중산간지역에서 주로 목축을 하던 목자들에게는 방한용 복식이 필요했으며 노동과 궁핍이라는 틀 안에서 모피·피혁류 복식이 착용되었던 것이다.

2. 발달요인

제주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인 본토와 달리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인 제약으로 독립부족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겪게 되는 숱한 역사적 상황은 제주 문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17]. 그 중 의생활은 제주도민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일반의복은 노동과 일상복을 겸하는 기본범주였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제주의 복식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원시생활에 가까운 모피·피혁으로 옷을 만들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95). *삼성신화연구*. 출간: 제주대학교. pp. 22-24.
15) 제주교육위원회 (1976). *耽羅文獻集*. p. 113.
16) 석주명 (1968). *濟州道 隨筆*. 경기: 寶晋齋. p. 90.
17) 현길언 (2001). *제주문화론*. 제주: 탐라목석원. pp. 173-178.

dCollection @ jeju

1) 자연환경

제주는 대륙(러시아, 중국)과 해양(일본, 동남아)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총 면적 1,845.5㎢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 1,456.9㎜, 서귀포 1,850.8㎜ 이고 평균기온은 제주 15.5℃, 서귀포는 16.2℃이다. 제주의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5°의 매우 완만한 경사이며, 남북사면은 5°정도의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18].

바람의 섬이라 할 만큼 바람이 강하며, 5월까지도 1,000m 이상의 고지에는 눈이 쌓여 있다. 옛 말에 제주를 삼재(三災)의 섬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제주는 중앙에 높은 한라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며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빨라서 수재(水災)가 많고, 또 돌이 많고 토질이 얕아서 가뭄의 재앙(災殃)을 받는다. 또 제주는 여름과 가을철에 태풍의 통로가 되므로 자주 바람의 재앙(災殃)을 받음을 가리킨다. 이 재해가 일 년 중에 거듭되니 흉년(凶年)이 될 수밖에 없고 생활은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19]. 따라서 따뜻하지만 습기와 바람이 많은 해양성 기후지역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최남단의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고립지역이라는 점, 화산의 폭발로 생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농업, 어업, 목축업을 생업 수단으로 삼아왔다.

제주의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제주인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반면 동물은 살기 좋은 환경이었음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濟州風土錄』에 제주도는 예로부터 방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짐승은 노루, 사슴, 멧돼지가 가장 많고, 오소리가 또한 많으나 이것 외에 여우, 토끼, 호랑이, 곰 등은 전혀 없다"[20], "산중에는 곰, 호랑이, 승냥이, 이리 등의 흉악한 짐승이 없음으로 소와 말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고라니와 사슴도 번식하고 있다."[21], 『南遷錄』(下)에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고 오직 멧돼지와 사슴이 천백마리 무리를 이룬다"[22], 『南宦博物』에 "짐승은 살쾡이, 오소리, 돼지, 사슴은 있으나 호랑이, 표범, 곰, 큰곰, 승냥이, 이리, 여우, 토끼 종류는 없다"[23], 『譯註 耽羅志』에 "검은 소, 황소, 얼룩소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집집마다 말과 소를 길러 수백 마리에 이르러 무리를 이룬다"[24]는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개 제주의 위치와 특성. http://www.jeju.go.kr
19) 김봉옥 (1987). *증보 제주통사*. 서울: 세림. p. 21.
20) 김일우 역 (2007). *濟州古記文集 濟州風土錄*. 제주문화원. pp. 20-21.
21) *위의 책*. p. 176.
22) 김익수 역 (2001). *南遷錄 (下)*. 제주문화원. p. 230.
23) 김봉옥 역 (1994). *續 耽羅錄 南宦博物*. 제주문화. p. 341.

dCollection @ jeju

기록에서 제주에 서식하는 동물은 비교적 몸집이 작고 온순한 동물이 많았으며, 중산간지역에는 소와 말을 방목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본래 '곶자왈'이라 불리는 숲이 우거진 곳으로 해발 100m에서 200m 사이의 구릉평야(丘陵平野)로 농촌형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지조사를 통한 면담지역인 제주시 오라3동, 아라1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표선면 세화리, 성산읍 신풍리, 표선면 토산리, 애월읍 광령1리가 중산간지역 마을에 속한다. 그리고 산간지역은 해발 300m 이상의 준평원지대(準平原地帶)로 반농반목(半農半牧)의 산촌형 마을로 현지조사를 통한 면담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한림읍 귀덕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남원읍 수망리, 조천읍 교래리가 여기에 속하는 지역이다.

2)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시대 100년 동안 몽고의 점령과 조선시대의 강력한 지방통치, 저명한 유학자들의 제주 유배, 200년 동안의 출륙금지령으로 하여금 제주는 인적교류와 문화의 단절로 더욱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며, 문화를 형성하고 의생활에 있어서 고유의 복식생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13세기 후반 제주도가 100년이라는 원의 지배를 받는 동안 몽골 유목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제주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목마장을 설치하여 소와 말을 키웠으며, 제주 목마장은 몽골제국의 14개 목장 중 하나로 간주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25].

고려 공민왕 6년(1357년) 7월 (임인)에 "제주 성주가 원에 가서 말을 헌납하니, 왕은 그에게 붉은 가죽 띠와 쌀 30석을 주었다"[26], 『高麗史』에 "관마는 죽더라도 말의 가죽은 바쳐야한다"[27]는 기록과 세종 6년(1424년)에는 "신축, 계묘년 2차례 보낸 말 20,000필에 대한 댓가로 생대견 49,865필, 홍견 1601필, 남견 301필, 초록견 903필, 청견 304필, 대면포 35,306필 등 88,290필을 받은 것 외에 별도로 말 1필에 대해서 견 3필, 면포 2필씩을 더 받았다"[28]는 기록으로 보아 말의 가격은 직물 중

24) 이원진 (2002). *譯註 耽羅志*. 서울: 푸른역사. p. 51.
25) 장덕지 (2007). *濟州 馬 이야기*. 제주문화. pp. 84-86.
26)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pp. 38-39.
27) 김상헌 (1976). *앞의 책*. p. 87.

dCollection @ jeju

가장 고급품이었던 단이나 견 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환마라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말을 자주 수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개인의 말 매매를 장려하여 1405년에는 제주도민이 육지에 말을 파는 말 매매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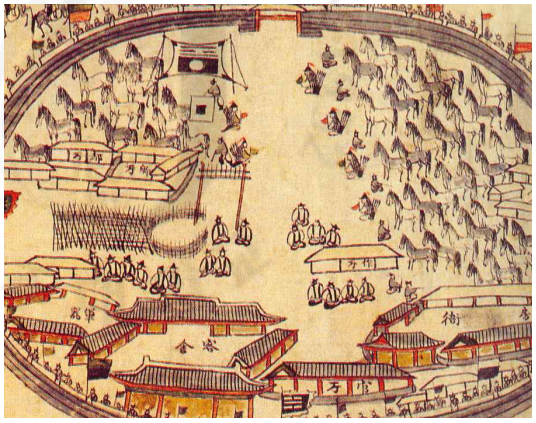
따라서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까지 제주는 말 생산지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말 생산에 종사하던 호수도 1/4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중요시 되어왔다. 제주 말의 생산은 나라를 부강하게하며 경제는 말의 수로써 결정한다고 믿었으며, 제주의 소와 말은 유명하여 명과 요동에서 매매해 갔으며, 원에서는 많은 양의 말을 청구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제주의 목축업이 활발하였다.

즉 소와 말의 수가 증가하고 중산간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생활해야하는 사람들 즉, 우마를 소유하는 목축업자나 테우리(목자)들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식의 소재는 실용적이면서 따뜻한 모피·피혁류로 만들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형상(1653~1733)의『耽羅巡歷道』[30]중 대정조점[31], 공마봉진[32], 애월조점[33], 별방시사[34]란 제목의 그림으로 조선시대 진상되는 공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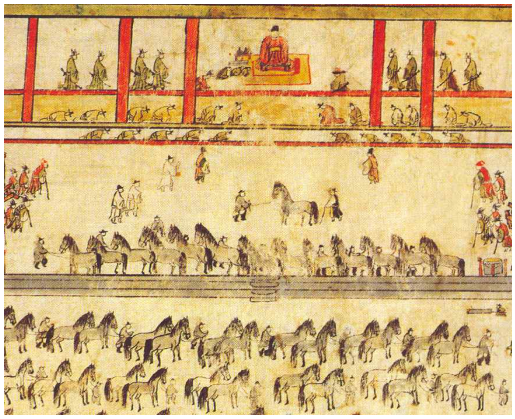
---

28) 世宗實錄 卷 23. 世宗 6년 2월 17일(계해).
29) 장현주 (1999).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 43.
30)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년) 병와 이형상(1653-1733)이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 절제사에 부임하여 제주도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당시 거행되었던 여러 행사장면과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제주목 소속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40폭의 채색으로 그리게 한 화첩이다.
31) 대정조점으로 대정현성의 성정군 조련과 대정현의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32) 공마봉진으로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으로 당시 진상에 필요한 공마는 어승마 20필, 연례마 8필, 차비마 80필, 동지마 등이 선박으로 운반되어 해남, 강진, 영암 세 곳으로 보내지며 육로를 통해 말을 한양까지 몰고 갔다.
33) 애월조점은 애월진의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34) 별방시사는 목사가 별방진에 들러 머물면서 활쏘기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쏘기 시험장면을 그린그림이다.

dCollection @ jeju



<그림 2> 대정 조점[35]



<그림 3> 공마봉진[36]

<그림 4> 애월조점[37]

<그림 5> 별방시사[38]

조선시대 약 200년 동안(1629~1830년)에 걸친 출륙금지령은 왕족과 관련 있는 사람들조차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지로 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것은 문화와 인적교류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 빈곤까지 가져왔다. 제주 의생활에 있어서도 직물이 부족하였던 제주인의 삶을 문헌에서 살펴보면『南槎日錄』에 "본주(本州)의 테우리 8백여 명을 점시(點視) 해 보았는데, 거의가 메추라기 모양으로 늙고 쇠약한 자들이며 …(중략)… 그 중에서 옷으로 몸을 가리지 못한 자 19명을 뽑아내어…(하략)"[39],『南溟小乘』에 "…(생략) 베 옷 한 벌과 솜옷 한 벌로 여기서 삼사십

35) 제주시장 (2004). 이형상. *耽羅巡歷道*. 출간: 제주시. p. 68.
36) *위의 책*. p. 24.
37) *앞의 책*. p. 84.
38) *위의 책*. p. 46.
39) 김익수 역 (2001). 이 증 저.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p. 176.

dCollection @ jeju

년 살아 왔답니다"[40]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의 폐쇄된 고유성을 더욱 굳히게 하고 문화의 낙후성을 더욱 굳히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48~1949년 동안 1년에 걸쳐 일어났던 제주의 4·3 항쟁 당시 중산간지역 대부분의 민가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주민들은 해안가 주변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중산간지역에서 주로 착용하였던 모피·피혁류 복식 또한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은 고통의 나날이었으며 의생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착용사례와 용례분석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착용사례는 제주 관련 문헌자료와 제주 민담 그리고 도민과의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유학자들의 유배지역으로 당시 제주의 의생활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여러 문집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 중 모피·피혁류 복식은 유배인들의 눈에 신기하게 느껴졌는지 이를 자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가죽옷에 관해 자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을 더욱 확실히 규명하고자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관장이 1960년대를 중심으로 작성된 민담 내용과 70세 이상의 도민들과의 면담내용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관한 <표 4>의 문집내용, <표 5>의 민담내용 그리고 <표 6>의 도민과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홍기표 역 (2007). 백호 임 제 저. *濟州古記文集 南溟小乘*. 제주문화원. p. 55.

dCollection @ jeju

<표 4>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문집내용

유배인과 유배기간	내용	출처
이건 (移建) (1623~1649)	한라산 최고봉에 올라가 얼음을 취해 하루 한 짐씩 지고와 관가에 제공하여 (중략) 얼음을 취하려 산에 올라가는 자는 여름철에 비록 **가죽옷** 두 겹을 껴입더라도 그 추위를 견딜 수 없다	『濟州風土記』
이원진 (二元鎭) (1651~1653)	…(생략) 5월까지 눈이 내려 쌓여서 8월까지 남아 있으니 **가죽옷**을 껴입어야 한다.	『譯註 耽羅志』
이증 (李增) (1679~1680)	남자들은 길가에서 우둑 바라보며 남정들은 모두 **가죽옷에 가죽모자**를 했고…(하략)	『南槎日錄』
	세월을 헛되이 버리기 싫어 조리와 그네는 예부터 전해오고…(중략) **가죽감티**, 초신, 갈중이옷 자갈밭과 초가지붕 엉성한 사립문…(하략)	
김춘택 (金春澤) (1674~1720)	**털가죽으로 만든 옷** 거리낌 없는 옛날풍속…(하략)	『北軒集』
	유생은 **털벙거지**를 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남구명 (南九明) (1712~1715)	…(생략) 산에서는 짐승잡고 물에서는 물고기 잡고 살코기로 배고픔 덜고 **털가죽**으로 몸을 감쌌네	『憂菴先生文集』
조정철 (趙貞喆) (1776~1800)	눈믜<조천읍 와산리> 10리길 테우리(목자)들 절로 마을 이뤄 너와집 풍경 특이해 척박한 밭 온통 보리와 콩 **개가죽 옷** 보기에 너무 괴상한데 남방 사투리 듣기에 더욱 혼란스러워 말에 채찍질하며 앞길 찾느라 등나무로 해와 달도 어둑어둑.	『靜軒瀛海處坎錄』 『耽羅雜詠』
	정의사람들은 물론 고을선비, 교리(校吏), 노예, 미천한 군졸까지 황우의 **털벙거지, 오소리 모자**를 항상 쓴다. 심지어는 입직 교리까지 이런 모양으로 현감의 대청마루에 출입한다. **흰개가죽바지, 누런 개가죽옷** 같은 것은 나들이옷에 견준다.	
	"적거 중의 생애는 스스로 웃을 만하니, **사슴가죽 버선**"이라고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dCollection @ jeju

유배인과 유배기간	내용	출처
신광수 (申光洙) (1764)	제주의 동쪽 가마로 언덕에서 기다리는 세 관리 **가죽옷** 입고 배를 맞는다.	『耽羅錄』
	가죽옷 입은 남녀들 모두 방아 찧는 노래 부르네	
	…(생략) 성사 타고 온 한양 사신 돌아갈 기약 없이 **가죽 옷**에다 남방의 어지럽고 괴이한 언어(하략)	
	…(생략) 테우리는 **가죽옷 입고** 산을 '오름'이라 하네	
	…(생략) **가죽옷** 입은 섬사람들 당연히 크게 놀라네	
	줄줄이 수십 명 무리지어 모두가 허투루 다룬 **누런 개가죽** 걸쳤네…(하략)	
김창현 (金昌鉉) (1827~1875)	**산노루 가죽버선**에 **개가죽 옷** 입고 마른 억새풀에 걸터 앉아 억지로 위엄지어 벼슬길에 나간 일 없이 양반이라 뽐내기만 힘주어 하는 자랑 별감 풍헌 지냈던 일.	『瀛洲風雅』

dCollection @ jeju

<표 5>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민담내용

내용	출처[41]
•(생략)…김좌순 바슬 사난 지꺼지고 자랑허멍 뒷해 보멘 질루는 모쉴 촐캐왓딜 간 푸런 고꾸노렌 허난 뜬금외에 어떵헌 **가죽감태** 씬 하르방이 막댕이 지프곡 호연완…(하략) (밭을 사니까 기쁘고 자랑하면서 이듬해 봄에 기르는 마소를 풀어 놓아먹이 주라고 하니 뜻밖에 어떤 가죽감태 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와서) (1958년 6. 3. 제주시 용담동 70세(남) 김태화 님)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Ⅰ)
• 벅수물(표선면 토산리 곁의 지명)은 벅수머리가 사는 동니이고 벅수머린 **가죽감태 씨는 산매목조**우다. **가죽감탠 노리가주기나 개가주**그로 맹그랑 씨는디 양반드른 아니씨곡 천혼 사름드리 씹네다. (표선면 토산리 곁에 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들은 가죽감태 쓰는 테우리(목자). 가죽감태는 누루가죽이나 개가죽으로 만들어 쓰며 양반들은 쓰지 않고 천한사람만 쓴다) (1960. 1. 20. 서귀포시 성산면 성산리 71세(남) 김두복 님)	
• 할루시나 노파부난 저시렌 산쟁이나 산매목조드른 **자죽오세 가죽감태, 가죽발레** 촐리지 아니민 어렁 댕기질 몬호엿쑤다. (한라산이 높아 겨울에 사냥꾼이나 테우리(목자)들은 가죽옷에 가죽감태, 가죽발레 차림이 아니면 추워서 다니질 못한다) (1960. 10. 5. 서귀포시 토평리 62세(남) 김창규 님)	
• 우리 씨아브니믄 나를 임제 아들보단도 더 생가글 호멍 나 발 저지 말게시리 **쇠가주그로 가죽보선**도 맹그랑 신쩌 주곡 호여셔마씸 (시 아버지는 당신 아들보다 더 생각 하면서 물에 젓지 않도록 소가죽으로 가죽버선도 만들어 신겨 주었다) (1961년 5. 18. 서귀포시 성산면 고성리 82세(남) 정경룡 님)	
•(생략)…짐지과는 뒷해 보멘 산 촐캐외스로 간 바슬 이기노랭 호난 어떵헌 **가죽감티** 씬 하르방이 오란 무사 노므바슬 이겸시닝? (봄에는 매매한 밭을 일구는데 어떤 가죽감티 쓴 노인이 와서 남의 밭을?) (1960년 6. 4. 서귀포시 성산면 난산리 70세(남) 김창수 님)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Ⅱ)
•(생략)…그 피쟁이가 바찐 몰카죽 쇠가주그로 **가죽시**늘 맹그란 신찌난 큰 이를 호게되연 그 공으로 그 피쟁이는 멘처늘 받게 된 거라마씸 (백정이 바친 말가죽, 소가죽으로 가죽신을 만들어 신도록 하니 큰 일을 하게되어 그 공으로 백정은 면천을 받게 되었다) (1958년 4. 12. 대정읍 일과리 92세(남) 강덕영 님)	

41) 진성기 (2011).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 (Ⅰ)*. 도서출판: 디딤돌. p. 26, 247, 339, 380.

dCollection @ jeju

<표 6>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착용사례

면담내용	면담자
• 목장을 하거나, 소, 말 테우리(목자)들이 **소가죽 옷**을 착용했다.(비오는 날 우비 대용으로 착용하였다) • 부락에 1~2명 정도 **소가죽 옷**을 착용함 • 가죽버선에 나막신을 신음. 가죽버선을 신으면 발이 매우 따뜻하다. • 가죽옷은 100년 전에 착용했던 것이며, 1960년대에 도롱이(우장)이가 나와서 입었다.	김영훈 (1939년생) 김경득 (1929년생) 외 2명
• **가죽옷**은 중산간지역 200~250m 이상 고지 중산간지역 **사냥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 화전민들이 착용.** 200m 미만에서 가죽옷 입은 사람이 드물다. • 화전민은 산간사람이라 하며 산에 살면서 가죽옷 차림을 하였다. (화전민은 땔감과 사냥을 하며 사는 사람) • 중산간지역 개를 집집마다 모두 키웠다. **개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개가죽이 가볍다.)	고두진 (1954년생) 정신생 (1921년생) 김익수 (1937년생) 외 2명
• 가죽옷 소재는 **개가죽**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착용한 것을 보았음. 개가죽을 조각끼리 연결하여 만들었다. 아마도 개가죽이 작아서 연결한 것 같고,멋으로 했던 것 같다. • 200m 이상 고지에 화전민이 많았으며, 화전민은 못사는 사람, 집안이 망한 사람(학식있는 사람도 포함), 범죄자, 땅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 중산간지역에서 땅을 일궈 살았다. • 화전민은 200~250m고지에 살고, 소테우리(목자)는 200~400m 고지 최고 600m 고지에 목장지대에 생활터전으로 가장 천한사람이다.	송재희 (1933년생) 외 4명
• 제주도 한라산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여 **노루 사냥**시기가 있었다. 음력 10월이 지나서 첫눈이 내리고 난 후 어느 정도 얼어붙어 사람이나 개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을 때 사냥을 시작하며 **가죽은 옷이나 모자**를 만들고 고기를 먹었다. • 교례리 송봉현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교례리에 **가죽옷, 개가죽바지, 모자, 신을 착용**하고 다녔으며 대부분 노루가죽으로 지어 입었으며 4.3사건 이후 노루들이 많이 멸종하였다.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신발만 만들어 신었다. (4.3사건이후 가죽 값이 비쌌다.)	오문복 (1936년생) 외 2명
• 한라산 중턱 소와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주로 입었으며 보온성이 매우 뛰어났다. • **소가죽, 노루가죽**으로 일반 갈중이 형태의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정신생 (1921년생) 외 5인
• 해안지역에서는 털옷, 가죽신, 가죽모자 등 착용한 것을 본적 없으며, 중산간지역에서 가죽모자를 착용한 것을 보았다.	고우탁 (1925년생)

진성기 (2011).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 (II).* 도서출판: 디딤돌. p. 54, 73.

dCollection @ jeju

면담내용	면담자
• **개가죽옷**은 사냥 다닐 때 주로 입음(한라산이 추웠기 때문에 방한용임) • **가죽옷**은 부잣집 사람은 입지 않고, 산에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방수효과),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방한용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비옷대용으로 착용하였다. •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으로 만들며 얇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비올 때 신으면 방수효과가 있으며 따뜻하였다. • **가죽신**은 특별한 사람이 신는 것이었으며, 가죽버선은 아무나 신었다.	오영종 (1929년생) 고춘일 (1933년생)
• 50년전에 소테우리(목자)가 집이 없어 창고에서 지내며 이때 **가죽옷**은 크기가 크고 따뜻했기 때문에 소를 몰 때 착용하거나 밤에 이불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머리에는 **오소리감티**를 착용하여 추운겨울을 지냈다고 했다.	김영훈 (1939년생) 김정자 (1940년생)
• 가죽옷은 어머니 시대인 80년 전에 착용 했던 것 같다고 했다. • 가죽감티는 유별난 사람들이 착용했다.	김정숙 (1941년생) 외 2인
• **가죽옷**은 옷이 없을 때 추위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옷이었으며 산에 다니는 사람, 우마를 키우는 사람, 사냥 다닐 때 착용하였다. • **가죽옷**은 소가죽으로 만들며 바람도 차단시켜주고 가시덩굴, 곶자왈 등 다닐 때 긁히지 않도록 입었다. • **가죽옷**은 동네에서 2~3명 정도 착용하며 자랑으로 여겼다. • **털벌립은** 아무나 착용하지 않았다. 회천에서 착용했던 사람을 보았는데 고을에서 계층이 있는 사람이었다. 조선시대 때 직책이 무관정도였던 가족이 있었으며 그것을 대물림해서 착용 했던 것 같다고 했다. • **가죽감티**는 오소리, 노루가죽이었으며 사냥으로 생계유지했던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자연스럽게 고기는 먹고 가죽으로 사냥 다닐 때 추웠기 때문에 만들어서 착용했다.	고한구 (1936년생) 외 3인

이상의 문집내용과 민담내용 그리고 면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일반적으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 말을 키우는 테우리(목자), 사냥꾼(사농바치), 화전민 등이 주로 착용하였으며,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던 것이다. 재료는 개, 소, 사슴, 노루, 오소리 등 사냥 또는 목축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다.

착용모습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오소리가죽, 소가죽으로 만든 감죽감티나 털벌립

dCollection @ jeju

을 쓰고 가죽옷은 개가죽 또는 소가죽으로 만들며, 버선은 노루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들어 그 위에 가죽신이나 짚신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머리에서 발까지 모피·피혁으로 복식을 만들어서 착용하였으며 어떠한 강추위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복식이었다.

다음 <그림 6~9>는 100여 년 전 제주도민들이 착용한 모피·피혁류 복식으로 중산간지역에 사냥을 다니는 사냥꾼과 화전민 등의 모습이다. 문헌고찰과 면담내용에서 기록되고 있는 모피·피혁류 복식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머리에는 가죽감티를 쓰고 개가죽 옷을 착용하였으며, 가죽버선에 가죽신을 신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6> 가죽옷 입은 사냥꾼[42]

<그림 7> 정의고을의 가죽옷[43]

42) 제주도 (1996). *제주 100년*. 발간: 제주시. p. 61.
43) *위의 책*. p. 141.

dCollection @ jeju

<그림 8> 조선시대 화전민[44]

<그림 9> 1900년대 화전민[45]

44) 최석로 (2005).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p. 104.
45) 김수환 (1997). *사진으로 본 백 년 전의 한국 -근대한국(1871~1910)*. 서울: 가톨릭출판사. p. 264.

dCollection @ jeju

Ⅲ.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

본 연구에서는 모피·피혁류를 털이 부착되어진 것이나 털을 모두 제거한 가죽으로 제작한 복식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유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전시품과 소장품으로 중산간지역에서 소와 말을 소유하고 있던 목축업자나 소와 말을 돌보던 테우리(목자), 한라산에 사냥을 다니던 사냥꾼, 화전민들이 착용했던 것들이다. 이들은 추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한라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는 두식, 의복, 족의(足衣), 주머니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다루고자한다.

1. 두식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의 두식으로는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용 모자류를 들 수 있으며 감티와 털벌립 종류가 있다.

1) 가죽감티 (가죽감투)

가죽감티는 동물가죽으로 만든 모자이며 '가죽감투'라고도 한다. 감티는 '감투'의 제주도 방언으로 본래 감투란 머리에 쓰는 의관의 하나이며 신분의 표시로 사용되었던 모자를 말한다. 감티의 형태는 태양 없는 모자로서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며 각이 지지 않게 만든 방한모로서 주로 목자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착용했다. 제주에서는 중산간지역에서 노루나 꿩을 사냥할 때, 소나 말을 돌볼 때, 화전민 등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모자의 일종이며 '가죽감티', '가죽감태'라고 불렀다. 가죽감티는 주로 노루, 소, 개, 오소리 등의 털가죽으로 만들며 이 중에서도 털이 부착된 오소리가죽이 가장 고급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죽감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

Collection @ jeju

과 면담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가죽감티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오소리는 땅굴 속에 살며 보통 다섯 마리에서 집단적으로 열다섯 마리까지 살기도 하며 **오소리 가죽으로 감티를 만들어 착용**했다. • 오소리는 제주도 산간지역, 해안지역 등에 많이 서식하였다. 동지가 되기 전 첫 서리가 내릴 때 오소리 사냥을 많이 했다. • 최근 40년 전까지 와흘 지역에서 오소리 모자 착용한 것을 보았다. • **오소리 가죽**은 가죽부분에 소금(방부제 역할)을 뿌려 기름을 제거하고 그늘에 잘 펴서 말리며, 오소리 기름은 불포화지방이라 가죽이 부드럽고 얇으며 털이 촘촘하여 따뜻하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운 반면 털이 빳빳하여 잘 부러지므로 무속인들이 주로 북, 장구 등의 악기를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 • **오소리 감티**는 머리에 꼭 맞는 둥근 형태로 감티의 정수리 부분이 손으로 쉽게 잡고 벗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오소리를 '오로'라고도 했으며, 털이 밖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김경득 (1929년생) 고두진 (1954년생)
• 오소리가 많이 잡히지는 않았다. • 제주에서는 **'지달이감티'**라고도 불렀다. • 검은색 계열의 것이 상품이다. • 털이 많고 길어서 따뜻하며 추울 때는 뒷부분을 내리고 따뜻할 때는 올려서 묶었다. • '감티'는 제주도 방언이다. • **오소리**가 개나 소보다 따뜻하였기 때문에 감티의 재료로 사용했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운 반면 털이 굵고 빳빳하기 때문에 복식의 재료로 사용할 때는 털을 모두 제거하여 사용했다.	오영종 (1929년생) 고춘일 (1933년생) 외 2인
• **감태를 감티**라고 했으며 **노루가죽과 소가죽**을 사용했다. • 방한용으로 착용했다.(아무리 추운 날에도 따뜻하다) • **노루가죽**은 **방수효과**가 좋다.	정신생 (1921년생) 외 4인
• **오소리감티**를 **'지달이모자'**라고도 한다. • 가난한 소테우리(목자)는 집이 없어 창고에서 지내며 이때 **가죽옷**은 크기가 크고 따뜻했기 때문에 소를 몰 때 착용하거나 밤에 이불로도 사용했다. 머리에는 **오소리감티**를 착용하여 추운겨울을 지냈다.	김영훈 (1939년생) 김정자 (1940년생)

dCollection @ jeju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감티**는 가죽이 밖으로 보이게 하거나 털이 밖으로 보이게 양면으로 착용하였다. • 산간지역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추석 지나서 제주시내로 내려올 때도 착용하였다. • 제주도 동쪽 표선, 세화 지역에 오소리가 많았는데 오소리는 기름, 식용, 가죽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 1945년까지 관덕정(5일장)에서 족제비, 오소리 가죽을 판매했다. • 200m이상 고지대 산간사람들인 화전민이 착용했다.(사냥, 농사일할 때) • 모든 동물 가죽은 어릴수록 가죽이 얇고 부드러우며 가치가 있고, 늙은 동물의 가죽일수록 질기고 두꺼우며 가치가 없다. • 40년 전 가죽감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좀이 슬고 관리가 힘들어 버렸다.	김익수 (1937년생)
• **가죽감티 재료는 오소리가죽,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했다.** • 제주시 도민이 봤을 때 보기에 좋고 따뜻하다. • 중간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 오소리는 중산간지역에 많았다.	송재희 (1933년생)
• **가죽감티 재료는 오소리가죽, 개가죽** 사용했다. • 아라동에서 동네 마실 나갈 때 착용했다. • 오소리 가죽은 다른 가죽보다 털이 촘촘해서 훨씬 따뜻하다. • 검은 색에 가까운 진한색이라 멋스럽게 착용했다.	김인순 (1933년생)
• **감티는 오소리, 노루가죽**으로 만든다. • 교래리에서 **가죽감티**, 가죽옷, 가죽바지, 가죽신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 **돌하루방의 벅수머리**와 형태가 같다. • 추운겨울 방한용으로 사용했다.	오문복 (1936년생)
• **가죽감티**는 노루가죽, 오로가죽(오소리)으로 만들며 형태는 털이 달려있고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여 위는 평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납작한 형태가 된 것이다. • **가죽감티**는 반달모양의 둥근형태로 음양오행 중 양(하늘)을 뜻한다. 사냥이나 목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고한구 (1936년생)
• **돌하루방 머리가 벅수머리**이며, 이것이 **감티**를 착용한 것이다. • 가죽감티는 사냥하는사람 '사농바치'가 방한용으로 착용한 것이다. • 제주에서는 옷, 감티라 한다.	진성기 (1936년생)

dCollection @ jeju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감티는 '감태'라고도 불리어졌으며 진성기(1936년생), 오문복(1936년생)은 감티의 형태를 제주도의 특유한 돌로 만들어진 할아버지란 뜻의 돌하르방의 벅수머리 형상과 유사한데 이것은 몽고의 목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착용한 모자의 형태로 만들어 착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감티의 소재는 오소리가죽, 노루가죽, 소가죽, 개가죽 등을 다양하게 사용했지만 털이 부착된 오소리가죽이 가장 따뜻하여 고급품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소리는 중산간지역에 많이 서식하였으며, 오소리는 복식의 재료뿐만 아니라 오소리 기름은 아이들의 중이염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고기는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 동물이었다. 오소리감티를 제주에서는 '지달이모자' 또는 '지달이감티' '오로모자' 등으로 불리었으며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거나 또는 털이 안으로 들어 가도록하여 양면으로 모두 착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갈색 계열의 것이 가장 상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루가죽은 방수효과가 좋아 의복 및 모자에 사용되었는데 얇고 부드러운 반면 털이 굵고 빳빳하기 때문에 복식의 재료로 사용할 때는 털을 모두 제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며 실제로 조사한 노루 가죽감티는 털이 모두 제거된 가죽상태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죽감티 유물은 제주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점, 제주민속박물관 1점, 제주대학교박물관에 2점 소장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표 8>과 같다.

<표 8> 가죽감티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가죽감티 Ⅰ	오소리털가죽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죽감티 Ⅱ	오소리털가죽	제주민속박물관
가죽감티 Ⅲ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감티 Ⅳ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위 4점을 조사한 결과 유물에 관한 실증고찰은 털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오소리가죽감티와 털을 제거한 노루가죽으로 만든 가죽감티 2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dCollection @ jeju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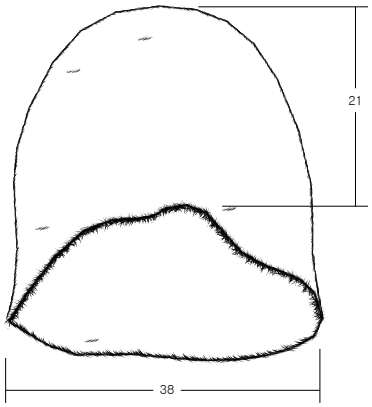
(1) 가죽감티 I

가죽감티 I 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비교적 털이 많고 색상 또한 진갈색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한구(1936년생)는 “감티의 형태를 반달모양으로 음양오행 중 양(하늘)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털이 달려 있고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제단하며 위는 평면적으로 반달모양의 납작한 형태이다”.라고 하였다. 이 유물은 오소리 가죽 2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길이(35cm)가 앞길이(21cm)보다 14cm나 길어 추위로부터 뒷목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턱밑에서 묶거나 머리 뒤쪽에서 묶을 수 있도록 끈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영종(1929년생) 외 6인과의 면담에서 “추울 때는 뒷부분을 내리고 따뜻할 때는 올려서 묶었다”는 것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티에 부착되어 있는 끈은 오소리의 앞다리부분을 1cm두께로 가늘게 잘라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 장의 오소리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10, 11). 김인순(1933년생) 외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오소리 가죽감티는 다른 가죽감티 보다 털이 촘촘하고 가벼워서 매우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땀이 날 정도로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12, 13>는 감티의 앞, 뒷모습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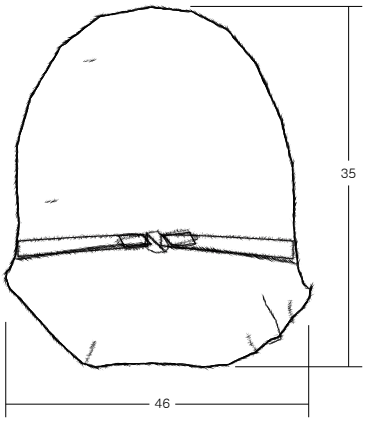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그림 10> 가죽감티 I 앞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그림 11> 가죽감티 I 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그림 12> 가죽감티 I 앞
도식화



<그림 13> 가죽감티 I 뒤
도식화

감티의 앞부분은 반달모양으로 머리의 크기만큼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안단처럼 안쪽으로 접어 넣었는데 뒤집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오소리의 눈 부위로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그리고 오소리가죽 2조각을 연결한 감티의 정상부분에는 둥근 머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안쪽중심에 가는 나뭇가지를 넣어 감티의 형태를 고정하는 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dCollection @ jeju

<그림 14> 가죽감티 I 안쪽

<그림 15> 가죽감티 I 안쪽 (나무틀부분)

가죽감티의 바느질방법으로 <그림 16>의 연결 부분은 코걸이기법과 직각감침질이 사용되었으며, 가죽감티의 안쪽 부분에 감침질을 하였다. <그림 17>의 감티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세로 감침질을 하여 감티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소리 가죽은 얇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일반 무명실을 사용하여 제작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가죽감티 I 바느질 부분

<그림 17> 가죽감티 I 나무틀 부분

(2) 가죽감티Ⅱ

가죽감티Ⅱ는 현재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오소리 가죽 털이 거의 빠진 연갈색으로 색상이 많이 변색되었으며 딱딱하게 굳어 있다. 오소리 가죽 3조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둥근 형태로 옆면에는 삼각형의 가죽이 덧대어졌다(그림 18, 19). 뒷길이(27cm)가 앞길이(22cm)보다 5cm길며(그림 20), 이는 오영종(19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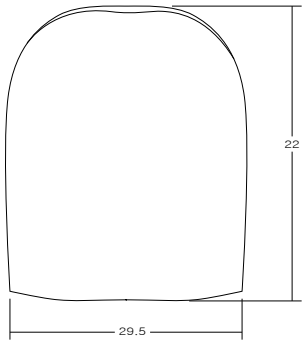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생) 외 6인과의 면담에서와 같이 추울 때는 뒷부분을 내리고 따뜻할 때는 올렸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고두진(1954년생) 의 면담에서 밝힌바와 같이 머리에 꼭 맞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감티의 끝부분은 안단을 처리하지 않고 가죽 그대로 머리 크기에 맞게 잘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죽감티 바느질방법으로 가죽을 연결하기 위해 세로 감침질이 사용되었다. <그림 21, 22>는 감티의 앞, 뒷모습을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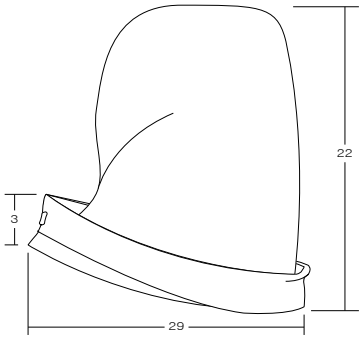
<그림 18> 가죽감티Ⅱ 앞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9> 가죽감티Ⅱ 옆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0> 가죽감티Ⅱ 뒤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1> 가죽감티Ⅱ 앞
도식화



<그림 22> 가죽감티Ⅱ 뒤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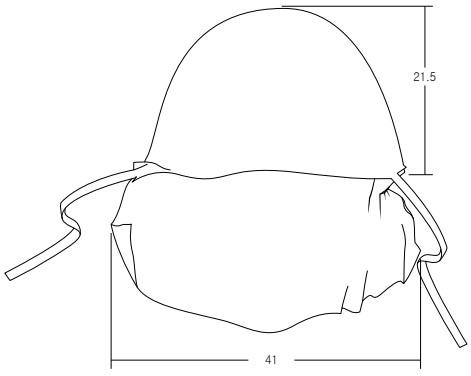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3) 가죽감티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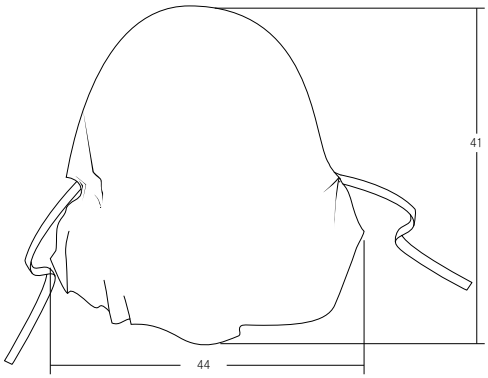
가죽감티Ⅲ는 현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털을 제거한 노루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색상은 황토색이며 가죽이 얇고 부드럽다. 노루가죽 2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길이(41cm)가 앞길이(21.5cm)보다 19.5cm 길다. 앞뒤길이 차이가 다른 가죽감티 보다 훨씬 길었으며, 끈이 부착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유물 역시 추운 날에는 뒷목 부분을 내려서 뒷목을 감싸고 덜 추운 날에는 뒷부분을 접어서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3, 24). 또한 양옆의 끈은 가죽이 따로 연결되지 않고 노루 한 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26>은 감티의 앞, 뒷모습을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 가죽감티Ⅲ 앞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4> 가죽감티Ⅲ 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5> 가죽감티Ⅲ 앞
도식화



<그림 26> 가죽감티Ⅲ 뒤
도식화

dCollection @ jeju

가죽감티 중 오소리 가죽감티가 가장 따뜻하며 감티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노루를 많이 사냥했던 지역에서는 노루가죽으로 감티를 만들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신생(1921년생) 외 4명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티로 만들어 착용하였다”는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이 유물의 바느질방법으로는 가죽을 연결하기 위해 감침질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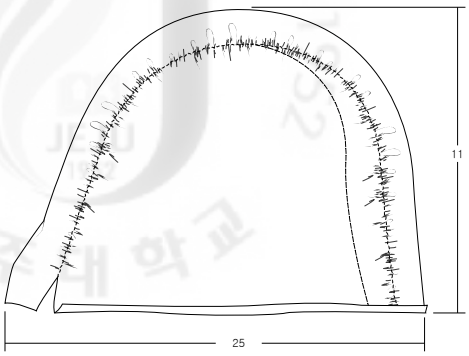
(4) 가죽감티Ⅳ

가죽감티Ⅳ는 현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털을 모두 제거한 노루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색상은 황토색이며 가죽감티Ⅲ 보다 두껍고 거칠었다. 이 유물은 노루가죽 4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옆에 끈이 있었으나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며, 옆면에 작은 삼각형 가죽을 덧대어 장식하였다(그림 27, 28). 뒷길이(28cm)가 앞길이(11cm)보다 17cm나 길며 가죽감티 바느질방법으로 가죽을 연결하기 위해 감침질방법을 사용하여 튼튼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었다. <그림 29, 30>은 감티의 앞, 뒷모습을 도식화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7> 가죽감티Ⅳ 앞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8> 가죽감티Ⅳ 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dCollection @ jeju



<그림 29> 가죽감티Ⅳ 앞
도식화

<그림 30> 가죽감티Ⅳ 뒤
도식화

따라서 위의 가죽감티 유물(Ⅰ~Ⅳ)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4점의 유물 모두 감티의 앞길이 보다 뒷길이가 길었으며 이는 겨울 중산간지역의 추위로부터 뒷목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어진 것으로 양옆에 달린 끈으로 감티를 올려서 묶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점이다. 또한 가죽감티 재료는 가죽이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보온성 및 방수성이 좋은 오소리, 노루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오소리의 경우는 털이 부착된 상태로, 노루의 경우는 털을 모두 제거한 가죽의 상태로 감티가 제작되었는데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이러한 가죽감티를 착용하면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였고 비오는 날에는 빗물이 머리에 스며들지 않을 정도였다는 면담결과로 보아 보온성과 방수성이 매우 우수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가죽감티는 머리에 쓰는 의관의 하나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자인 감투의 의례적이고 장식적인 성격보다는 방한과 방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용적인 성격을 더욱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2) 털벌립 (털벙것)

소의 털을 모아 만든 벙거지 형태로 제주에서는 '털벌립' 또는 '털벙것'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무관이 쓰던 전립의 형태와 유사하며 머리위에 살짝 얹을 수 있도록 대우부분은 둥글게 되어있고, 양태의 형태는 제주도의 정당벌립, 갓과 유사하다.

주로 비오는 날, 소나 말을 돌볼 때 목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모자의 일종이다. 털

dCollection @ jeju

벌립의 소재는 검은 소와 황소의 털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검은색 털이 가장 고급품이었다. 털벌립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털벌립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털벙거지**는 제주도 방언으로 '**털벌립**', '**털벙것**'이라고 한다. • 검은색의 털벙거지가 고급품이다. • 제주에서 흑우가 유명하고 귀하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1~2마리씩 소량으로 키웠으며, 황소는 많았기 때문에 들에서 키웠다. 따라서 귀한 흑우의 검은 털이 가장 고급품이다. • **털벙거지**는 상투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대우부분이 좁게 제작되었다. • 비 오는 날 착용하면 비를 막아주는 방수 효과가 좋다. • 밭일하거나, 테우리(목자)들이 착용했다. • 진드기가 생길 때 빗어서 나온 털을 모아 활로 튕겨 콩풀을 섞고 모자골에 맞춰 제작한 것이다.	진성기 (1936년생)
• 아무나 착용하지 않았다. • 조선시대 무관이 착용했던 것이며 회천에서 계층이 있는 사람이 착용한 것을 보았다.	고한구 (1936년생)

이상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에서는 털벙거지를 '털벌립'이라고도 불렀으며 소의 잔털을 모아 깨끗이 빨아 말린 후 활로 튕기며 덩어리의 상태를 완전히 풀어낸 뒤 모자 골에 맞춰 늘어놓고 콩풀을 먹여가며 굳힌 뒤 펠트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검은색 털로 만든 털벌립이 가장 고급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털벌립 유물은 현재 제주민속박물관에 1점, 제주대학교박물관에 7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사박물관에 2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표 10>과 같다.

dCollection @ jeju

<표 10> 털벌립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털벌립Ⅰ	소털(흑우털)	제주민속박물관
털벌립Ⅱ	소털(황소털)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Ⅲ	소털(황소털)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Ⅳ	소털(황소털)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Ⅴ	소털(황소털)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Ⅵ	소털(황소털)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Ⅶ	소털(황소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털벌립Ⅷ	소털(흑우털)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Ⅸ	소털(황소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털벌립Ⅹ	소털(황소털)	제주대학교박물관

위 10점 중에서 형태가 다른 대표적인 유물 3종류를 실증 고찰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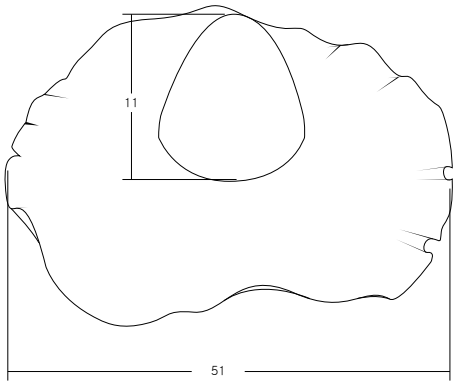
(1) 털벌립Ⅰ

털벌립Ⅰ 유물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양질의 검은색 소털로 만든 것으로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지름이 51cm이며, 대우의 너비는 15cm이며 높이는 10cm정도로 위로 갈수록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마 위에 얹을 수 있도록 대우부분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 또한 비오는 날 착용하면 비를 막아주며 방수효과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진성기(1936년생)의 면담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태가장자리에 종이로 된 딱딱한 틀을 넣어 큰 털벌립을 단단하고 균형있게 고정하였으며 끝부분은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32>는 털벌립의 양태 끝부분에는 손이 많이 닿는 곳이라 잔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휘갑치기를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은 털벌립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dCollection @ jeju

<그림 31> 털벌립 I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32> 털벌립 I 양태 가장자리



<그림 33> 털벌립 I
도식화

(2) 털벌립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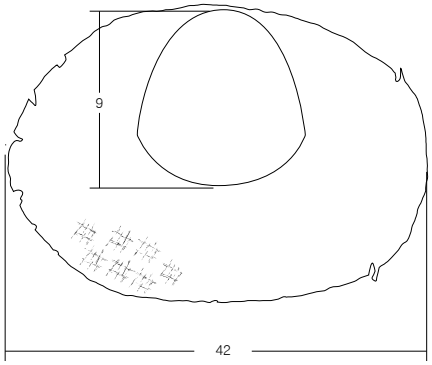
털벌립Ⅱ 유물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진 유물 중 하나로 색상은 진갈색으로 털벌립의 보존 상태가 좋다(그림 34). 지름이 42cm이며, 대우의 너비는 16cm이고 높이는 9cm로 대우 윗부분이 비교적 둥근 형태였으며, 다른 털벌립 유물들에 비해 두껍고 무거웠다. 이것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소털의 양을 달리 사용하였기

dCollection @ jeju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태 끝부분도 단단하여 휘갑치기를 하지 않았으며 털 빠짐 현상이 훨씬 덜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5). <그림 36>은 털벌립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 털벌립Ⅱ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35> 털벌립Ⅱ 양태 가장자리



<그림 36> 털벌립Ⅱ
도식화

(3) 털벌립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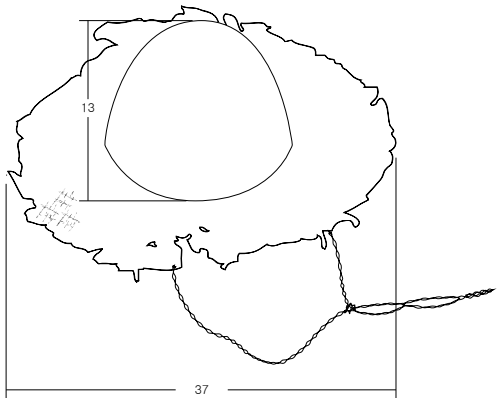
털벌립Ⅲ 유물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색상은 갈색으로 털벌립의 상태가 조금 훼손되었지만 형태를 살펴보는데 무리는 없었다(그림 38). 지름

dCollection @ jeju

이 37cm이며, 대우 너비는 15cm이고 높이가 13cm 정도로 끝이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다른 털벌립에 비해 양태 크기가 가장 작았으며 양 옆에 끈이 달려있다. “회천이라는 동네에 무관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계층이 있는 사람이 착용하고 다녔던 것을 보았다”는 고한구(1936년생)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군인들이 착용했던 전립 형태와 유사한 털벌립 형태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두꺼워서인지 양태 끝부분에 휘갑치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털벌립은 다른 털벌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태 부분에 줄무늬 장식이 있는데 이것은 털벌립 모양으로 만들 때 줄무늬를 찍어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39). <그림 40>은 털벌립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8> 털벌립Ⅲ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39> 털벌립Ⅲ
양태 가장자리



<그림 40> 털벌립Ⅲ
도식화

dCollection @ jeju

따라서 위의 털벌립 유물(Ⅰ~Ⅲ)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3점의 유물 모두 소의 잔털을 모아 수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대우의 너비는 15~16cm로 머리에 살짝 올려서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털벌립의 양태 너비나 털의 양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의 털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비 오는 날 착용하였을 때 방수 효과가 있다는 장점으로 보아 털벌립 역시 실용성을 중시한 모자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2. 의복

의복은 사람 몸에 걸치는 옷을 말하며, 제주 중산간지역에서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 의복의 종류로는 가죽옷, 가죽발레(덧바지), 가죽바지 등이 있으며, 소재로는 개가죽, 소가죽, 노루가죽, 오소리가죽 등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죽옷

선행연구에서는 '가죽두루마기'로 표기하였으나 본 연구를 위해 민속학적 조사방법인 면담에서는 대부분 '가죽옷'이라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면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죽옷'으로 명칭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물조사 결과 가죽옷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실제 가죽옷은 무두질한 가죽을 소재로 하지 않고 털이 그대로 부착되어진 상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죽옷은 주로 중산간지역의 사냥꾼,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인 테우리(목자), 화전민 등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였으며 중산간지역의 나무덩굴, 가시 등으로 하여금 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 형태의 의복이다. 가죽옷의 소재는 개, 소, 송아지, 노루, 오소리 등 다양하며 이 중에서도 개가죽으로 만든 옷이 가장 따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죽옷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dCollection @ jeju

<표 11> 가죽옷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옷**은 노루, 송아지, 망아지 가죽으로 지어 입었다. • 교래리에서 가죽감티, **가죽옷, 가죽바지**, 가죽신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 대부분 **노루가죽으로 옷을** 지어입고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웠기 때문에 의복에는 부적합하다. • 4·3 항쟁 이후 노루들이 멸종하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었다. • 50년 전에 **개가죽으로 바지**를 만들어 입고 다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고신화 (1923년생) 김두생 (1940년생)외
• 고려시대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제주에도 심었으나 제대로 열매가 맺지 않아 번번히 실패하면서 직물이 귀하고 부족하여 **가죽옷**을 착용했다. • **개가죽 옷은** 부의 상징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었다. • 일반적으로 **가죽옷**은 사냥꾼 옷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산간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추웠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에서 방한복으로 착용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주에서는 사치품이 아닌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 중산간지역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착용하기도 했다.	오문복 (1936년생)
• **지달이 가죽감티, 개가죽 옷, 가죽버선**을 함께 착용하여 아무리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지냈다. • 사냥꾼을 '사냥와치'라 하며, 사냥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였다. • 부자인 사람들은 주로 일을 많이 하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지 않으며 소, 말 테우리(목자), 사냥하러 한라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 가난한 소테우리(목자)는 집이 없어 창고에서 지내며 이때 **가죽옷**은 크기가 크고 따뜻했기 때문에 소를 몰 때 착용하거나 밤에 이불로도 사용했다. • **개가죽옷은** 소테우리(목자)가 착용했으며 집이 없어 창고에서 지내며 추운 겨울밤에 이불로 사용했다.	김영훈 (1939년생) 김정자 (1940년생)
• 한라산에 노루가 많았으며 4·3 이후 많이 사라졌다. • 제주도 서쪽에서는 거의 착용하지 않고 우마를 키우는 사람들이 한라산 중산간지역에서 주로 착용했다. • 가죽옷의 소재는 개, 송아지로 만들었으며 특히 **개가죽 옷**을 많이 입었다. • **개가죽 옷**을 만들 때는 가슴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가죽을 달아 매우 추운 곳에서도 심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고자 했다.	고우탁 외 (1925년생)

dCollection @ jeju

면담내용	면담자
• **개가죽옷은 소가죽옷**보다 많이 만들어 입었다. • **개가죽**의 경우 특히 가슴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강아지 가죽을 사용했는데 이는 추운지역에서 일을 하는 착용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김경득 (1929년생)
• **개가죽, 소가죽 옷**을 사냥용으로 입었다. • 가죽옷을 제주에서는 '**가죽놋**'이라고 불렀으며 입는 사람은 적었다. • 부에 관계없이 착용했다. • 한라산 중턱에 일을 나갈 때 매우 춥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까지 착용하면 매우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었다. • 소, 말 테우리(목자)도 **가죽옷**을 착용했다. • 집집마다 개를 키웠으며 개는 먹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여러장 모아 두었다가 옷으로 만들었는데 개가죽은 질기고 가볍고 털이 따뜻하다. • **소가죽옷**은 두껍고 무거워서 주로 사용하지 않았다. • 제주도에서 착용했던 **가죽옷**은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뻣뻣해서 입기 힘들어지면 돼지기름을 녹여 가죽에 발라 비비면 부드러워진다.	오영종 (1929년생)
• 소는 가죽이 너무 질기고 뻣뻣하여 옷을 만들지 않고 송아지의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송아지 가죽은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옷 만들고 남은 조각들은 가죽버선, 또는 가죽신을 만들었다.	김순생 외 (1921년생)
• 가죽옷은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소가죽은 가죽 중 가장 질기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다. • 산에 다니는 사람, 사냥할 때, 우마를 돌보는 테우리(목자)들이 주로 착용했다. • 소가죽 옷은 따뜻하며 중산간지역의 가시밭 등에서 살이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 착용했다. • 중산간지역 부락에서 2~3명 정도 착용하며 자랑삼아 입었다. • 말가죽은 다른 가죽에 비해 약해서 잘 찢어지므로 옷을 만들지는 않았다. • 가죽옷, 가죽버선, 가죽감티에 사용된 바느질 방법은 주로 감침질이며, 제주에서는 가죽버선 바닥부분에 사용되는 바느질방법을 **'코걸이'**라 불렀다. 이 방법으로 가죽을 연결하면 살이 닿는 부분이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	고한구 (1936년생)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가죽옷은 '가죽놋'이라고도 불리어졌으며 소, 말테우리(목자), 사냥하러 한라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용했을 뿐만 아니라 눈과 비가

dCollection @ jeju

오는 날에도 착용했던 옷으로 방한, 방수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긴 소매가 있으며 무릎 밑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포 형태로 동물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여 착용했다. 소재는 개, 소, 송아지, 오소리, 노루, 말 등 다양하였지만 개가죽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그 다음 소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에서 개는 집집마다 키웠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 고기는 보신용으로 사용하고, 개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털이 따뜻하였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에서 주로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송아지가죽에 비해 소가죽은 무겁고 두꺼워서 의복으로 적합하지는 않았으나 송아지 가죽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질긴 소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가죽옷 유물은 제주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1점, 제주민속박물관에 1점, 제주대학교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유물 목록은 <표 12>와 같다.

<표 12> 의복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가죽옷	개가죽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죽옷	소가죽	제주민속박물관

위 유물을 조사한 결과 개가죽 옷과 소가죽 옷 2점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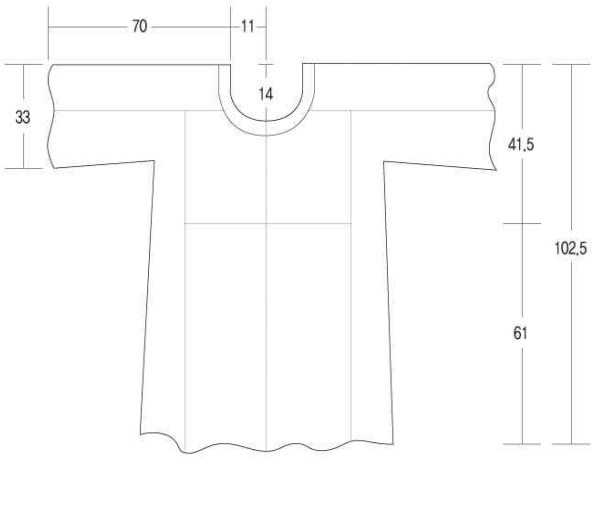
(1) 개가죽 옷

개가죽 옷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비교적 털이 많고 색상 또한 갈색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개가죽 총 18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앞길 2장, 뒷길 1장에는 최상급의 털로 매우 곱고 윤기가 나는 것이 부착되어 있다(그림 40). 이것은 김익수(1937년생), 오영종(1929년생) 외 면담에서 “개가죽 옷을 만들 때 가슴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개가죽이나 강아지 가죽을 달았으며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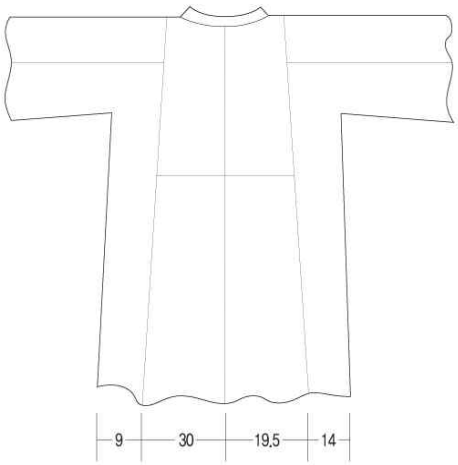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다", "멋을 내기 위해 다른 색의 개가죽을 사용했다"는 내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죽옷의 경우 부피가 크고 따뜻하여 김정자(1940년생) 외 면담에서 "잠잘 때 이불로 덮고 잤다"는 내용으로 보아 보온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42>는 개가죽옷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0> 개가죽 옷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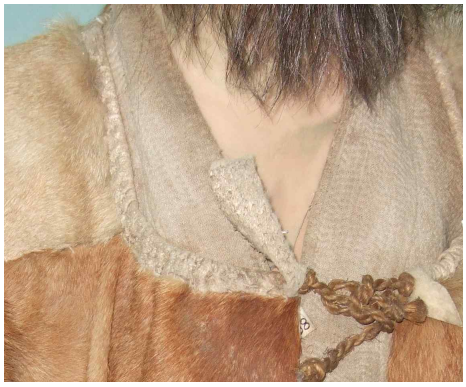
<그림 41> 개가죽 옷 앞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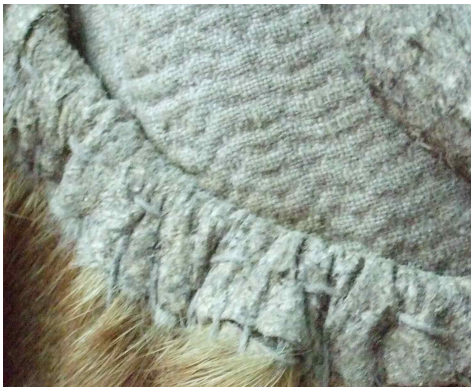
<그림 42> 개가죽 옷 뒤
도식화

dCollection @ jeju

<그림 43>은 가죽을 조각끼리 연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깃 모양은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으며, 깃 둘레에 털을 제거한 가죽 1.5~2cm폭을 덧대어 바이어스기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끼줄을 넣었으며 앞여밈 부분을 당겨서 묶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한 목 부분에 말총을 여러 겹 꼬아서 기웠으며 입을 때 여미는 것은 '돌마귀단추(매듭단추)'와 앞섶 안쪽에 달린 가죽을 연결하여 매었다[46]. 가죽이 귀했던 만큼 가죽을 그대로 잘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접처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문복(1936년생)은 "이 유물이 박물관에 사냥꾼 옷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중산간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추웠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에서 방한복으로 착용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주에서는 사치품이 아닌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옷"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주 중산간지역 공동묘지에 장례 치르러 갈 때 착용하면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며 실용적인 옷 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림 43> 개가죽 옷 깃부분



<그림 44> 개가죽 옷 깃부분
바이어스 처리부분

<그림 44~46>의 개가죽 옷 깃, 시접부분, 가죽연결부분에 사용되어진 바느질방법은 깃 가장자리 바이어스 부분에는 성근 홈질을 하였고, 시접부분과 가죽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세로감침질을 하였다. 고한구(1936년생)는 "제주에서 가죽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기법을 '코걸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며, 가죽이 두께가 있으므로 코걸이기법으로 하여야만 옷이 불편하지 않고 몸에 닿았을 때 아프지도 않아 자연

46) 고부자 (1995). *앞의 책.* pp. 63-64.

dCollection @ jeju

스럽게 착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코걸이기법은 가죽으로 만든 감티, 가죽옷, 가죽 버선 등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림 45> 개가죽 옷
깃 안쪽 부분

<그림 46> 개가죽 옷
앞길 연결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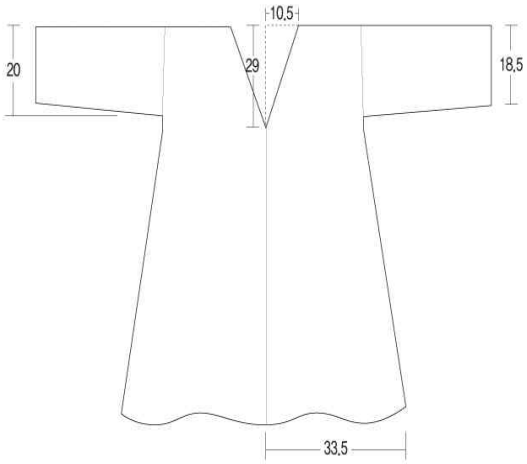
(2) 소가죽 옷

소가죽 옷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비교적 털이 많고 황소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소 1마리 분량의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몸통 1조각, 양 소매 각각 1조각씩 총 3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거의 너비가 일정한 통수이며 소매 끝에는 길이의 1/2이상 되는 시접을 잘라내지 않고 안으로 그대로 넣은 것으로 보아 가죽이 매우 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7). 소가죽옷의 앞길이(96cm)와 뒷길이(90cm)에는 6cm 차이가 있는데 제주민속박물관장인 진성기(1936년생)는 “가죽옷의 뒷부분은 소가죽의 꼬리 부분으로 꼬리만 잘라내서 뒷길이가 짧아진 것이다”고 했는데 그만큼 가죽을 아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한구(1936년생)는 “소가죽 옷은 다른 가죽에 비해 무겁기는 하지만 질기고 두꺼워서 옷이 귀한 시절 오래 입을 수 있었다”고 했으며 이러한 의복을 착용한 우선적인 목적은 매우 실용적인데 있음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8>은 두껍고 벌어지기 쉬운 앞여밈 부분에 소가죽으로 매듭단추를 만들어 달았으며 전체적으로 옷과 어울리게 하였고 또한 편리하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림 49, 50>은 소가죽옷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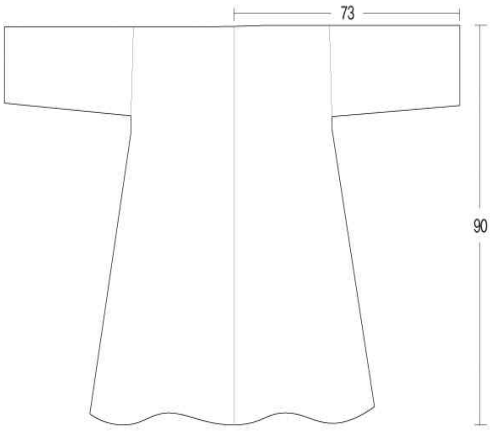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사진 47> 소가죽 옷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48> 소가죽 옷
매듭단추 부분



<사진 49> 소가죽 옷 앞
도식화



<사진 50> 소가죽 옷 뒤
도식화

<그림 51>은 소가죽 옷의 배래 부분으로 소가죽은 개가죽에 비해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가죽 실을 사용하거나 두꺼운 무명실을 여러 겹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 가죽옷의 경우 무명실을 여러 겹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52>의 깃 가장자리는 시접 2.5cm를 안으로 접어서 사선감침질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겨드랑이 안쪽부분에는 온박음질을 하여 튼튼하게 제작하였다(그림 53).

dCollection @ jeju

<그림 51> 소가죽 옷
배래 부분

<그림 52> 소가죽 옷
깃 안단 부분

<그림 53> 소가죽 옷
겨드랑이 부분

고두진(1954년생)은 “가죽은 거칠고 두껍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일은 대부분 남자들이 맡아서 했으며 가죽의 바느질 또한 남자가 하여 꼼꼼하지 않고 엉성했다”고 했는데 2점의 가죽옷 모두 튼튼하게는 제작되었으나 바느질이 모두 엉성하고 거칠었다. 그리고 2점의 가죽옷 모두 형태는 긴 소매가 있으며 몸을 감쌀 수 있는 넓이에, 종아리를 가릴 정도의 긴 길이로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여 착용했는데 특별한 가공 없이 가죽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주에서 가죽옷은 장식적인 목적이 아닌 방한용으로서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 착용했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옷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의 테우리(목자)들이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불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2점의 유물 모두 몸을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품이 넉넉했다.

2) 가죽발레

가죽발레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명칭 또한 도민과의 면담에서 ‘가죽발라고 불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가죽발레’라 정리하고자한다. 고한구(1936년생)는 가죽발레를 “탐라국 100년 동안 몽고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형태는 발목에서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감싸는 형태이며, 몽고에서 말을 탈 때 추위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套褲(덧바지)’[47]라고 부르며 형태가 유사하다. 덧바지는 바지 위에 입는

47)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中國美術分類全集 中國織繡服飾全集 5 少數民族服飾卷(上).*

dCollection @ jeju

것으로 바지가랑이만 있는 바지로, 바지를 보호하거나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입었던 옷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에서 중산간지역에 다니는 소나 말을 돌보는 테우리(목자) 또는 사냥하는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소재는 주로 노루가죽을 많이 사용했는데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방수 및 보온효과가 좋기 때문에 눈, 비나 눈이 많은 곳에서 착용하기에 적합했던 소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존유물은 없으나 김익수(1937년생) 외 면담에서 개가죽바지를 착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류로는 갈색 개와 흰 개가 있었으며, 갈색 개가죽으로 만든 바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흰 개가죽으로 만든 바지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가죽발레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가죽발레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소는 가죽이 너무 질기고 뻣뻣하여 옷을 만들지 않고 송아지의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송아지 가죽은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옷 만들고 남은 조각들은 가죽버선, 또는 가죽신을 만들었다.	김순생 외 (1926년생)
• **가죽발레는** 언제부터 신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탐라국 100년 동안 몽고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으로 만들며 냉기 차단용으로 착용했다. • 가죽발레는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 신었으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고한구 (1936년생)
• **가죽바지**는 개가죽으로 만들었다. • 황색 개(누렁이) 가죽은 일반적으로 많고, 흰 개는 값이 비쌌다. • 소가죽, 노루가죽으로 갈중이 형태의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김익수 (1937년생) 정신생 (1921년생)

天津: 天津人民美術. p. 42.

dCollection @ jeju

면담내용	면담자
• 우마를 키우는 사람들이 한라산 중산간지역에서 주로 착용했다. • 노루 **가죽발레는**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하다.	고우탁 (1925년생)
• **가죽발레**는 노루, 개가죽으로 만들었다. • 한라산 중턱에 일을 나갈 때 매우 춥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까지 착용하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끄떡없었다고 한다. • 중산간 테우리(목자), 사냥꾼(사농바치)들이 **가죽발레**를 착용했다고 한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운 반면 털이 굵고 빳빳하기 때문에 복식의 재료로 사용할 때는 털을 모두 제거하여 사용했다.	오영종 (1929년생)
• 노루**가죽발레**는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목장의 가시덩굴 속을 다닐 때 착용하여 다리를 보호했으며 따뜻하고 방수효과가 있다.	오문복 (1936년생)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가죽발레라 불리어졌던 덧바지 형태로 벗겨지지 않도록 끈으로 허리에 묶거나 어깨에 멜빵을 달아 고정시켰으며 주로 노루가죽으로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소나 말을 키우는 목장의 풀과 가시덩굴 등을 다닐 때 다리를 긁히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착용했으며, 눈이 많이 쌓인 한라산을 다닐 때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방한 및 방수복의 일종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고려 때 제주의 목마장 관리를 위해 몽고의 목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착용한 가죽발레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몽고가 목마장을 건설하면서 목호들에 의해 착용되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54, 55>은 청대 몽고인이 투고(套褲)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과 왕족이 착용했던 유물 중 견직물에 호랑이 무늬를 화려하게 나타냈으며 허리가 없고 당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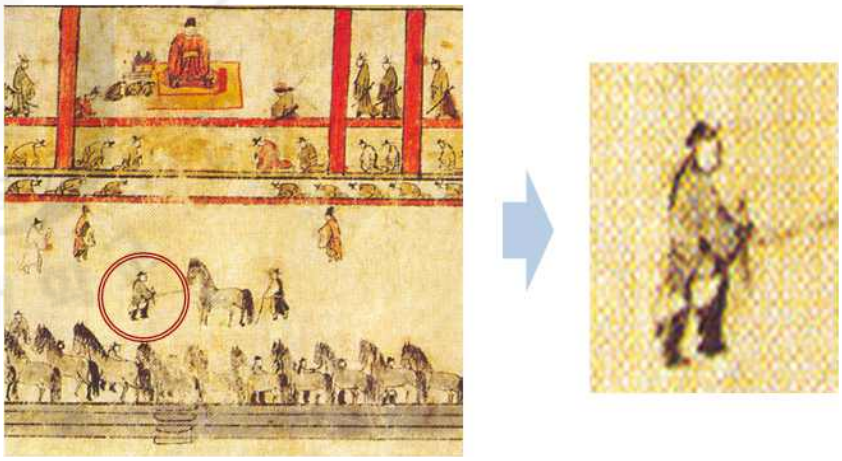
<그림 55> 駿馬輕騎[48]

<그림 55> 套褲[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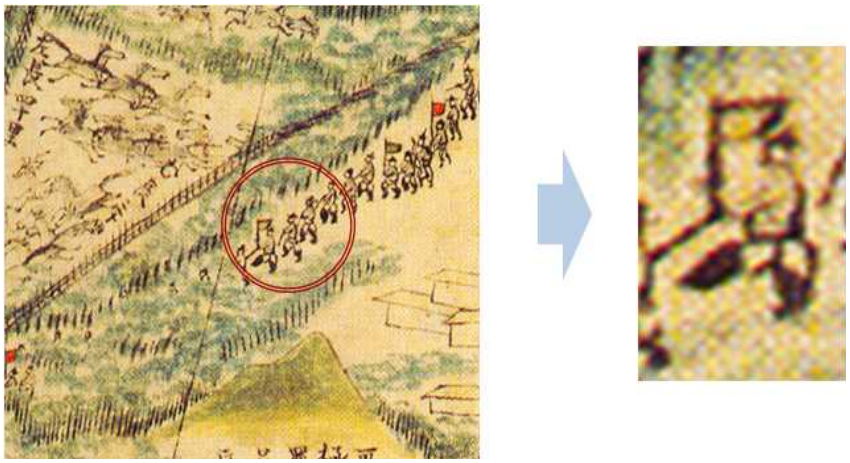
실제로 가죽발레를 제주도에서 착용했던 모습은 1702년(숙종 28년) 때 제작된 『耽羅巡歷圖』의 공마봉진, 산장구마[50], 별방조점[51], 명월조점[52] 외 조천조점, 별방시사 등에서 상급관원도 아닌 제주의 목자들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다(그림 56~59). 테우리(목자)들이 혹한 추위와 더위 등의 악조건에서도 활동에 편리한 의복이 필요했으며 가시덩굴 사이를 급히 지나다녀도 다치지 않도록 제작되어진 것이다. 즉 일반 목자들이 보통 바지 위에 보온 및 보호를 목적으로 덧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8) SHANG HAI SHU HUA CHU BAN SHE (2003). *駿馬輕騎*. 書畫出版: 上海. p. 37.
49) 北 京 (2008). *앞의 책*. p. 142.
50) 산장구마는 1702년(숙종 28년) 이형상 목사가 말을 점검하는 그림인 산장구마에는 가시리의 녹산장이 가장 중요한 제주마 목장으로 그려져 있다.
51) 별방조점은 별방성에서의 군사훈련과 성정군, 군기, 우마를 점검하는 모습이다.
52) 명월조점은 명월진 성정군의 훈련모습과 말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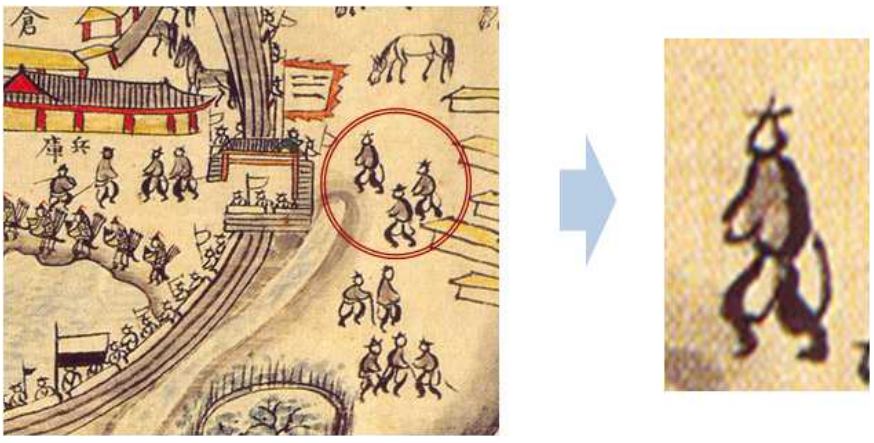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그림 56> 공마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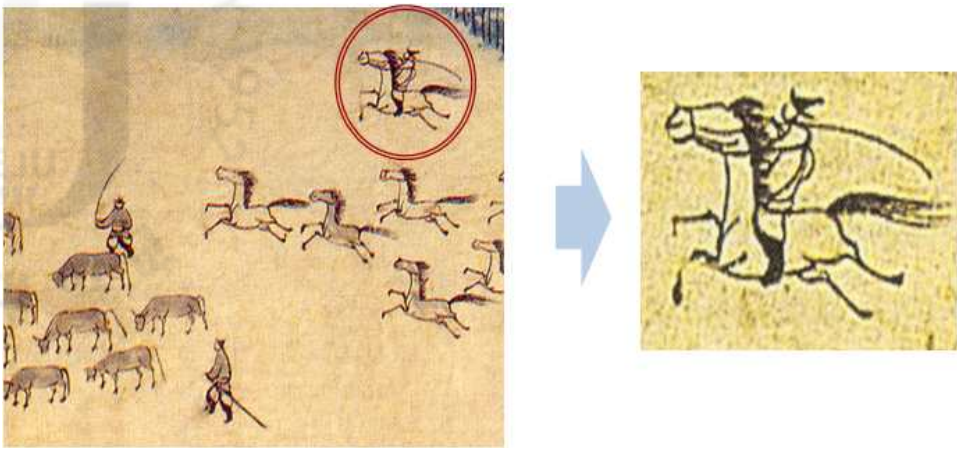


<그림 57> 산장구마



<그림 58> 명월조점

dCollection @ jeju



<그림 59> 별방조점

가죽발레 유물은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1점이 소장 되어져 있으며 유물 목록은 <표 14>와 같다. 실증고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가죽발레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가죽발레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발레 유물은 노루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털이 거의 다 빠졌으며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실측결과 왼쪽의 것은 길이 80cm, 폭 23cm이며, 오른쪽의 것은 길이 62cm, 폭 18cm였다(그림 60). 가죽이란 일반적으로 비를 맞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질기고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훼손될 수는 있으나 가죽 일부분이 찢겨져 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담에서 오영종(1929년생)은 “노루가죽은 얇기 때문에 긁히기는 하나 쉽게 찢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죽발레 유물의 경우 두 점 모두 노루가죽으로 만들어졌으나 길이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한 세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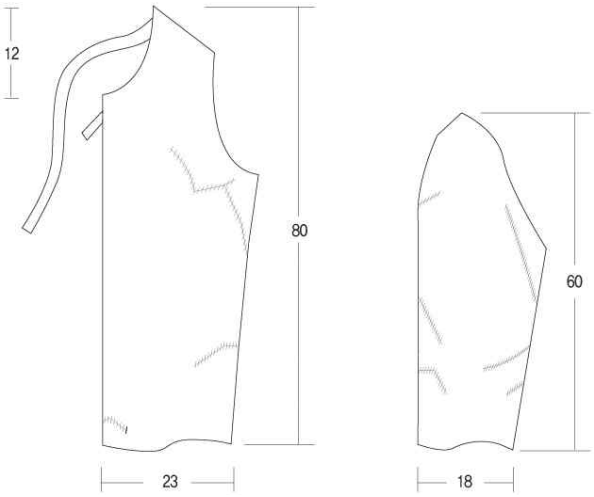
이 유물은 길이가 긴 것으로 허벅지까지 올려서 착용하는 형태이며 위에 끈이 부착되어 있으며 허리에 묶어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루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dCollection @ jeju

한쪽에만 세로 감침질이 되어 있으며, <그림 61>은 가죽발레의 부분적으로 찢겨진 곳으로 세로 감침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신생(1921년생), 김익수(1937년생)의 면담에서 개, 소, 노루가죽으로 갈중이 형태의 바지를 만들어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증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나 특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림 62>는 가죽발레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0> 가죽발레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61> 가죽발레 연결부분



<그림 62> 가죽발레
도식화

dCollection @ jeju

3. 족의(足衣)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의 족의에는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한용으로 착용했던 가죽버선과 가죽신이 있다.

1) 가죽버선

가죽버선은 버선과 같은 형태로 만들며 주로 겨울에 착용하는 것으로 농사일을 할 때, 한라산에 소나 말을 돌보러 갈 때 신었던 것이다. 재료로는 노루, 개, 소 등의 가죽으로 만들며 이 중에서도 소가죽이 가장 질기고 두꺼웠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때는 털을 모두 제거한 채 만들었다. 가죽버선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가죽버선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버선**은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 가죽실은 소가죽의 부드러운 부분(배, 겨드랑이)을 칼로 실처럼 얇게 자른 뒤 60cm로 잘라서 사용했다. • **가죽버선을** 만들 때 가죽 연결하는 바느질방법은 제주에서는 가죽버선 바닥부분에 사용되는 바느질방법을 **'코걸이'**라 불렀다. • **가죽버선**에 초신(짚신)을 신었다. • **가죽버선** 중 발목 밑부분은 소가죽으로 만들며 발목 윗부분은 광목 또는 무명(미녕)으로 만들었다. 가죽버선에 면을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신고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소가죽은 돼지기름으로 문질러 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고한구 (1936년생)
• **가죽버선**에 나막신을 신었다. • **가죽버선**에 가죽 끈이 달려 있으며 가죽 끈으로 발목을 묶으며 가죽버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용도였다.	김영훈 (1939년생)
• **가죽버선**은 발목 밑은 소가죽을 사용하고 발목 윗부분은 무명을 사용하는데 천으로 사용한 이유는 신발을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앞, 뒤트임을 주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을 수 있다. • **가죽버선**에 나막신을 신었다.	송재희 (1933년생)

dCollection @ jeju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버선**의 재료는 소, 노루, 개가죽이었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따뜻한 반면 털이 빳빳하며 굵기 때문에 깎아서 사용했다. 발 크기에 맞게 아무나 만들어 신었다. • 주로 남자들만 착용했으며 여자들은 가죽이 부족하여 착용하지 못했다. • **가죽버선**은 방수와 보온력이 뛰어나 일하러 다닐 때 신으면 따뜻했다. • **소가죽버선**이 딱딱할 때 돼지기름으로 문지르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 **가죽발레**는 개가죽으로 만들지만 만드는 방법은 모른다. • 가죽옷, **가죽버선** 등을 만들 때는 가죽 실을 사용하는데 일반실은 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 유물이 4·3 이후 많이 사라졌다.	오영종 (1929년생)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에서도 가죽버선이라 불리어졌으며 형태는 버선과 같은 형태로 버선본을 가지고 재단하였다.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였던 것으로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쌓인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질기고 두껍고 방수성이 좋은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의복을 제작하고 남는 조각 등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죽버선을 신은 뒤고 짚신(초신)이나 나막신을 신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죽버선 유물은 제주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1점, 제주민속박물관에 3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6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유물 목록은 <표 16>과 같다.

dCollection @ jeju

<표 16> 가죽버선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가죽버선Ⅰ	소가죽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죽버선Ⅱ	노루가죽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버선Ⅲ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Ⅳ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Ⅴ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Ⅵ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Ⅶ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Ⅷ	소가죽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버선Ⅸ	소가죽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버선Ⅹ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위 10점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을 실증 고찰한 결과 소가죽 또는 노루가죽과 면으로 구성되어진 것, 전체 소가죽 또는 노루가죽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죽+면으로 구성된 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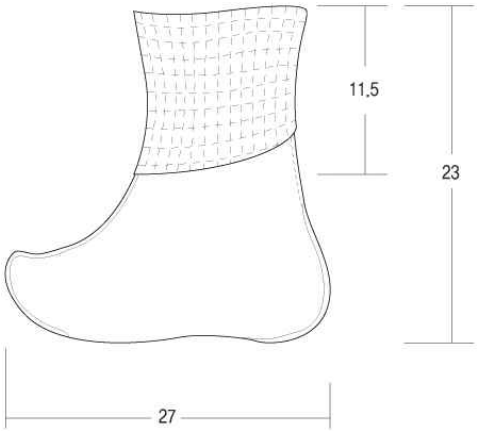
가죽버선 유물(Ⅰ~Ⅲ)은 가죽+면으로 구성된 형태로 바닥에서 발목까지 가죽 2장으로 되어 있으며 발목 윗부분에는 신고 벗기 편리하게 면을 누벼서 구성했다. 이것은 고한구(1936년생) 외 면담에서 바닥부분은 가죽으로 사용하고 발목 윗부분은 광목이나 무명(미녕)으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가죽버선Ⅰ유물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표면의 털을 모두 제거한 소가죽 2장과 발목부분에 무명을 누벼서 구성되었다(그림 63). 무명으로 연결된 부분에는 트임이 없으며, 이는 송재희(1933년생)의 “버선 입구에 앞, 뒤트임을 주지 않아도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는 말과 일치한다.

Collection @ jeju

<그림 64>는 가죽버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3> 가죽버선 I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그림 64> 가죽버선 I
도식화

가죽으로 된 부분 중 잘 헤어지는 섶코와 뒤축 부분에는 소가죽 2장을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할 뿐만 아니라 뒤축 부분에 소가죽을 7cm길이의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달아 장식효과도 보여준다(그림 65, 66). 가죽버선의 가죽과 면 연결부분에는 가죽실을 이용하여 0.3cm 간격으로 홈질이 되어져 있으며(그림 67), 면누비 연결부분은 무명실로 온박음질이 되어져 있다(그림 68). 가죽을 연결하는데 있어 일반실을 사용할 경우 튼튼하지 못하며 잘 헤어지기 때문에 가죽을 연결할 때 가죽 실을 만들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그림 65> 가죽버선 I 섶코

<그림 66> 가죽버선 I 뒤축

<그림 67> 가죽버선 I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그림 68> 가죽버선 I
면 누비 뒷축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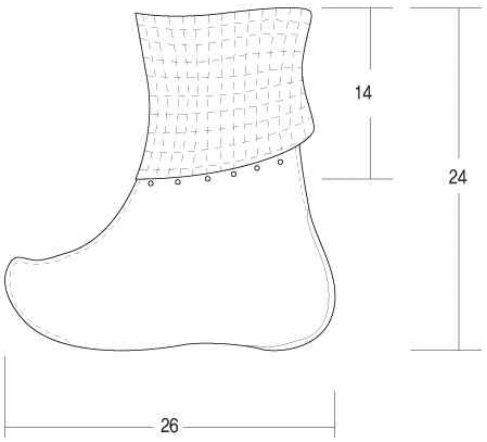
고한구(1936년생)는 “소가죽의 등 부분은 딱딱하고 질겨서 버선이나 신발을 만들고, 부드러운 배 부분이나 겨드랑이부분의 가죽으로 가죽실을 만드는데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가죽을 실처럼 얇게 자른 뒤 60cm로 잘라서 사용하였다”고 했다.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만든 가죽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죽버선 Ⅱ는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노루가죽으로 만들었으며, 털을 모두 제거한 노루가죽 2장과 무명을 누벼서 구성하였다. 무명으로 연결된 부분에 신고 편리하도록 트임을 넣지 않으며, 이 유물의 경우 뒤축이 트여 있었는데 이는 트임을 준 것이 아니라 뜯겨져 있는 것이었다(그림 69). <그림 70>은 가죽

dCollection @ jeju

버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9> 가죽버선Ⅱ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70> 가죽버선Ⅱ
도식화

<그림 71> 가죽버선Ⅱ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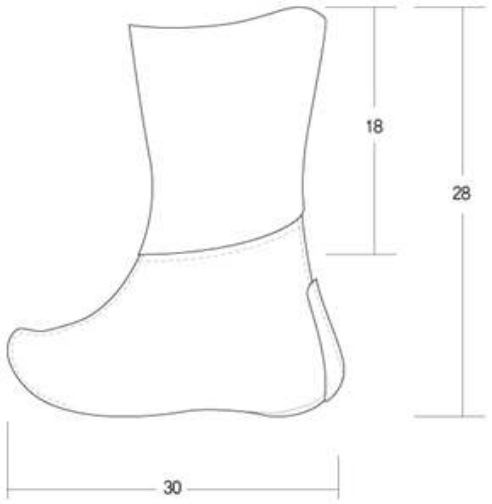
또한 잘 헤어지는 섶코와 뒤축 부분에 노루가죽 2장이 덧대어졌으며 뒤축부분에 노루가죽을 8cm길이의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튼튼하게 보강하면서 장식하였다. 가죽버선Ⅰ유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죽버선Ⅱ 유물에서도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dCollection @ jeju

에 가죽실을 이용하여 0.2~0.3cm 간격으로 홈질하여 견고하게 바느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1).

가죽버선Ⅲ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소가죽 2장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얇은 면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리 춥지 않은 날에 신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앞, 뒤트임이 없었으며, 위의 가죽버선들과 마찬가지로 섶코와 뒤축 부분에 가죽 2장씩 덧대어 잘 헤어지는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였다. 앞과 뒷부분에 가죽과 면이 연결되는 곳에 8cm길이의 소가죽을 부착하였는데 이것은 얇은 면직물을 튼튼하게 받쳐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72). <그림 73>은 가죽버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2> 가죽버선Ⅲ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73> 가죽버선Ⅲ
도식화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에 가죽실이 아닌 무명실을 사용하여 홈질하였는데 이유는 얇은 면직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명실로도 바느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발 바닥부분은 가죽을 연결하는 부분이라 가죽실을 사용하여 코걸이기법을 하였다(그림 74, 75).

dCollection @ jeju

<그림 74> 가죽버선Ⅲ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그림 75> 가죽버선Ⅲ 바닥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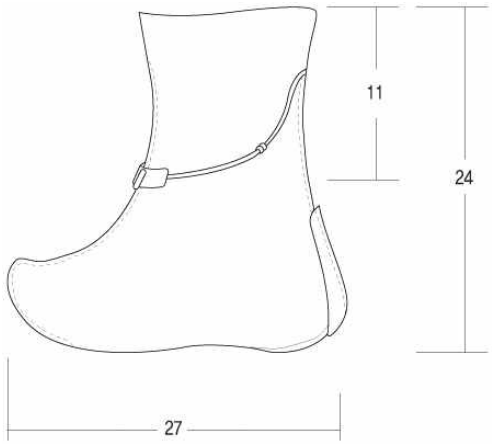
(2) 가죽으로만 구성된 버선

가죽버선 유물(Ⅳ～Ⅵ)은 바닥부분과 발목부분이 가죽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가죽과 가죽을 연결해 구성한 것과 전체 가죽 2장으로 제작한 것이 있다. 이것은 가죽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앞, 뒤트임이 있으며 버선을 신은 뒤에는 버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목을 묶어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가죽끈이 발목에 달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죽버선Ⅳ 유물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표면의 털을 모두 제거한 전체 소가죽 4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위의 가죽버선(Ⅰ～Ⅲ)과 마찬가지로 바닥부분과 발목부분으로 분리되어 제작되었다. 발목부분에 긴 가죽 끈이 달려 있으며 발목에 맞게 묶음으로써 버선이 벗겨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영훈(1939년생) 외 면담에서 “가죽 끈으로 발목을 묶어 버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76). 또한 버선전체를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트임(9cm)과 뒤트임(5cm)을 넣어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했다. <그림 77>은 가죽버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dCollection @ jeju

<그림 76> 가죽버선Ⅳ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77> 가죽버선Ⅳ
도식화

고한구(1936년생) 외 면담에서 “가죽버선의 바닥은 소가죽을 사용하여 만들고, 발목 윗부분은 천으로 만든다. 전체 가죽으로 만들 경우 발목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이 유물의 경우 추운 겨울철 눈이 많이 쌓인 중산간지역을 다닐 때 동상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발과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부분까지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체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가죽이 따뜻하고 방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을 더욱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가죽을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섶코와 뒤축 부분에 정사각형의 가죽 2장을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식효과도 주었으며, 가죽버선의 바닥부분은 가죽실을 이용해서 코걸이기법을 하였다(그림 78, 79). 가죽버선 바닥을 가죽실로 연결할 때 가죽이 겹쳐지면서 두꺼워지지 않고 발이 아프지 않도록 코걸이기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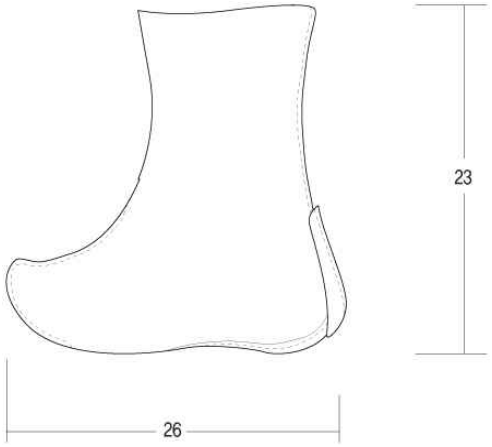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그림 78> 가죽버선Ⅳ
뒤축부분

<그림 79> 가죽버선Ⅳ 바닥부분

가죽버선Ⅴ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전체가 표면의 털을 모두 제거한 노루가죽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목부분은 노루가죽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가죽버선들과 마찬가지로 <그림 80> 뒤축 부분에는 가죽 2장이 덧대어져 있으며 나뭇잎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림 81>은 가죽버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0> 가죽버선Ⅴ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81> 가죽버선Ⅴ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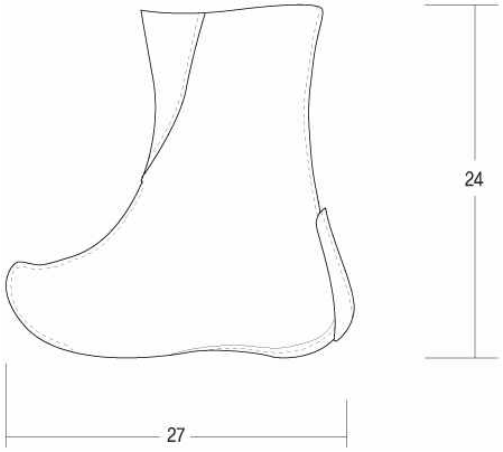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그림 82> 가죽버선Ⅴ 뒷부분

발목부분에 가죽을 연결했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긴 가죽 끈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것 또한 가죽버선을 신었을 때 발목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죽버선 전체길이가 다른 유물에 비해 짧았기 때문에 가죽버선 앞트임(11cm)만 있고 뒷부분은 전체 홈질되어 막혀있었으며(그림 82), 바닥부분은 가죽실을 이용해서 코걸이기법을 하였다.

가죽버선Ⅵ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전체 노루가죽 2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발목부분이 노루가죽 한 장으로 되어있다(그림 83). <그림 84>는 가죽버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3> 가죽버선Ⅵ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84> 가죽버선Ⅵ
도식화

dCollection @ jeju

발목부분에는 긴 가죽 끈이 달려 있으며, 11cm의 앞트임이 있는데 앞트임 좌·우에 너비 4cm, 길이 11cm의 삼각형 모양의 가죽을 덧붙여 트임 부분을 튼튼하게 마무리했다(그림 85). 그리고 신발 뒷부분은 전체 홈질되어 막혀 있으며, 뒤축 부분에 6cm의 가죽 2장을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덧대어 놓았는데 이것은 헤어짐을 방지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86).

<그림 85> 가죽버선Ⅵ
앞트임 부분

<그림 86> 가죽버선Ⅵ
뒷부분

위의 가죽버선 6점은 모두 질기고 따뜻하며 방수효과가 있는 소가죽이나 노루가죽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잘 헤어지기 쉬운 앞코와 뒤축부분에 가죽을 덧대어 견고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면담결과에서 가죽버선은 중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발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신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죽이나 두껍게 만든 면누비를 사용할 경우 가죽실을 이용하였으며, 얇은 면을 사용할 경우 무명실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죽버선을 신고 짚신(초신)을 신거나 나막신을 신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영종(1929년생) 외 면담에서 “소가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돼지기름을 여러 번 발라서 가죽을 문질러 주면 소가죽이 일반 면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고 하였다. 가죽버선의 수명은 약 12년 정도이며 평상시 보관은 집안의 아궁이 위의 벽에 걸어두어 아궁이의 연기로 하여금 좀이 스는 것을 방지[53] 할 수 있

dCollection @ jeju

었다. 가죽버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남자들의 경우 필요한 경우 대부분 착용할 수 있었을 정도로 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죽신 (갑실신·국쉬신)

가죽신은 짚신과 같은 형태이며 재료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죽신이라 하였다. 주로 중산간지역에서 농사일을 할 때, 테우리(목자), 사냥을 할 때 착용하였으며, 재료는 소, 노루 등으로 털을 모두 제거한 가죽으로 만든다. 가죽신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가죽신에 관한 면담 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신(국쉬신, 뀀신)**의 창은 가죽, 바닥은 고무로 되어 있으며, 신창과 바닥 사이에 가죽 **'신깍'**을 넣어서 가죽실로 고정하였다. • **가죽신**은 귀해서 아무나 신지 못하였으며 지식층의 사람들이 신었다.	고한구 (1936년생)
• **가죽신**을 제주에서는 갑실신이라 하였으며, 특별한 사람이 신었으며, 가죽버선은 아무나 만들어서 신었다.	오영종 (1929년생) 고춘일 (1933년생)
• **가죽신**의 경우 값이 비쌌으며 제주시내에서는 부자가 신었다. • 당시 **가죽신**은 쌀10가마의 값이었으며 현재 가격으로 100만원 정도였다.	김익수 (1937년)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가죽신은 제주에서 '갑실신'과 '국쉬신(뀀신)' 2종류가 있으며, 제주에서 가죽신에 대해 알고 있는 도민이 적은 것으로 보아 고춘일(1933년생) 외 면담에서와 같이 가죽신은 아무나 신을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53) 고부자 (1995). *앞의 책.* p. 66.

dCollection @ jeju

현재 가죽신 유물은 제주도내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1점, 제주민속박물관에 1점, 제주대학교박물관에 6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유물 목록은 <표 18>과 같다.

<표 18> 가죽신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가죽신 Ⅰ	노루가죽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죽신 Ⅱ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Ⅲ	소가죽	제주민속박물관
가죽신 Ⅳ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Ⅴ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Ⅵ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Ⅶ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Ⅷ	소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위 8점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을 실증 고찰한 결과 제작과정이 다른 형태의 갑실신, 국쉬신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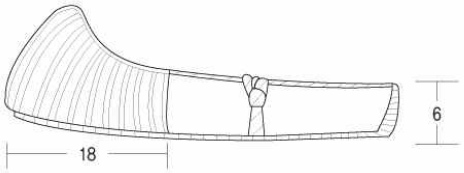
(1) 갑실신

갑실신은 말과 소의 가죽을 실처럼 잘라 말려서 삼은 신을 말하며[54], 소재는 노루가죽으로 털을 모두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갑실신 Ⅰ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로 짚신 형태로 제작되어진 것으로(그림 87) '총(바닥)'이나 '날'의 가죽을 잘게 오린 것으로 짚신과 똑같은 기법으로 만든 것이다[55]. <그림 88>은 가죽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54)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어사전 개정증보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p. 126.
55) 고부자 (1995). *앞의 책*. p. 67.

dCollection @ jeju

<그림 87> 갑실신 I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그림 88> 갑실신 I
도식화

제주도민과의 면담에서와 같이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죽을 여러 겹 꼬아서 연결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견고하게 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100년 전까지만 하여도 제주 한라산에 눈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노루사냥 시기가 있었으며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러 눈 덮인 한라산을 오르고 내릴 때 가죽신 또는 태왈[56]을 덧신었다[57]. 그리고 갑실신 앞부분에 폭 1cm로 절개된 가죽을 신틀에 한 조각씩 연결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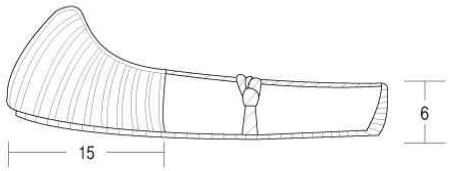
<그림 89> 갑실신 I 섶코

56) 태왈은 눈 위를 신고 다니는 신으로, 보온용으로 가죽신을 신고, 그 위에 눈 속으로 발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덧신는 신으로 '설피'라고도 한다.
57)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앞의 책*. pp. 54-55.

dCollection @ jeju

갑실신Ⅱ는 현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로 짚신형태이며, 소재는 노루가죽으로 일정하게 조각내어 제작되어 있다(그림 90). 갑실신 앞부분은 폭 1cm로 절개하여 연결하였으며 노루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이 부드럽고 가벼웠음을 알 수 있다(그림 91). <그림 92>는 가죽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0> 갑실신Ⅱ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91> 갑실신Ⅱ
도식화

<그림 92> 갑실신Ⅱ 섶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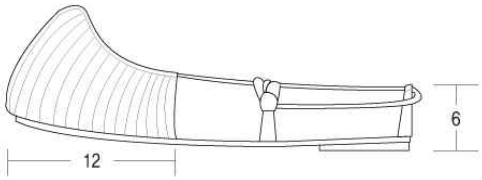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2) 국쉬신 (꿤신)

국쉬신은 '꿤신'이라고도 하며, 동물의 가죽을 잘게 오려 날에 꿰어서 창으로 삼아 만든 신[58]을 말하며, 재료는 털을 모두 제거한 소가죽으로 만든다.

국쉬신 I 유물은 현재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소가죽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진 것으로 짚신 형태와 유사하다(그림 93). 신틀 뒷부분에 새끼줄을 사용하여 형태를 잡고 그 위에 가죽 끈을 이용하여 말아서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뒷꿈치가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4>는 가죽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3> 국쉬신 I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94> 국쉬신 I
도식화

고한구(1936년생)의 면담에서 "꿤신의 발창은 소가죽으로 만들며, 바닥은 고무로 만든다. 발창과 바닥 사이에 신틀 즉, 소가죽에 0.2~0.3cm의 칼집을 넣은 것으로 (제주 방언으로 '신깍'이라 함) 넣어서 가죽실로 홈질하여 고정한다고 하였다"(그림 95, 96). 도민들과의 면담에서와 같이 가죽을 연결할 때 가죽실을 사용할 경우 보다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8) 제주특별자치도 (2009). *위의 책*. p. 148.

dCollection @ jeju

<그림 95> 국쉬신 I 설코

<그림 96> 국쉬신 I 발창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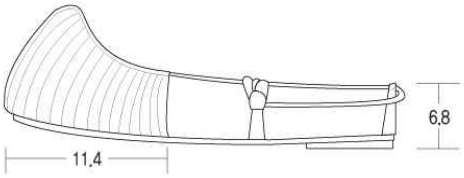
<그림 97>은 발이 닿는 바닥부분으로 고무를 부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기고 오래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97> 국쉬신 I 바닥부분

dCollection @ jeju

국쉬신Ⅱ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소가죽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진 것으로 짚신 형태와 유사하다. 위의 국쉬신과 달리 신틀부분에 새끼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얇게 자른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98). <그림 99>는 가죽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8> 국쉬신Ⅱ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99> 국쉬신Ⅱ
도식화

국쉬신 앞부분은 넓은 가죽에 0.2~0.3cm간격으로 칼집을 넣어 장식하였으며(제주에서 '신깍'이라 함), 발창은 두꺼운 면으로 되어 있고, 바닥부분은 고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국쉬신은 주로 남자들이 신었던 것이었으나 이 유물의 경우 0.5cm 높이의 뒷굽이 부착되어져 있다(그림 100, 101).

<그림 100> 국쉬신Ⅱ 설코

<그림 101> 국쉬신Ⅱ 뒷굽

dCollection @ jeju

4. 주머니류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의 주머니는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소재는 소, 노루의 가죽으로 만들며 부시주머니와 자루형 주머니가 있다.

현재 주머니 유물은 제주민속박물관에 1점과 제주대학교박물관에 3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유물 목록은 <표 19>와 같으며, 실증고찰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주머니류 유물 목록

유물 No.	소재	소장처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소가죽	제주민속박물관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자루형 주머니	노루가죽	제주대학교박물관

1) 부시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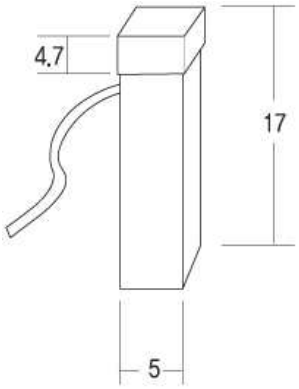
부시주머니는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키는 쇳조각을 보관하는 주머니이며 형태에 따라 직사각형, 귀주머니형, 두루주머니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네 모서리에 각이진 형태의 주머니로 유물은 현재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소재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림 102>의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유물은 전체 소가죽으로 제작되어진 직사각형으로 몸체(17cm)와 뚜껑(4.7c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3>은 가죽신의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dCollection @ jeju

<그림 102>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03>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도식화

뚜껑에서 바닥까지 가죽실 한 가닥을 이용하여 일자형 매듭형태로 한쪽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반복해서 넣어가며 견고하게 연결했는데 이것은 가죽버선의 바닥부분을 연결할 때와 같은 코걸이기법으로 주머니의 형태를 바로잡고, 겹쳐져서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장식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04). 몸체 옆 부분에 25cm의 가죽 끈이 부착되어 있어 허리나 주머니에 고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04>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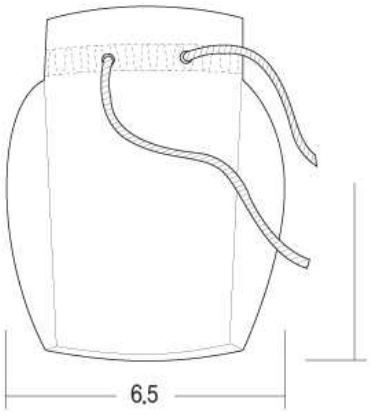
(2) 귀주머니형

귀주머니는 네모나게 만들어 주머니 입구의 절반을 세 골로 접어 아래의 양쪽에 귀가 나오게 만든 주머니형태이다.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유물은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소재는 노루가죽으로 되어 있다.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는 전체 노루가죽으로 제작되어져 있으며, 크기는 가로 6.5cm, 세로 11cm이며, 25cm의 가죽 끈이 부착되어 있어 허리에 차거나 의복의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는 크기이다(그림 105, 106). <그림 107>은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5>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앞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06>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07>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도식화

dCollection @ jeju

이러한 주머니는 성냥이 없던 시절에 부싯돌로 부싯깃을 놓고 부싯쇠로 마찰시켜 불을 피웠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필요했으며 주로 귀주머니형태나 두루주머니 형태로 만들었다.

(3) 두루주머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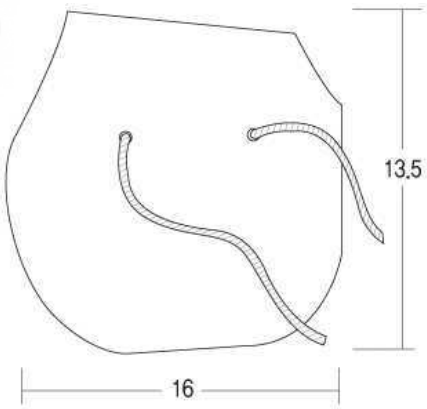
두루주머니는 허리에 차는 작은 주머니의 하나이며, 주머니 입구에 주름을 잡고 끈 두 개를 좌우로 꿰어서 홀친 것으로 위는 모가 지고 아래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유물은 현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소재는 노루가죽으로 되어 있다.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는 전체 노루가죽으로 제작되어져 있으며, 크기는 가로 16cm, 세로 13.5cm이며 두루주머니형태로 49cm의 무명실이 연결되어있다(그림 108, 109). 이것 역시 부싯 조각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림 110>은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8>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앞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09>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dCollection @ jeju



<그림 110>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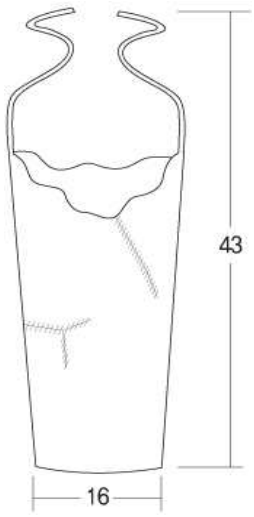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2) 자루형 주머니

자루형 주머니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긴 자루형태를 하고 있으며 용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겨울철 사냥으로 얻은 작은 동물이나 꿩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루형 주머니는 전체 노루가죽 1장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16cm, 세로43cm로 길이가 긴 자루 형태를 하고 있다(그림 112). <그림 113>은 자루형 주머니 도식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1> 자루형 주머니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12> 자루형
주머니 도식화

가죽이 연결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루의 다리부분 가죽 1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윗부분에 손잡이를 짧게 만들어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고 나닐 수 있도록 되어있다.

dCollection @ jeju

2.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특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박물관의 유물을 통한 실증고찰과 민속학적 조사방법인 현지조사를 통한 면담을 하였다. 실증고찰을 통해 두식, 의복, 족의, 주머니의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유물에 나타난 특성을 도민과의 면담을 통해 봉제, 보관, 형태, 소재 등을 분석한 결과 봉제특성, 장식특성, 소재특성으로 고찰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봉제특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에는 감티, 털벌립, 가죽옷, 가죽발레, 가죽버선, 가죽신, 주머니 등이 있었다. 이러한 복식에 나타난 봉제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제주도민과의 면담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봉제방법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을 다루거나 가죽복식을 만드는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였기 때문에 **바느질이 비교적 거칠고 엉성하다**. • 가죽옷을 만들 때 바늘은 **뾰족한 쇠나 대나무를 깎아서 사용** 했으며, **가죽실**은 소, 말가죽의 배, 겨드랑이 부분의 가죽을 얇게 잘라서 사용하였다.	고두진(1954년생)
• 가죽버선의 발목과 발 부분은 가죽으로 만들고 가죽 실을 이용하여 봉제하였으며, 발목 윗부분은 광목이나 무명(미녕)을 이용하여 무명실로 봉제하였다. 그리고 가죽과 직물 연결부분은 **가죽실**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홈질**하였다. • 가죽버선은 소가죽 실을 이용하여 **코걸이바느질기법**으로 하며, 송곳으로 가죽에 구멍을 낸 뒤 가죽 실을 꿰면서 연결하여 만든다. 이유는 가죽이 겹치는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살에 닿았을 때 아프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가죽을 평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국쉬신의 신발창은 가죽, 바닥은 고무로 만들며, 그 사이에 신깎을 넣어 **가죽실**로 튼튼하게 **홈질**하여 고정한다.	오영종(1929년생) 고춘일(1933년생) 고한구(1936년생)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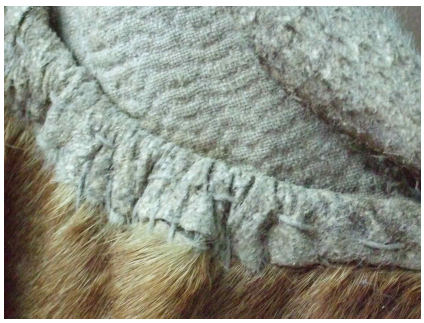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옷은 **가죽실**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일반실이 있어도 얇기 때문에 가죽에 사용하지 않았다.	김인순(1933년생)
• 털벌립의 양태 끝부분에 **휘갑치기**를 하여 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진성기(1936년생)
• **가죽실 제작방법**은 소, 말가죽의 부드러운 배, 겨드랑이 부분의 가죽을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자를 대고 실처럼 얇게 자른 뒤 60cm길이로 잘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준비된 가죽 실을 이용해 가죽버선과 가죽신, 주머니를 만들었다.	고한구(1936년생)

이상의 면담에서 살펴본 결과 모피·피혁류 복식은 이 시기 손바느질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손끝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바느질이 비교적 거칠고 엉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유물을 고찰한 결과 일반복식에 사용하는 바느질보다 두꺼운 실로 비교적 거칠게 제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죽과 가죽을 연결하는 부분은 일반실을 사용하면 가죽이 두꺼워 잘 헤어지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없으므로, 가죽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죽버선은 소가죽 실을 이용하여 코걸이바느질기법으로 하는데 이유는 일반 바느질방법으로 할 경우 가죽이 겹치는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살에 닿았을 때 아프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가죽을 평편하게 하기 위한 바느질방법이다. 털벌립의 경우 소털을 모아서 만든 것이므로 손이 많이 닿는 양태 끝부분에 털 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휘갑치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증적으로 유물을 조사한 결과 일반실로 제작한 경우와 가죽실로 제작한 경우가 있으며 사용된 봉제방법은 감침질, 홈질, 온박음질, 휘갑치기, 코걸이기법 등이 있다.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봉제방법을 정리하면 <표 21, 22>와 같다.

dCollection @ jeju

<표 21> 일반실로 제작한 경우

세로 감침질		
	<그림 45> 개가죽 옷 깃 안쪽 부분	<그림 46> 개 가죽옷 앞길 연결부분
	<그림 51> 소가죽 옷 배래 부분	<그림 61> 가죽발레 연결부분
사선 감침질		
	<그림 52> 소가죽 옷 깃 안단	
홈질		
	<그림 44> 개 가죽옷 바이어스 처리부분	<그림 74> 가죽버선Ⅲ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dCollection @ jeju

온박음질		
	<그림 53> 소가죽 옷 겨드랑이 부분	<그림 86> 가죽버선Ⅵ 뒷부분
휘갑치기		
	<그림 32> 털벌립 I 양태 가장자리	

일반실을 사용해 제작한 봉제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바느질기법은 감침질이다. 즉 가죽감티의 솔기연결부위, 가죽옷의 솔기연결부위, 가죽발레의 찢어진 가죽연결부위, 주머니 등 질긴 가죽을 연결하는 부분 등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을 튼튼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세로 감침질을 사용했으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가죽옷의 소매, 깃 시접 부분에는 사선감침질을 사용했다. 그리고 홈질은 개가죽옷의 깃 가장자리 바이어스처리부분, 가죽버선의 가죽과 면의 연결부분, 가죽신의 바닥부분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바느질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으로 비교적 두껍지 않고 연결과 장식 상침의 기능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박음질은 개가죽옷의 겨드랑이 안쪽부분, 가죽버선의 뒤축부분에 사용하여 솔기가 터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마무리하는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휘갑치기는 털벌립의 양태 끝부분에 잔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표 22> 가죽실로 제작한 경우

홈질		
	<그림 67> 가죽버선 I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그림 71> 가죽버선 II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그림 96> 국쉬신 I 바닥부분	<그림 85> 가죽버선 VI 앞트임 부분
코걸이		
	<그림 79>가죽버선 IV 바닥부분	<그림 104>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고한구(1936년생)는 가죽실 제작방법에 대해 “소나 말가죽의 부드러운 배, 겨드랑이 부분의 가죽을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자를 대고 실처럼 얇게 자른 뒤 60cm길이로 잘라서 사용했다.”고 하였는데 버선과 가죽신, 주머니를 만들 때 또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죽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죽버선의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에서 가죽부분, 가죽버선의 앞트임부분에서 가

dCollection @ jeju

죽이 찢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가죽을 덧대어 놓은 부분, 그리고 국쉬신의 가죽 신발창과 고무재질의 바닥사이에 신깎을 넣는 부분에서 홈질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단순한 홈질방법이지만 실에 비해 비교적 두꺼운 가죽실로 홈질함으로써 스티치를 놓는 장식적인 기능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영종(1929년생), 고춘일(1933년생), 고한구(1936년생)는 “가죽을 연결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코걸이기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가죽버선의 바닥부분과 부시주머니의 가죽 연결부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코걸이기법이란 우산살을 지탱하는 철사나 송곳 등을 이용해서 가죽에 구멍을 낸 뒤 한 줄의 가죽 실을 오늘날의 신발 끈을 꿰듯이 한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죽이 겹치는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살에 닿았을 때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죽을 굴곡 없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보기에도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dCollection @ jeju

2. 장식특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에서 패치워크, 홈질(상침), 절개, 패치, 휘갑치기, 코걸이기법, 찍기 등 몇 가지 장식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식기법은 복식을 제작할 때부터 장식의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실증적으로 장식을 나타내는 예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복식에 나타난 장식방법에 관한 도민과의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장식방법에 관한 면담내용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개가죽 옷	• 가죽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가죽을 달았는데 이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 가죽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가죽을 달았는데 이는 오늘날 **다른 천을 붙이는 장식**효과였다.	오영종 (1929년생) 고한구 (1933년생)
	• 개가죽의 크기가 작아서 **조각끼리 연결**한 것이며, 멋으로 장식했던 것 같다.	송재희 (1933년생)
가죽신	• 가죽신의 **신깍에 칼집**을 일정하게 넣었는데 이것은 둥근 발모양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한구 (1936년생)

면담결과 전통 모피·피혁 복식류를 착용한 이유가 추위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장식기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증조사 결과 Ⅱ장에서 제주는 육지에 비해 열약한 자연환경, 사회·문화 환경으로 인해 복식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했음을 이미 밝혔다. 그리고 면담결과에서도 복식에 장식효과를 설명한 비중이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증조사 결과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서 패치워크, 상침, 코걸이, 패치, 꼬임, 절개, 찍기 등 몇 가지 장식기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이들은 복식을 제작할 때부터 장식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장식효과를 주는 예가 대부분이다.

dCollection @ jeju

<표 24>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장식기법

장식기법	장식 부분	
패치워크		
	<그림 40> 개가죽 옷	
상침		
	<그림 71> 가죽버선Ⅱ 가죽과 면 누비 연결부분	<그림 74> 가죽버선Ⅲ 가죽과 면누비 연결부분
코걸이		
	<그림 75> 가죽버선Ⅳ 바닥부분	<그림 104>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dCollection @ jeju

장식기법	장식 부분	
패치		
	<그림 66> 가죽버선 I 뒤축	<그림 85> 가죽버선Ⅵ 앞트임 부분
꼬임		
	<그림 54> 갑실신 I	<그림 90> 갑실신Ⅱ 바닥부분
절개		
	<그림 95> 국쉬신 Ⅰ 섶코	<그림 98> 국쉬신 Ⅱ 섶코
찍기		
	<그림 34> 털벌립 Ⅱ	<그림 39> 털벌립 Ⅲ

dCollection @ jeju

가죽을 복식에 사용한 것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양식이 형성된 예를 보여준다. 한라산은 추운 비바람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의 복식을 갖추어 입어야 했음으로 보온성이 뛰어난 털옷을 입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친 재질의 가죽을 복식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방한용으로써의 기능적인 면 외에 미적인 감각을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 고찰한 개가죽옷의 경우 눈에 가장 잘 띄는 앞가슴 부분과 등 부분에 비교적 결이 곱고 광택이 나는 털 조각을 사용하였으며 가죽을 조각끼리 연결하여 패치워크방법으로 나타내었다. 가죽버선의 경우 가죽과 면 누비를 연결 부위의 바느질방법은 가죽 끈을 사용해서 고운 홈질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상침효과를 볼 수 있으며, 헤어지기 쉬는 뒤축부분에 가죽 2장을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하면서도 나뭇잎모양으로 재단하여 아름답게 패치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식중 털벌립의 양태 끝부분에 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휘갑치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털벌립의 경우 밋밋한 형태의 양태 부분에 줄무늬를 찍어 장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죽버선 바닥부분과 직사각형 주머니의 양 끝을 합칠 때 가죽실을 이용하여 코걸이기법으로 규칙적이면서 탄탄한 동시에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가죽신의 경우 가죽을 자르고 꼬아서 만든 형태와 가죽을 절개하여 기하학적 형태를 만드는 유형이 있는데 모두 절개기법을 사용해서 장식효과를 볼 수 있다.

3. 소재특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가죽은 제주에 많이 서식하는 노루, 소, 개, 오소리, 말, 송아지 등 목축이나 사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다. 가죽감티의 경우 오소리가죽이 가장 고급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가죽옷에는 개와 소가죽이 사용되었다. 이 중 소가죽은 목축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죽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고 크기 또한 커서 한 장으로도 충분히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으며, 그 밖의 가죽신, 가죽버선, 주머니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가죽을 연결하는 가죽 실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문헌에 “제주에서 개를 사육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

dCollection @ jeju

다", "개가죽으로 장구, 꼬리로는 비, 털가죽으로 방한용 외투와 모자 등을 만들었다"[59]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개가죽을 복식에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냥꾼들이 개가죽 옷을 입고 사냥을 하다가 밤이 되어 야숙을 할 때면 이 가죽옷만 걸치고 잠이 들어도 추운 줄 모를 정도로 방한효과가 뛰어나 사냥꾼들의 필수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는 일본 관동군의 방한복과 방한화를 만들기 위해 도견부(屠犬部)를 설치하고 개가죽 공출령을 전국에 내렸는데 이로 인해 대동아전쟁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연간 30~50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었다는 기록[60]이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개가죽을 사용하여 옷과 신발은 많이 만들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용도별 소재특성에 관한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의 용도별 소재특성에 관한 면담내용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감티	• 오소리감티는 털이 촘촘하게 나 있으며 다른 가죽에 비해 땀이 날정도로 따뜻하고 얇고 가볍다.	송재희(1933년생)
	• 오소리 가죽으로 감티를 만들었다.	고두진(1954년생)
	• 오소리털은 개가죽, 소가죽보다 따뜻하였기 때문에 감티의 재료로 사용했다.	오영종(1929년생)
	• 털벌립은 검은소털과 황색소털을 사용했으며 검은 소털은 고급품이었다.	고한구(1936년생)
	• 오소리감티는 털이 많이 달려있어 보온성이 좋다.	오영종(1929년생) 고한구(1936년생)
	• 가죽감티는 검은색 소가죽으로 따뜻하고 바람을 막아준다.	김정숙(1941년생)
	• 감티는 오소리(오로)가죽, 노루가죽이다.	고한구(1936년생) 외 3인

59) 김성식. 충견과 복지부동. *환경컬럼*. 자료검색일 2008년 6월 11일. 자료출처 http://www.musimi.com

60) 이상오 (1971). *수렵비화*. 서울: 박문사. p. 32.

dCollection @ jeju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가죽옷	• 가죽옷은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했다. • 가죽옷은 누런 개와 흰 개를 사용하는데 누런 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흰 개는 가격이 비싸다.	송재희(1933년생)
	• 소가죽으로 바지도 만들어 입었으며, 갈중이 형태이다.	정신생(1921년생)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따뜻하지만 털이 빳빳하고 굵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뒤 사용했다. •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옷으로 만들어 입지 않았다. • 개가죽털은 질기고 가볍고 털이 따뜻하다. • 개가죽옷은 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방수복으로,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방한용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비옷대용으로 착용하였다.	오영종(1929년생) 고한구(1936년생)
	• 가죽옷과 가죽발레, 가죽버선에는 소가죽을 사용했다.	정신생(1921년생) 외 5인
	• 가죽옷은 노루가죽과 송아지 가죽을, 모자는 오소리 가죽을, 버선은 소가죽, 노루가죽을 사용했다. • 가죽옷은 소가죽의 경우 두껍고 무거워서 사용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가벼운 송아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오문복(1936년생) 외 2인
	• 말가죽 옷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고신화(1923년생) 외 2인
가죽옷	• 개가죽옷은 따뜻하고 크기가 커서 이불로도 사용했다.	김영훈(1939년생) 김정자(1940년생)
	• 소가죽 옷은 비오는 날 우비대용으로 착용하였다. 비를 막아준다.	김경득(1929년생)
	• 소가죽옷은 두껍고 무거워서 사용하지 않았다. • 가죽옷은 소가죽, 개가죽,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었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따뜻하지만 털이 빳빳하고 굵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뒤 사용했다. • 가죽옷의 소재는 소, 개, 송아지이다. 이 중 개가죽 옷은 가볍다.	김익수(1937년생)
	• 오소리 가죽으로 조끼형태의 가죽옷을 만들었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방수효과가 좋은 반면 털이 빳빳하며 털이 잘 부러진다.	고두진(1954년생)

dCollection @ jeju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가죽발레	• 가죽발레는 말, 노루 가죽으로 만들며 냉기를 차단해준다.	고한구(1936년생) 외 3인
	• 가죽발레는 노루가죽, 개가죽이다. •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으로 만들며 얇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비올 때 신으면 방수효과가 있으며 따뜻하였다.	오영종(1929년생)
	• 가죽옷과 가죽발레, 가죽버선에는 소가죽을 사용했다.	정신생(1921년생)
	• 가죽발레는 소가죽으로 만들며 따뜻하고 두껍다.	고신화(1923년생)
가죽버선 가죽신	• 가죽버선 재료는 소가죽으로 만든다.	김경득(1929년생) 김영훈(1939년생) 김정자(1940년생)
	• 가죽버선에는 소가죽,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했다.	김익수(1937년생)
	• 가죽버선은 소가죽, 말가죽으로 만든다.	송재희(1933년생)
	•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신발만 만들어 신었다.	오문복(1936년생)
	• 가죽버선은 소가죽으로 만들며 보온성이 좋다.	김인순(1933년생)
	• 가죽버선은 개가죽, 소가죽으로 만든다.	오영종(1929년생)
	• 가죽신은 소가죽으로 만든다.('신깍' 부분)	고한구(1936년생)

이상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각 동물의 모피나 가죽은 복식의 소재로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가죽은 가볍고 따뜻하며 질긴 특성을,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송아지가죽 외에는 의복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특성을, 노루가죽은 가죽이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따뜻하지만 털이 빳빳하며 굵기 때문에 털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소리 털은 촘촘하고 풍성하며 가볍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개가죽이나 소가죽보다 보온성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감티, 옷, 신발 등 복식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털이나 가죽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감티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가죽 중에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매우 우수한 오소리 털을 주로 사용했으며, 노루가죽을 사용할 경우는 털이 굵고 빳빳하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가죽상태로 제작했다. 의복에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

dCollection @ jeju

하면서 방수, 방풍, 방한효과를 위해 소, 송아지, 개가죽을 주로 사용했으며 바지에는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발이나 주머니에는 의복을 만들고 남은 가죽을 주로 이용했는데 오래 신을 수 있는 가죽으로 질긴 소가죽 또는 가볍고 따뜻하면서 방수효과에 좋은 노루가죽 등을 사용했다.

오소리 털의 경우는 보온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가죽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서 의복으로 제작하기에는 공급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의 경우에도 여러 장을 모아서 의복 한 벌을 제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표 26>은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용도별로 사용된 소재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문헌·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 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 문헌·면담조사에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 면담조사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실증조사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6>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용도별 소재의 종류

복식 종류	오소리		노루		소		개		말		송아지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감티	●			◉	■		◎					
옷	■			◎	●		●	■			◎	
발레				●		■	■			■		
신				●		●						
버선				◉		●	■			■		
주머니				○		○						

문헌·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문헌·면담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실증조사에서만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면담조사에서만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dCollection @ jeju

이상의 복식 용도별로 사용된 소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오소리털, 노루가죽, 소털과 소가죽, 말가죽, 송아지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오소리털 소재의 감티, 노루가죽소재의 발레 및 신, 소털 소재의 옷 및 소가죽 소재의 신과 버선, 개털 소재의 옷이다. 그리고 면담과 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노루가죽 소재의 감티와 버선이 있으며 문헌과 면담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노루가죽 소재의 옷, 개털 소재의 감티, 송아지 털 소재의 옷이 있다.

그러므로 감티에는 오소리털, 노루가죽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옷에는 소털, 개털, 송아지털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죽발레에는 노루가죽이 사용되었으며, 가죽신에는 소가죽이 사용되었으며, 가죽버선에는 소가죽과 노루가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이나 면담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증조사에서 주머니류는 노루가죽과 소가죽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헌과 면담조사를 한 결과 소와 개의 털 그대로를 가지고 제작한 의복 즉 가죽이 아닌 털이 부착된 상태의 의복을 소가죽 옷 또는 개가죽 옷으로 흔히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도에는 오소리와 송아지는 털, 노루와 말은 가죽, 소와 개는 털과 가죽이 모두 복식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사냥이나 목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죽의 종류나 양이 달랐으므로 각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피나 피혁으로 용도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서 복식을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주 전통 복식에 사용된 모피·피혁류의 관리법에 관한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Collection @ jeju

<표 27> 제주 전통 복식에 사용된 모피·피혁의 관리법에 관한 면담내용

면담내용	면담자
• **들깨기름, 돼지(돗)기름 사용**하여 문지르면 가죽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고춘일(1933년생)
• 음력 1월에 동네에서 소를 추렴한다. 소가죽은 땅에 묻었다 밟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재로 문지르며, 돼지기름(돗기름)**으로 발라주면 부드러워진다.	정신생(1921년생)
• **가죽을 사방에서 당겨서 못으로 박고** 딱딱해지면 돗기름(돼지기름)으로 계속 문질러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김인순(1933년생) 송재희(1933년생)
• 가죽은 딱딱해지면 **돼지기름(돗기름)을 발라 가죽을 문지르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돼지기름은 솥뚜껑에 넣어 끓인 뒤 굳혀서 사용한다) • 가죽은 바닥에 불을 떼서 가죽이 불에 닿게 한 뒤 가죽의 기름을 녹이고 얇게 만들며, 털이 붙어 있는 쪽은 위로 올라가 털이 타지 않는다. 이것을 각 모서리에 못으로 고정하여 잡아당겨 그늘에 말린 뒤 돼지기름을 솥뚜껑에 넣어 끓이고 굳혀 가죽부분에 골고루 문질러주면 직물처럼 부드럽게 된다.	고한구(1936년생)
• 돼지기름(돗기름), 유기름(들깨기름)을 발라주면 부드러워진다.	오영종(1929년생)
• 가죽부분만 **소금**을 뿌려준다.(방부제 역할을 함)	고두진(1954년생)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는 가죽손질을 위해서 가죽을 땅에 묻어두거나 재를 이용하여 가죽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였다. 가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기름(돗기름), 들깨기름이 사용되었으며, 가죽 보관을 위해서는 소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가죽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기 때문에 돼지기름(돗기름)을 솥뚜껑에 넣어 끓인 후 굳혀서 가죽에 수시로 발라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양약이 없을 당시 돼지기름(돗기름)은 약으로 사용했는데 소나 말 등 상처 난 부위에 돼지기름을 발라두어 3~4일지나면 좋아졌으며 뱀에 물릴 때도 사용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들깨기름을 가죽부분에 발라주면 부드럽게 오래토록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두진(1954년생)의 면담에서 “가죽을 보관 할 경우는 좀과 같은 세균을

dCollection @ jeju

막기 위해서 가죽부분에 소금을 뿌렸다"고 했는데 이때 소금은 수분을 빼고 세균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부패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천연 방부제 및 해독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Ⅴ.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 비교

중국소수민족의 대다수는 국토의 변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후가 다양하고 자연 상태가 완전히 보존되고 있어서 원시림 속에 각종 동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소수민족은 동북·내몽골지구, 서북지구, 서남지구, 중남·동남지구의 4개로 구분할 수 있다[61].

이 중 동북·내몽골지구의 자연환경은 초원, 사막, 고원지대로 되어 있으며 겨울이 춥고 길며 대부분의 민족이 유목 및 수렵생활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으로는 몽골족(蒙古族), 어른첸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허저족(赫哲族), 따알족(達斡爾族), 만족(滿族), 조선족(朝鮮族)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는 몽골족(蒙古族)과는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고려시대 몽골과 고려 왕실간의 국혼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적인 계통이 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려후기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족을 비롯한 북방유목민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반도 중 특히 제주지역의 유목민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나라에 의해 목장이 세워지고 또한 몽고의 마필과 사육전문가인 목호가 와서 본격적으로 목마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제주에도 말을 돌보는 노비를 목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62]. 그러므로 중국소수민족 중 북방에 위치한 동북·내몽골지역과 제주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은 서로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두 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을 비교 하고자 한다.

1.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

동북·내몽골지역에 속하는 중국소수민족은 몽골족(蒙古族), 어른첸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허저족(赫哲族), 따알족(達斡爾族), 만족(滿族), 조선족(朝鮮族)

61) 고순희, 장현주 (2010). *앞의 책*. p. 59.
62)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志 5*, 제주도: 제주. pp. 838-843.

dCollection @ jeju

등이며, 이들은 내몽골자치구, 동북지역(흑룡강), 길림, 요녕 지역 등에 거주한다. 이들 중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한 민족은 몽골족(蒙古族), 어른첸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허저족(赫哲族), 따알족(達斡爾族)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며, 겨울은 길고 매우 춥고 수렵 및 유목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포백(布帛)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모피·피혁류 복식의 발달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지역의 모피·피혁류로 만든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두식

두식은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하며, 유목과 수렵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동물머리형태, 꽃잎형태, 둥근형태, 원추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보인다. <표 28>은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두식의 대표적인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표 28>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두식

종류	특징	대표적인 예[63]
동물머리 형태	• 들개나 사슴의 머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머리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사냥을 할 때 관목림이나 풀숲 사이에 엎드려 있으면 위로 살짝 보이는 동물머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맹수를 유인할 수 있고, 맹수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 시 최고의 위장법의 도구로 사용[64]되며 매우 따뜻한 것인 특징이다.	
꽃잎형태	• 가장자리가 4개의 둥근 꽃잎형태로 나뉘어진 것을 말하며, 이것은 착장방법에 따라 양옆 귀 덮개 부분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유목민들이 겨울철 사냥 시 추위를 막기 위해 귀 덮개가 달린 방한용 모자로 사용했던 것으로 대부분 노루가죽, 양가죽, 여우가죽으로 만들어서 착용했다.	

dCollection @ jeju

종류	특징	대표적인 예
둥근형태	• 머리와 귀, 목 등을 한꺼번에 감쌀 수 있도록 통형으로 만든 것으로 유목민들이 방한용으로 쓰는 전통모자이며 '풍설모(風雪帽)'라고 한다. 풍설모는 거센 바람과 눈보라에도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면양고피(綿羊羔皮)에 흑색포로 안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따뜻하다[65].	
원추형태	• 위가 뾰족하며 모자의 귀 덮개부분은 양털이 부착되어져 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릴 때 필수품의 하나이며[66], 몽골족 등이 즐겨 착용하는 모자이다.	

2) 의복

이 지역은 대대로 수렵위주의 생활을 하였으므로 의·식·주에서 모두 수렵문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수렵이 생존의 수단이므로 일 년 내내 짐승을 쫓아 광활한 임해 속을 떠돌아다니며 거주가 일정치 않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짐승가죽으로 만든 의복은 내구성, 보온성이 커서 한랭한 기후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모질이 길고 치밀하며 방한성이 우수한 들개 가죽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고라니가죽, 양가죽, 여우 털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표 29>는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대표적인 의복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63) 首届中國民族服裝服飾博覽會執委會 (2001). *中國民族服飾博覽.* 云南: 云南人民出版社 / 云南民族出版社. p. 261.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앞의 책.* p. 76, 84, 101.
64)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위의 책.* p. 34, 36.
65) *위의 책.* p. 21.
66) *앞의 책.* p. 56.

Collection @ jeju

<표 29>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의복

종류	특징	대표적인 예[67]
포	• 포는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같이 상하를 하나로 감싸면서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장포이며 형태는 치파오와 비슷하고 목둘레는 둥근 원형이며, 여밈의 형태는 대부분 대금이고 소매 모양은 착수 형태를 하고 있다[68].	
바지	• 동북·내몽골지역에서 발견된 바지는 전체적으로 바지 부리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특징인데 이것은 대부분 목이 긴 장화형태의 신발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 큰사슴 다리 가죽의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한 것으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감싸는 덧바지이며 '투고(套褲)'라고 부른다[69].	

3) 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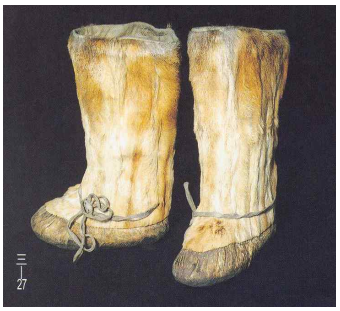
고지대의 유목생활에 적합하도록 긴 장화 형태가 발달하였는데 장화는 지역에 따라 털신과 가죽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털신의 경우 비교적 극심하게 추운지역에서 착용한 털이 밖으로 장식되어진 형태,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서 착용한 털이 안

67)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앞의 책*. p. 37, 42, 70.
68) *위의 책*. p. 77.
69) *앞의 책*. p. 42.

dCollection @ jeju

으로 장식되어진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0>은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신발을 정리한 것이다.

<표 30>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족의

종류	특징	대표적인 예[70]
털신	• 털을 밖으로 장식한 털신은 대부분 긴 장화 형태이며 동물 가죽 자체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며 바람을 막고, 비에 젖지 않는 방수효과가 있다.	
	• 털을 안으로 장식한 털신은 날씨가 좋은 날에 일을 하거나 사냥 시 보온용으로 사용하였다[71].	
가죽신	• 몽골족이 기마 시 착용하는 흑색의 소가죽소재 장화이며, 코가 올라간 것은 말을 탈 때 발걸이에 코를 걸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4)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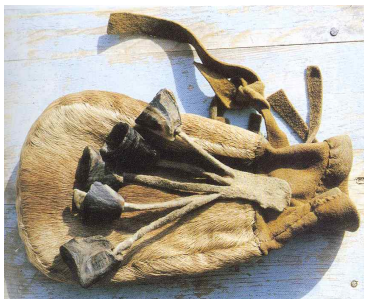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 사용한 소품으로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가방과 주머니 그리고 겨울철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장갑이 있다. 특히 장갑에는 다른 복식류에서 볼 수

70)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앞의 책*. p. 43, 77.
71) *위의 책*. p. 43.

dCollection @ jeju

없었던 다양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어 매우 화려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은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소품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소품류

종류	특징	대표적인 예[72]
주머니	• 들개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이며 가죽을 오려 종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달아 장식하였다.	
가방	• 어른첸족 여성들이 어깨에 걸쳐 착용하는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 사각형의 가방이다. 이것은 고라니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여 고라니 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했다.	
장갑	• 초가을 막 솜털이 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벙어리장갑으로 하얀색 가죽이며 유연하여 착용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손등에 다른 색의 가죽으로 장식하여 아기자기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손가락 장갑	• 초가을 막 솜털이 난 고라니 가죽으로 만든 손가락장갑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무두질한 가죽을 사용했다. 장갑의 손가락과 손등에 화조도안 수를 놓았으며, 손을 넣는 입구에는 시라소니, 다람쥐 등 다른 색의 모피를 두르기도 하고 장식스티치를 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72)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위의 책*. p. 37, 39, 42, 72.

dCollection @ jeju

2.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 비교

기후와 자연환경이 유사하며 목축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은 복식의 형태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두 지역 간의 복식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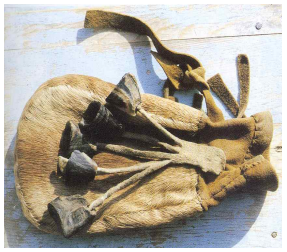
1) 형태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은 여름이 짧은 반면 겨울은 매우 춥고 길다. 대부분 유목생활을 함으로 인해 복식에서도 동물의 가죽 및 털을 의복소재로 그대로 이용해 왔다. 제주지역에서는 중산간지역에서 노루나 꿩을 사냥할 때, 소나 말을 돌볼 때, 화전민 등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로 착용했다. <표 32>는 두 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을 비교 고찰한 것이다.

<표 32> 제주지역과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의 비교

	제주도지역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유사점 및 차이점
포			• 양소매가 있으며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긴 포 형태라는 점이 유사함. • 동북·내몽골 의복의 경우 옷의 여밈이 깊은 중거형이며, 우임이 기본이나 제주의복의 경우는 중간에 앞트임 형태라는 점과 제주에서는 밖으로 털이 나오도록 제작했는데 비해 몽골지역은 의복 안쪽에 털이 덧대어져 있는 옷도 발견되었음.

dCollection @ jeju

	제주도지역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유사점 및 차이점
덧바지			•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바지 위에 덧 착용했던 것으로 바지를 보호하거나 눈 또는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입던 옷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함. • 제주에서는 가죽발레라고 했으며, 동북·내몽골지역에서는 '套褲(덧바지)'라고 함.
신			• 제주에서는 '가죽버선'이라 하고, 동북·내몽골지역에서는 '장화'라고 함. • 발목 윗부분까지 가죽으로 만들었으므로 신고 벗기 편리하게 윗부분에 천으로 덧 덧댄 점이 유사함.
주머니			• 부싯돌 등을 넣는 주머니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둥근 형태 등 유사함.

2) 소재

동북·내몽골지역은 산림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추운 겨울이 긴 기후특성으로 인해 직물을 제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짐승가죽이나 물고기 가죽을 사용하여 주로 복식을 제작했다. 어른첸족, 어원커족, 따알족은 고라니, 사슴, 들개, 여우 등을 주로 사용했으며, 몽골족은 양, 소가죽을 사용했으며 허저족은 고라니, 사슴가죽 외

dCollection @ jeju

물고기 가죽을 복식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몽골은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나라이며 이 지역에서 사냥은 고대로부터 주요한 생산의 수단이며 생존의 한 방편이 되어 왔으나 사냥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금기와 의례가 있었다. 특히 곰, 사슴, 고라니 등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매우 신중히 했으며 사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였다고 한다[73]. 의복에는 주로 이런 동물의 털,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제주도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입지 환경과 폐쇄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구하기 쉽고 질긴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해서 복식을 만들어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긴 포류에는 개가죽이나 소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모자류에는 오소리, 노루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족의류에는 소가죽 등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사냥이나 목축하기 쉬운 동물을 의복의 주재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두 지역에서 복식의 용도별로 사용한 동물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3> 제주지역과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 용도별 사용 동물소재

	제주지역	중국 동북·내몽골지역[74]
두식	오소리, 노루	고라니, 들개, 여우, **양**
포	개, 소	고라니, 사슴, 담비, **양**
저고리 바지	노루	들개, 물고기
신	소	사슴, 고라니, 물고기, **소**
가방	소	사슴, 고라니, 들개, 물고기
장갑	-	고라니

***진한 글자는 몽골족이 사용한 동물을 표시한 것임.**

73) 이안나 (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서울: 첫눈에. p. 193.
74) 고순희, 장현주 (2010). *앞의 책*. p. 70.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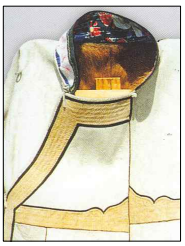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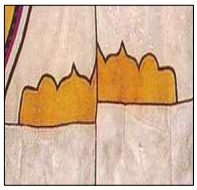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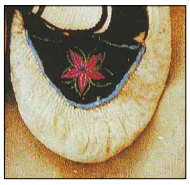
3) 장식기법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에서는 모자를 제외한 의복, 족의, 소품류에 주로 봉제기법을 이용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는 동물의 머리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여 모자 그 자체가 화려한 장신구의 일종이었으며 별도의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의복, 족의, 소품류에서는 다양하면서 화려한 부분 장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부피가 작은 족의와 소품류에 화려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중국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 손재주가 좋고 부피가 큰 옷을 만들고 난 여러 종류의 자투리 가죽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부착하고 화려한 장식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다양한 기법이 사용된 복식류로는 족의를 들 수 있는데 주름·셔링·턱, 프린지, 아플리케, 자수, 선·파이핑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의복과 소품류 중 장갑에서 다양한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의복에 사용된 장식기법으로는 아플리케, 탑스티칭, 파이핑, 선 등이며, 장갑에 사용된 기법으로는 주름·셔링·턱, 탑스티칭, 자수기법 등이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일상사가 주로 물질 및 목축 등의 노동의 연속이었고 복식은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식성 보다는 실용성과 합리성을 더욱 중시하여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에서 만큼 화려한 장식기법은 찾기 힘들다. 다음 <표 34>는 제주지역과 동북·내몽골지역의 장식기법을 정리한 것이다.

dCollection @ jeju

<표 34> 제주지역과 동북·내몽골지역의 장식기법

기법	제주도지역	기법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패치워크		파이핑	
상침		탑스티칭	
코걸이		주름·셔링·틱	
패치		프린지	
꼬임		아플리케	

dCollection @ jeju

기법	제주도지역
절개	
찍기	

기법	중국 동북·내몽골지역
자수	
선	

따라서 우리나라 제주지역과 동북·내몽골지역에 나타난 모피·피혁류 복식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두 지역 특성상 척박한 자연환경과 고립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물의 입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추운 겨울 눈보라와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거칠고 투박한 가죽을 의복재료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주에서는 모자의 경우 고급품인 오소리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의복의 경우 개가죽 옷은 눈에 잘 띄는 앞가슴 부분과 등 부분에 결이 곱고 광택이 나는 털을 사용하였고, 가죽 버선의 경우 뒤축부분에 가죽 2장을 나뭇잎모양으로 재단하여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하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도 가미하였다. 소품의 경우 얇은 가죽 끈을 이용하여 주머니 전체를 코걸이기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적으로 제작한 예도 있었으나 방한을 우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대부분으로 제주인의 미적인 감각이 뚜렷하게 표현된 화려한 장식의 예는 찾기 어렵다.

dCollection @ jeju

Ⅵ. 결론

제주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 사회·문화 환경은 제주도민의 의생활이 육지와 달리 크게 발달하지 못한 채 비교적 원시적인 양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정체되었던 문화 속에서 추운 산간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착용하였던 모피·피혁류 복식에 대하여 고찰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가 갖는 지형학적 특성, 자연환경, 사회·문화 환경은 육지의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제주 고유의 의생활문화가 형성되었다.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 화산의 폭발로 생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직물농사를 지어 의복소재를 마련하기 어려운 반면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소와 말을 목축하였고, 노루, 오소리 등의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였으며, 중산간지역의 목축과 수렵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에 의해 동물의 모피·피혁류 복식이 고안되어 제주도민의 의생활에 고유성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 때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고에 의해 대대적인 목축이 이루어지고 조선시대까지 말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중산간지역에서 소와 말을 소유하고 있던 목축업자나 관청의 소와 말을 돌보던 테우리(목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목축업으로 인해 중산간지역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모피·피혁류 복식을 많이 착용했던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이 시기부터 목축업이 발달하여 대대적으로 말을 키웠으나 말가죽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말가죽 소재의 의복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사냥을 통해 얻은 노루, 오소리 털과 가죽을 이용하였으며, 집에서 기르는 소, 개의 털과 가죽을 사용해서 복식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동물을 사냥하여 고기를 먹고 자연스럽게 그 가죽을 이용해 보온용으로 복식을 만들어 착용하였던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털옷이나 가죽옷을 목자복 또는 노동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산간지역 70세 이상 주민들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중산간지역

dCollection @ jeju

에서 살고 있는 목자, 화전민, 사냥꾼 등이 추위를 견디기 위한 용도로 착용했다. 이 외에도 중산간지역에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중산간지역 주민이 해안가를 방문할 때 자랑삼아 착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산간지역의 주민이 모피·피혁류의 복장차림을 하고 해안가를 방문하여 이러한 차림을 자랑스럽게 여긴 반면 해안가의 사람들은 중산간지역에서는 직물소재의 부족으로 인해 모피·피혁 소재의 의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간지역과 해안지역 주민 간에는 모피·피혁류 복식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주지역 모피·피혁류 복식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문헌고찰, 실증고찰,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피·피혁류 복식의 종류로는 두식, 의복, 족의, 주머니로 나눌 수 있다. 두식에는 가죽감티와 털벌립의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노루, 소, 개, 오소리 등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었다.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죽감티 중 오소리감티가 가장 고급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소리가죽의 경우 다른 가죽에 비해 털이 촘촘하고 가볍고 가장 따뜻하였기 때문에 모자의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털벌립은 검은 소의 털로 만든 털벌립이 고급품이었으며, 제주에서 황소보다 흑우가 유명하였기 때문에 흑우의 털이 귀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으로는 가죽 옷과 가죽발레가 있는데 가죽 옷은 개가죽 옷, 소가죽 옷의 유물이 있다. 유물조사 결과 가죽옷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실제 가죽옷은 무두질한 가죽을 소재로 하지 않고 개의 털, 소의 털을 가죽으로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털옷이라 할 수 있다. 개가죽 옷의 경우 여러 고문집에서 자주 기록되고 있으며, 개를 집집마다 키웠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과 개가죽이 얇고 부드러우며 질기고 털이 따뜻하였기 때문에 주로 옷으로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죽발레는 선행 연구에서 개가죽으로 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대부분 털을 모두 제거한 노루가죽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가죽발레는 중산간지역의 가시덩굴이나 눈이 쌓인 곳을 다닐 때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 위에 입는 덧바지형태의 것으로 방한 및 방수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족의는 가죽버선과 가죽신이 있으며 주로 소가죽, 노루가죽으로 만들었다. 가죽버선은 발목부터 바닥까지 소가죽이나 노루가죽을 사용하고, 발목 윗부분은 광목이나 무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발을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진 것이다. 가죽신은 노루가죽, 소가죽으로 만들며 가죽을 얇게 자르거나 꼬아서 제작하거나 신깍

dCollection @ jeju

에 칼집을 넣어 제작한 것으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였다. 주머니는 소가죽, 노루가죽으로 만들며 작은 부싯돌을 넣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3.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는 코걸이, 감침질, 홈질, 온박음질, 휘갑치기 등의 봉제방법이 사용되었다. 코걸이기법은 제주에서 불리는 특이한 기법으로 우산살을 지탱하는 철사나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구를 이용해 가죽에 구멍을 낸 뒤 한 줄의 가죽실을 오늘날의 신발 끈을 꿰듯이 한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이다. 특히 소가죽으로 만든 가죽버선의 바닥부분이나 부시주머니의 가죽 연결부분에 사용되었으며, 소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죽을 겹쳤을 때 두꺼워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죽실을 사용해서 코걸이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주만의 특색있는 바느질기법이라 생각된다. 복식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실은 일반실과 가죽실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가죽이 얇고 가벼운 개가죽이나 노루가죽, 오소리가죽의 연결부분은 무명실을 사용하였다.

감침질은 가죽감티, 가죽옷, 가죽발레 등 힘을 많이 받는 솔기연결부분에 사용되었다. 홈질은 개가죽옷, 가죽버선, 가죽신 바닥부분에 비교적 두껍지 않고 연결과 장식 상침의 기능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박음질은 개가죽옷의 겨드랑이 안쪽 부분과 가죽버선의 뒤축부분에 사용하여 솔기가 터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휘갑치기는 털벌립의 양태 끝부분에 잔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는 패치워크, 상침, 코걸이, 패치, 꼬임, 절개, 찍기 등의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개가죽 옷에서 가죽을 조각끼리 연결한 패치워크 장식과 가죽버선에서 가죽과 면 연결 부분에 사용된 상침장식, 가죽버선의 바닥부분과 직사각형 부시주머니에 사용된 코걸이기법과 버선 뒤축에 나뭇잎 모양의 가죽을 오려 잘 헤어지는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면서 장식했던 패치장식이 있었다. 그리고 가죽신에서 가죽을 자르고 꼬아서 만들거나 절개한 방법이 있으며 밋밋해 보이는 털벌립에 줄무늬 등의 무늬를 찍어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장식기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주만의 기능적인 복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식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풍, 방한효과를 위해 소, 송아지, 개가죽을 주로 사용했으며 5.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제주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노루, 소,

dCollection @ jeju

개, 오소리, 말, 송아지 등 목축이나 사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다. 이러한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감티, 옷, 신발 등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모피·피혁류 재료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용도에 맞게 털이나 가죽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에서 가장 많이 목축하였던 말가죽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말가죽을 의복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티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가죽 중에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매우 우수한 오소리 털을 주로 사용했으며, 노루가죽을 사용할 경우는 털이 굵고 빳빳하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가죽상태로 제작했다. 의복에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방수, 방풍, 방한효과를 위해 소, 송아지, 개가죽을 주로 사용했으며 바지에는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발이나 주머니에는 의복을 만들고 남은 가죽을 주로 이용했는데 오래 신을 수 있는 가죽으로 질긴 소가죽 또는 가볍고 따뜻하면서 방수효과에 좋은 노루가죽 등을 사용했다.

육지에서 모피·피혁류 복식의 소재는 담비, 여우, 토끼 등의 고급소재를 사용하여 겉옷 위에 입는 장식복으로 착용되었다. 즉 사치를 위해 덧입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제주에서 모피·피혁류 복식은 소, 개, 오소리, 노루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복식의 실용적이면서 방한복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전통 모피·피혁류를 관리하고 손질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땅에 묻어두거나 재를 이용하여 가죽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며, 모두 제거된 가죽을 용도에 맞게 털을 제거하거나 털이 붙어 있는 채로 사방에서 팽팽해질 때까지 잡아당겨서 뾰족한 대나무나 못을 이용해 바닥에 고정시켜 그늘에서 말린다. 이렇게 준비된 가죽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기 때문에 돼지기름(돗기름)을 수시로 발라서 비벼주는데 직물처럼 부드럽게 손질된다. 그리고 가죽을 보관 할 때는 좀과 같은 세균을 막기 위해서 가죽부분에 소금을 뿌리는데 이때 소금은 수분을 빼고 세균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부패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천연 방부제 및 해독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은 고려시대 몽골과 민족적인 계통이 같았을 뿐 아니라 고려 후기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족을 비롯한 북방유목민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전통 모피·피혁류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해 본 결과 두 지역의 복식에

dCollection @ jeju

있어서 형태, 소재, 장식기법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긴 포 형태이며, 제주의 가죽발레와 기능적인 면이 유사한 덧바지가 입혀지고 있었다. 이는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에서도 바지위에 덧 착용했던 것으로 바지를 보호하거나 눈 또는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입던 덧바지의 용도였다. 그리고 가죽신은 장화의 형태로 발목 윗부분까지 가죽으로 만들었으므로 신고 벗기 편리하게 윗부분에 트임을 주었으며, 주머니류에서 부싯돌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둥근 형태 등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다. 복식에 사용된 소재를 살펴보면 중국 동북·내몽골지역의 경우 양, 소, 고라니, 사슴가죽을 복식에 사용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개, 소, 오소리, 노루 등 그 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복식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의 장식기법을 살펴보면 중국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복식에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장식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품류에서 주름·셔링·턱, 프린지, 아플리케, 자수, 선·파이핑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일상사가 주로 물질 및 목축 등의 노동의 연속이었고 복식은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식성 보다는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여 동북·내몽골지역의 복식에서 만큼 화려한 장식기법은 찾기 힘들다. 두 지역 특성상 척박한 자연환경과 고립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물의 입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추운 겨울 눈보라와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거칠고 투박한 가죽을 의복재료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7. 본 연구는 제주지역 도민들에 대한 면담과 여러 문집을 통한 문헌적 고찰, 박물관 유물에 대한 실증 고찰을 통하여 제주 복식에 있어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이 하나의 복식으로써 완성된 형태와 위상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피와 피혁이라는 소재적 측면에 있어 한국 전통 복식의 모피·피혁류 복식과는 매우 다르게 발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제주의 전통 문화와 연결되면서 제주지역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중산간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한편 장식기법에 있어서는 한국 복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 사용되어 한국 복식사내의 제주 전통의 모피·피혁류 복식으로써의 그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 복식사에 있어서 제주 복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dCollection @ jeju

사실이다. 특히 제주 복식에 있어서도 가죽과 털옷에 대한 연구는 물적 시·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연구 성과가 더욱 부족하였다. 본 제주복식 연구 특히 전통의 모피·피혁류 복식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통하여 제주 복식사 연구의 부족한 매듭하나를 잇는 계기로써의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 복식사에서 독특한 제주 모피·피혁류 복식의 위상과 의미를 밝혀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전승되지 않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형태특성, 소재특성, 장식특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제주도 복식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Collection @ jeju

참고 문헌

<古書>

『濟州風土記』

『譯註 耽羅志』

『南槎日錄』

『北軒集』

『憂菴先生文集』

『靜軒瀛海處坎錄』

『耽羅雜詠』

『耽羅錄』

『瀛洲風雅』

『三國志』

『高麗史』

『耽羅巡歷圖』

『三國史記』

<국내·외 문헌>

고부자 외 (1996). *제주의 민속 의생활 (편). 제주문화자료총서4.* 출간: 제주도

국립제주박물관 (2007). 몽골의 역사와 문화. 서울: 서경문화사

김광언 (2007). *韓·日·中 시베리아의 사냥.* 서울: 민속원

김동섭 (2003). *제주 갈옷의 특징과 지역성.* 향토사 연구 (15).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김봉옥 (1987). *증보 제주통사.* 서울: 세림

김봉옥 역 (1994). *續 耽羅錄 南宦博物.* 제주문화

dCollection @ jeju

김상헌 (1976). 박용후 역.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김연수 (2003). *사라져가는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 서울: 한솜
김연옥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한국문화총서 9*.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용서, 김은정 (2003). *전통복식공예*. 서울: 신광출판사
김원모, 정성길 (1986). *사진으로 본 백 년 전의 한국*. 서울: 가톨릭
김원모, 정성길 (1986). *사진으로 본 근대한국(1871-1910)*. 서울: 가톨릭
김원주 (2006). *재미있는 가죽 이야기*. 서울: 어드북스
김익수 역 (2001). 이증 저.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김익수 역 (2001). *南遷錄 (下)*. 제주문화원
김일우 역 (2007). *濟州古記文集 濟州風土錄*. 제주문화원
김일자 (1999).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출간: 제주문화
김태환, 허향진 (2009). *제주여성사 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김항원 (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출간: 제주대학교 출판부
남도영 (2003). *제주도 목장사*. 출간: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2010). *복식문화관련자료집-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자료총서-*. 서울: 민속원.
박춘순 (2002). *중국소수민족 복식*. 서울: 민속원
서재철 (2004). *제주도 말, 노루*. 서울: 일진사
석주명 (1968). *濟州道 隨筆*. 경기: 寶晋齋
소황옥, 김양희 (2008). *중국 소수민족과 복식*. 서울: 경춘사.
유태순 외 (2006). *세계민속의상의 이해*. 서울: 신정
유태순, 조기여 외5 (2006). *세계민속의상의 이해*. 서울: 신정
이상오 (1971). *수렵비화*. 서울: 박문사
이승호 (2009). *한국의 기후와 문화산책*. 서울: 푸른길
이안나 (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서울: 첫눈에
이영권 (2005). *제주사*. 서울: 휴머니스트
이원진 (2002). *譯註 耽羅志*. 서울: 푸른역사
이지영 (2003). *한국의 신화 이야기*. 서울: 사군자
이형상 (1993). 김봉옥 역. *李衡祥編著南宦博物 (Ⅱ)*. 출간: 제주도
임 제 (1958). 홍기표 역. *濟州古記文集 南溟小承*. 제주문화원

dCollection @ jeju

장장식 (2005).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서울: 민속원

제주교육박물관 (2010). *國譯 우암先生文集*. 출간: 제주도

제주대학교 (2002). *제주사람들의 삶*. 만농 홍정표 선생 사진전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95). *삼성신화연구*. 출간: 제주대학교

제주도 (1986). *제주복식의 어제와 오늘*. 통권 제 80호. 출간: 제주도

제주도 (1990). *濟州의 民俗*. 출간: 제주도청

제주도 (1996). *제주 100년*. 출간: 제주시

제주도 (1996). *제주의 민속*. 출간: 제주시

제주도 연구회 (1988). *제주도 연구 제 5집*

제주도 연구회 (1989). *제주도 연구 제 6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제주도민의 복식*. 교육제주 30호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志 第7卷. -문화유산-*. 제주도: 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誌, 第5卷. -문화유산-*. 제주도: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馬 연구회 (2004). *제주마의 역사-생산 및 활용방안-*

제주시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 모습*. 제주: 제주콤

제주역사연구회 (1989). *제주인의 삶*

제주특별자치도 (2000). *20세기 제주시*. 출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어사전 개정증보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제주: 각

제주특별자치도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제주: 각

조정철 (1824). *靜軒瀛海處坎錄 卷4. 耽羅雜詠條*

조풍연 (1999). *사진으로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주채혁 (2008). *순록유목제국론*. 백산자료원

진성기 (1979). *제주민속의 멋*. 경기: 열화당

진성기 (2003).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도: 제주민속연구소

진성기 (2011).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Ⅰ)*. 서울: 디딤돌

진성기 (2011).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Ⅱ)*. 서울: 디딤돌

한국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 17권 의생활 편

편집부 (1995).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출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dCollection @ jeju

현길언 (2001). *제주문화론*. 제주: 탐라목석원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서울: 민속원

홍기표 역 (2007). 백호 임제 저. *濟州古記文集 南溟小乘*. 제주문화원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首屆中國民族服裝服飾博覽會執委會 (2001). *中國民族服飾博覽*. 云南: 云南人民出版社 / 云南民族出版社

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2005). *中國美術分類全集 中國織繡服飾全集 5 少數民族服飾卷(上)*. 天津: 天津人民美術

SHANG HAI SHU HUA CHU BAN SHE (2003). *駿馬輕騎*. 書畫出版: 上海

<학위논문 및 학술지 >

고관범 (2006).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입지 조건에서 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고부자 (1971).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부자 (1995). *濟州道 衣生活의 民俗學的 硏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섭 (2002). *제주도 전래 농기구 연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의숙 (1991). *濟州道 牧者服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보연 (2005).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현주 (1999). *조선시대 건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복남 (1992). *裘에 關한 硏究-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좌동렬 (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 민속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순희, 장현주 (2008). 제주전통 털소재 복식의 유형과 특성. *복식. 58권 9호*

고순희, 장현주 (2010). 서남지역 중국소수민족의 모피와 피혁류 복식 연구. *복식.*

dCollection @ jeju

13권 2호

고순희, 장현주 (2010). 동북·내몽골지역 중국소수민족이 착용한 모피와 피혁류 복식의 유형. *복식. 60권 4호*

박선희 (1998). 고대 한국의 복식재료-가죽과 모직-. *단국사학회. 31권 1호*

박춘순 (2001). 중국 남·북방민족 복식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4권 ()호*

趙孝順, 金姬燮 (1992). 中國 少數民族 服飾의 고찰 (Ⅰ). *복식. 18호 ()권*

<기타 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2). *고대의 말 -神性과 實用-*. 출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2010). *제주의 복식*. 제주: 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개 제주의 위치와 특성. http://www.jeju.go.kr

디지털제주문화대전. 제주시

e 뮤지엄. http://www.emuseum.go.kr

김성식. 충견과 복지부동. *환경칼럼*. 자료검색일 2008년 6월 11일. 자료출처 http://www.musimi.com

dCollection @ jeju

부록 목차

부록 Ⅰ.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 ····· 122

1. 두식 ····· 122

(1) 가죽감티 Ⅰ ····· 122

(2) 가죽감티 Ⅱ ····· 123

(3) 가죽감티 Ⅲ ····· 124

(4) 가죽감티 Ⅳ ····· 125

(5) 털벌립 Ⅰ ····· 126

(6) 털벌립 Ⅱ ····· 126

(7) 털벌립 Ⅲ ····· 127

(8) 털벌립 Ⅳ ····· 127

(9) 털벌립 Ⅴ ····· 128

(10) 털벌립 Ⅵ ····· 128

(11) 털벌립 Ⅶ ····· 129

(12) 털벌립 Ⅷ ····· 129

(13) 털벌립 Ⅸ ····· 130

(14) 털벌립 Ⅹ ····· 130

2. 의복 ····· 131

(1) 개가죽 옷 ····· 131

(2) 소가죽 옷 ····· 132

(3) 가죽발레 ····· 133

dCollection @ jeju

3. 족의 ····· 134
(1) 가죽버선 Ⅰ ····· 134
(2) 가죽버선 Ⅱ ····· 134
(3) 가죽버선 Ⅲ ····· 135
(4) 가죽버선 Ⅳ ····· 135
(5) 가죽버선 Ⅴ ····· 136
(6) 가죽버선 Ⅵ ····· 136
(7) 가죽버선 Ⅶ ····· 137
(8) 가죽버선 Ⅷ ····· 137
(9) 가죽버선 Ⅸ ····· 138
(10) 가죽버선 Ⅹ ····· 138
(11) 가죽신 Ⅰ ····· 139
(12) 가죽신 Ⅱ ····· 139
(13) 가죽신 Ⅲ ····· 140
(14) 가죽신 Ⅳ ····· 140
(15) 가죽신 Ⅴ ····· 141
(16) 가죽신 Ⅵ ····· 141
(17) 가죽신 Ⅶ ····· 142
(18) 가죽신 Ⅷ ····· 142

4. 주머니류 ····· 143
(1)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 143
(2) 귀주머니 부시주머니 ····· 143
(3) 두루주머니 부시주머니 ····· 144
(4) 자루형 주머니 ····· 144

부록 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면담내용 ····· 145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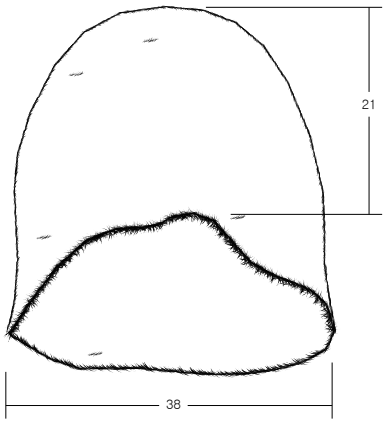
부록 Ⅰ.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

(1) 가죽감티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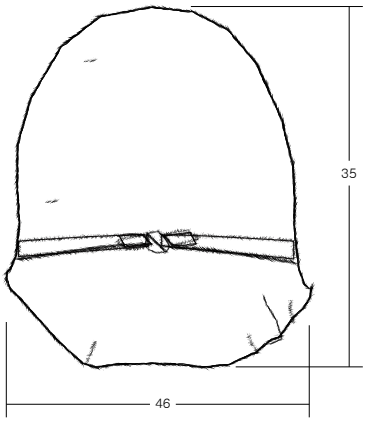
소재: 오소리가죽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감티 앞모습

감티 뒷모습



앞모습 도식화



뒷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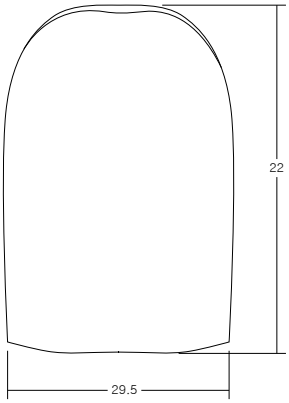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2) 가죽감티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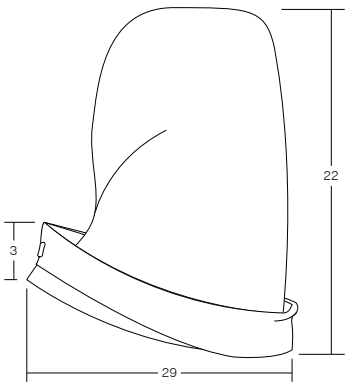
소재: 오소리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감티 앞모습

감티 옆모습



앞모습도식화



옆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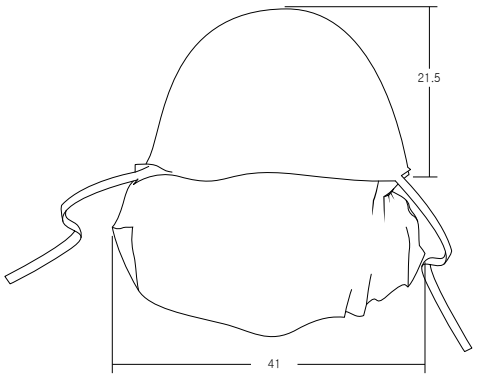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3) 가죽감티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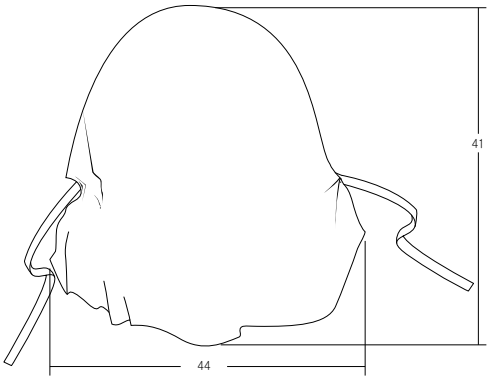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감티 앞모습

감티 뒷모습



앞모습 도식화



앞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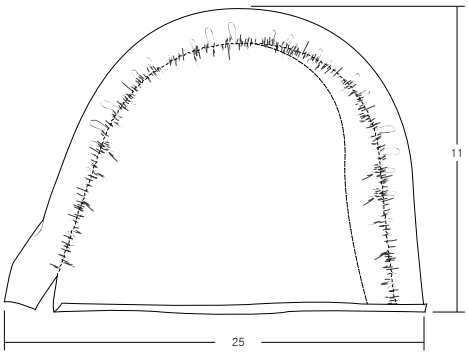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4) 가죽감티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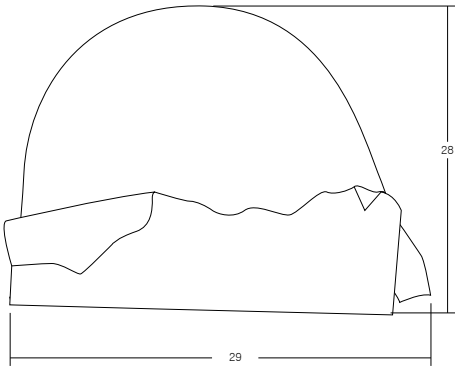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감티 앞모습

감티 옆모습



앞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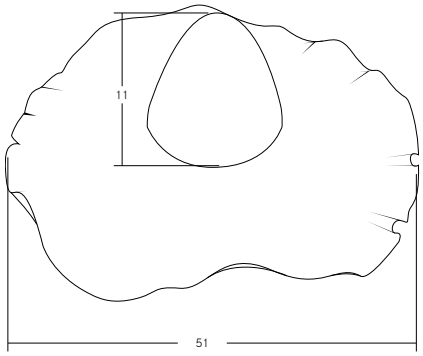
옆모습 도식화

dCollection @ jeju

(5) 털벌립 Ⅰ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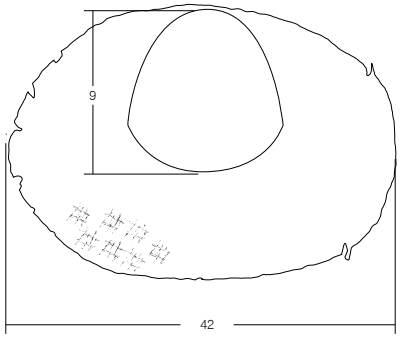


도식화

(6) 털벌립 Ⅱ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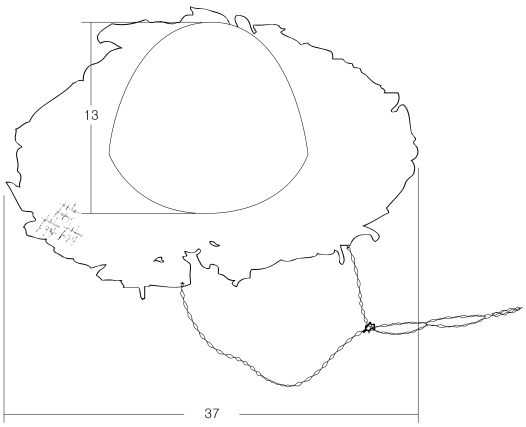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7) 털벌립Ⅲ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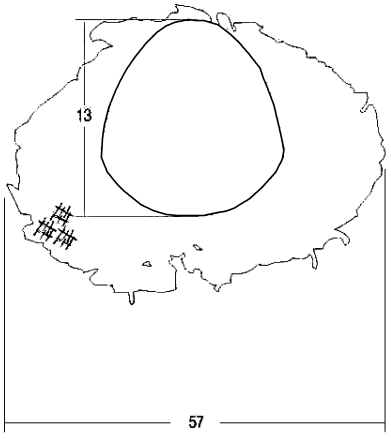


도식화

(8) 털벌립Ⅳ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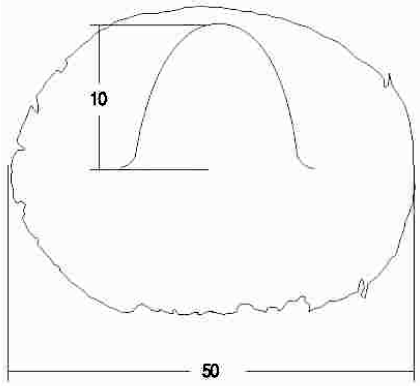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9) 털벌립 V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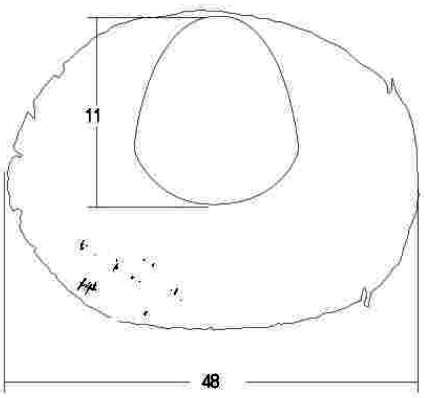


도식화

(10) 털벌립 VI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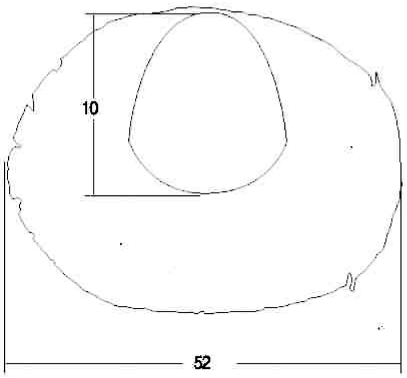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11) 털벌립Ⅶ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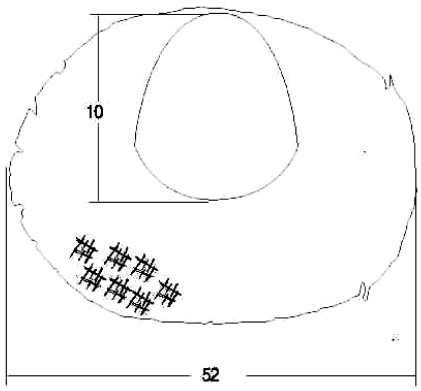


도식화

(12) 털벌립Ⅷ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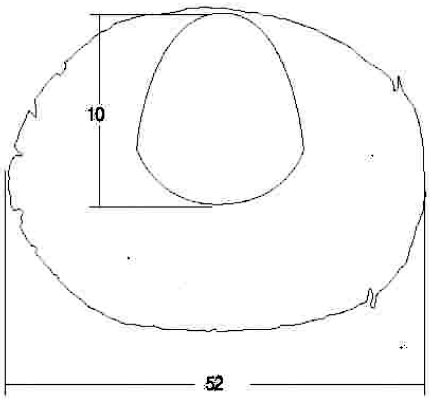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13) 털벌립Ⅸ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털벌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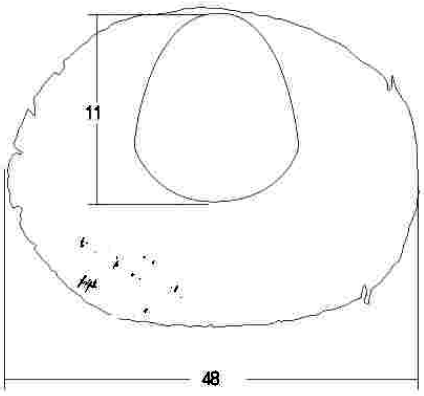


도식화

(14) 털벌립 X

소재: 소털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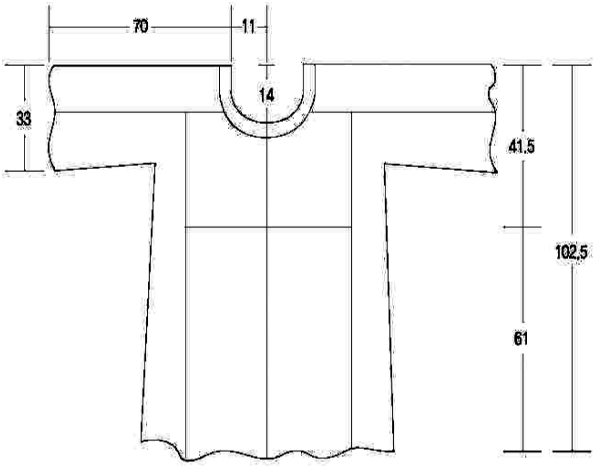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2. 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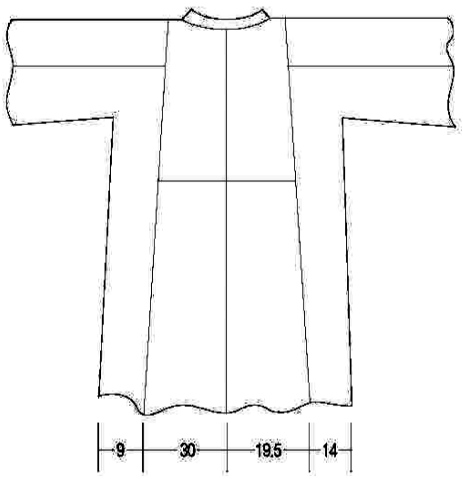
(1) 개가죽 옷

소재: 개가죽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가죽 옷 모습



앞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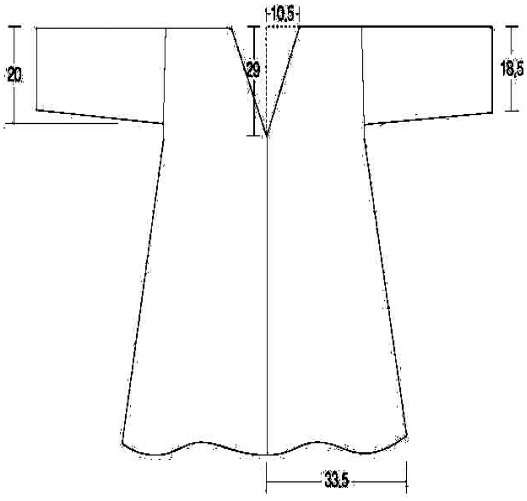
뒷모습 도식화

dCollection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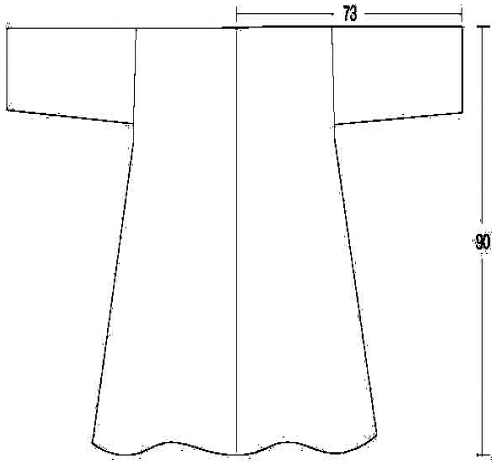
(2) 소가죽 옷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소가죽 옷 모습



앞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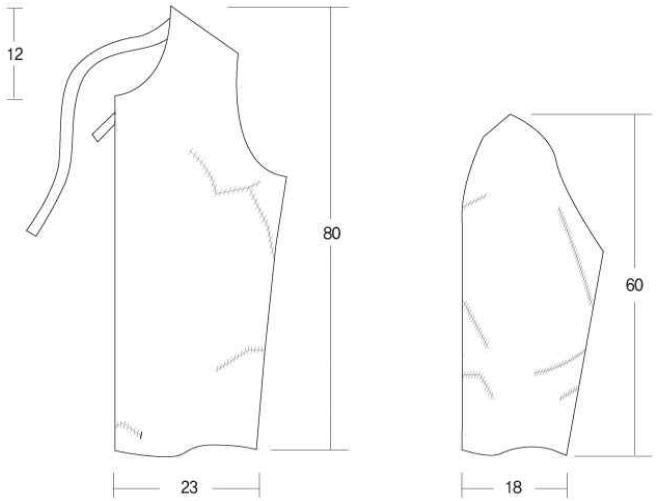
뒷모습 도식화

dCollection @ jeju

(3) 가죽발레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발레 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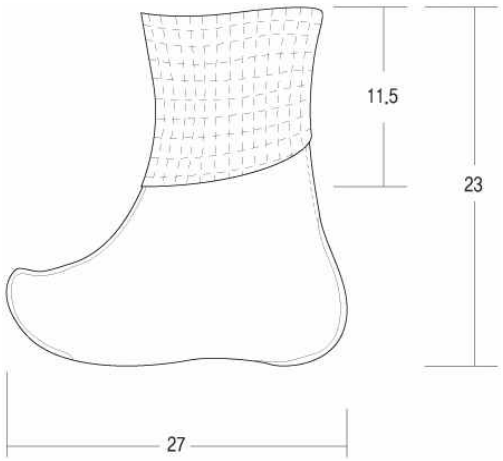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3. 족의

(1) 가죽버선 I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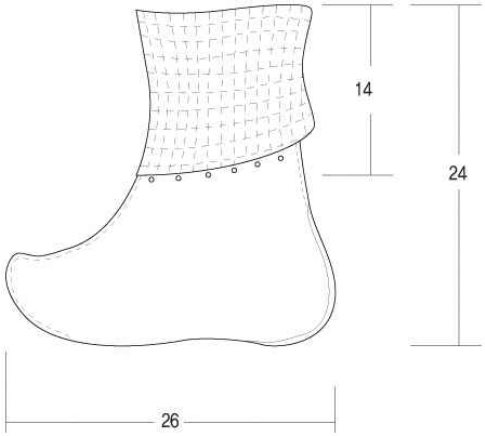


도식화

(2) 가죽버선 II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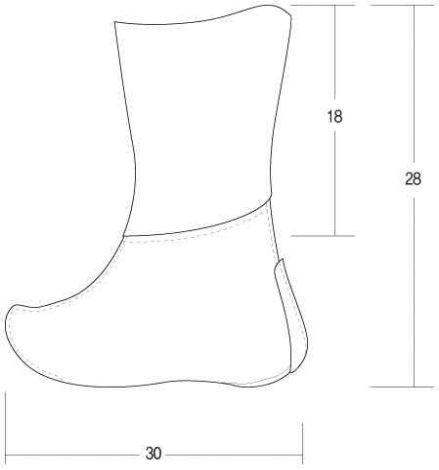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3) 가죽버선Ⅲ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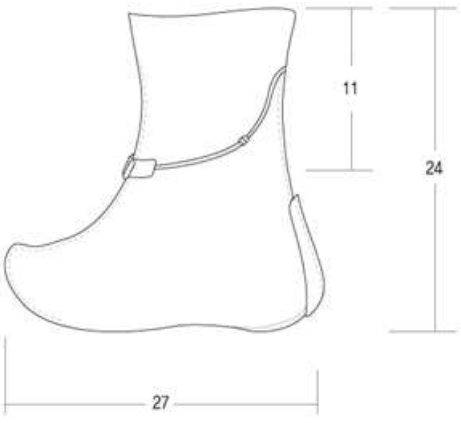


도식화

(4) 가죽버선Ⅳ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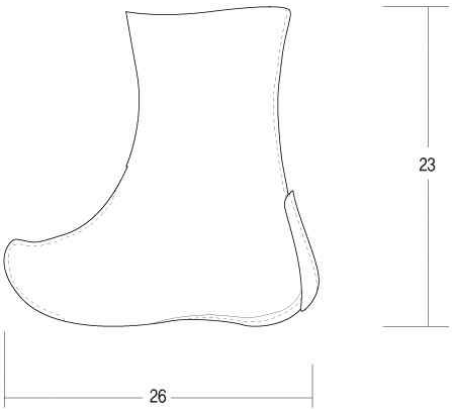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5) 가죽버선 V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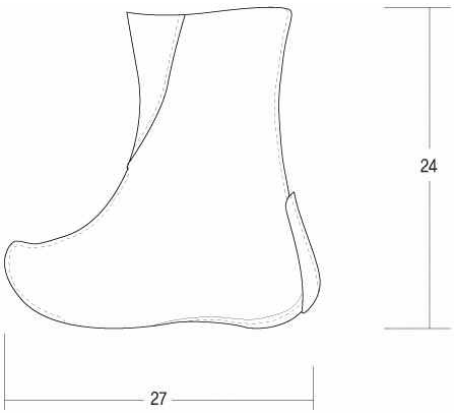


도식화

(6) 가죽버선 VI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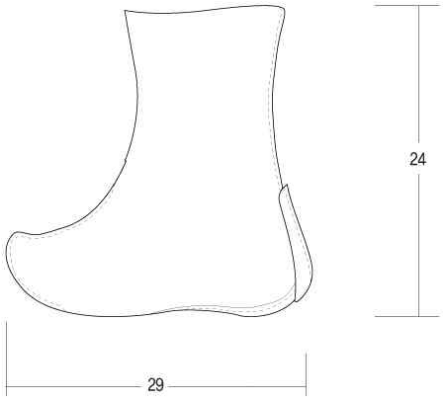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7) 가죽버선Ⅶ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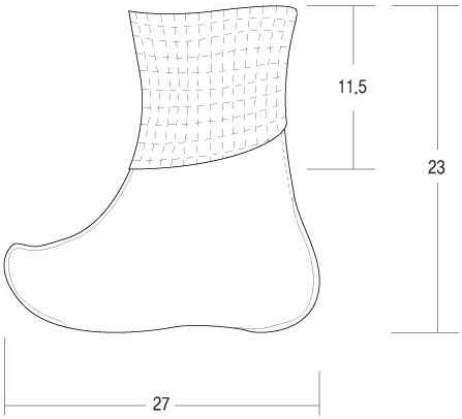


도식화

(8) 가죽버선Ⅷ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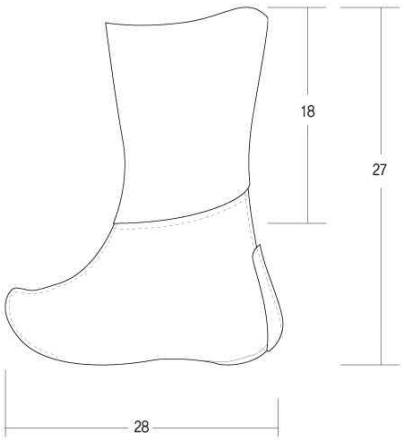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9) 가죽버선Ⅸ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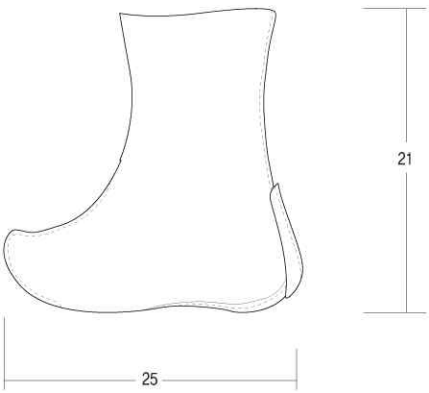


도식화

(10) 가죽버선Ⅹ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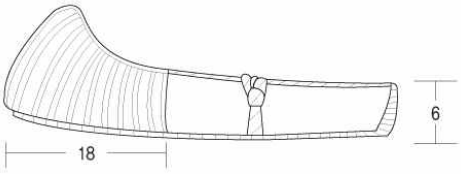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11) 가죽신 Ⅰ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감실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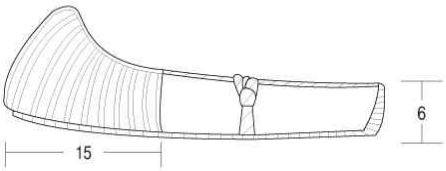


도식화

(12) 가죽신 Ⅱ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감실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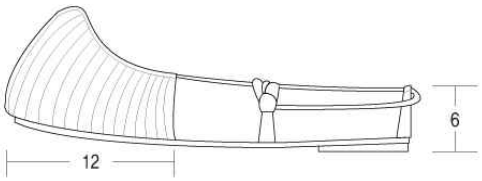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13) 가죽신Ⅲ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국쉬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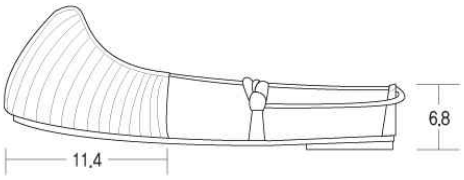


도식화

(14) 가죽신Ⅳ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국쉬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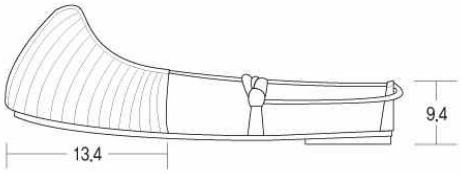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15) 가죽신Ⅴ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국쉬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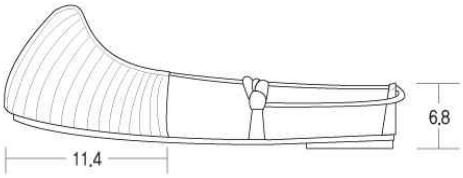


도식화

(16) 가죽신Ⅵ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국쉬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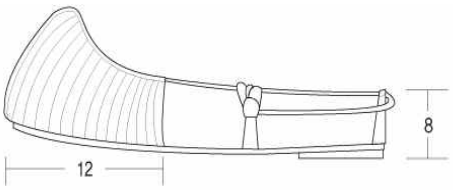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17) 가죽신Ⅶ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국궁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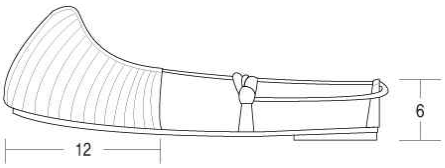


도식화

(18) 가죽신Ⅷ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국궁신 모습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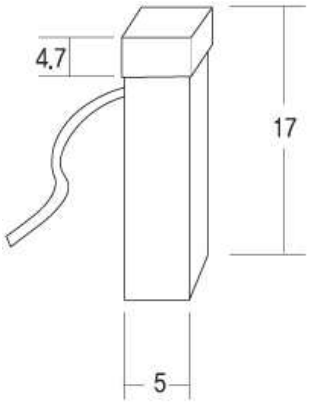
dCollection @ jeju

4. 주머니류

(1)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소재: 소가죽
소장처: 제주민속박물관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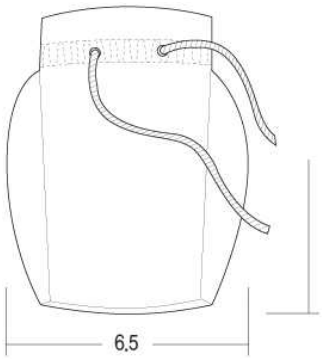


도식화

(2)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귀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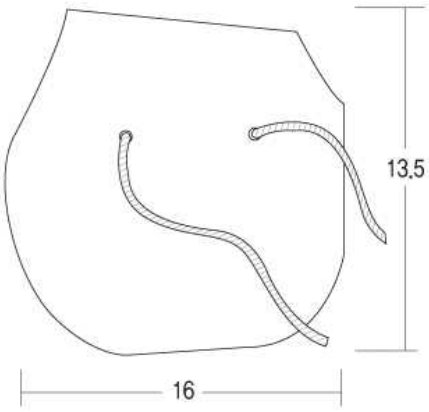
도식화

dCollection @ jeju

(3)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두루주머니형 부시주머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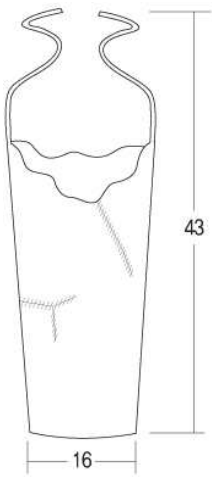


도식화

(4) 자루형 부시주머니

소재: 노루가죽
소장처: 제주대학교박물관

자루형 주머니 모습



도식화

dCollection @ jeju

부록 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면담내용

김경득 님(2011년 8월 4일 면담. 제주시 봉개동. 1924년생)

• 가죽버선 재료는 소가죽으로 집에서 누구나 만들어 신었다.

• 오소리를 '오로'라고 했으며. 오소리감티(오로가죽)으로 만들며, 털이 밖으로 보이게 만들어 착용했다.

• 오로 모자의 경우 양 옆에 끈이 달려 있으며 턱 밑으로 묶었다.

• 와흘, 선흘, 명도암 등 오소리가 많았다(고구마, 감자 밭에 자주 나타나며 채소를 다 먹어버림). 오소리 굴에 2~3마리씩 있었다.

• 족제비털로 목도리 만들었다(1960년대 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착용했다.

• 목장을 하거나, 소, 말테우리(목자)들이 소가죽 옷을 착용했다.(비오는 날 우비 대용으로 착용하였음)

• 부락에 1~2명 정도 소가죽 옷을 착용했다.

• 가죽버선에 나막신을 신었다. 가죽버선을 신으면 발이 매우 따뜻하다.

• 가죽옷은 100년 전에 착용했던 것이며, 1960년대에 도롱이(우장)이가 나와서 입었다.

dCollection @ jeju

고두진 님(2011년 8월 11일 면담.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55년생)

• 오소리는 서식지가 함덕, 와흘 등 산 뿐 아니라 해안가에도 서식하였으며, 오소리 굴속에 보통은 2~3마리에서 많게는 집단으로 4~7마리도 새끼를 낳는다. 사냥개를 이용해서 잡았다.

• 오소리는 가을이 지나 동지되기 전 첫서리가 내릴 때 쯤 농한기 때 사냥을 했으며, 예전에는 밀렵이 없었다. 오소리를 잡아서 고기는 식용으로 하였으며 가죽은 버리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냥 시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감티, 옷으로 만들었다.

• 가죽감태는 '오소리 감태'라 하였다.

•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방수효과가 좋은 반면 털이 빳빳하며 털이 잘 부러지므로 무속인들이 주로 북, 장구 등의 악기에 사용되었다.

• 부락에 1~2명 정도 가죽옷을 착용했다.

• 오소리 가죽으로 감티와 조끼형태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다.

• 소가죽, 말가죽은 진드기가 있는 것은 상품가치가 없었다.

• 가죽옷을 만들 때 바늘은 뽀족한 쇠(명칭 모름)나 대나무를 깎아서 소, 말가죽을 얇게 잘라서 사용했다.(가죽실)

• 가죽자체가 억세서 남자들이 가죽옷, 감티, 가죽버선을 만들었다.

• 가죽부분만 소금(방부제 역할)을 뿌려 두었다가 기름을 제거하고 그늘에 잘 펴서 말리는데 이 때 가죽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끝에 못을 박아 그늘에서 말린다.

dCollection @ jeju

김익수 님(2011년 2월 13일 면담. 제주시 삼도1동. 1937년생)

• 가죽옷을 '갖옷', '가죽놋'이라고도 불렀다. 소가죽, 개가죽,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었다.

• 개가죽은 조각끼리 여러 장 이어서 만들었다.

• 가죽감티는 오소리가죽으로 사용.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거나, 털이 안으로 들어가게 양면으로 사용했다.

• 가죽옷은 중산간지역 200~250m 이상 고지 중산간지역 사냥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 화전민들이 착용. 200m 미만에서 가죽옷 입은 사람이 드물다.

• 화전민은 산간사람이라 하며 산에 살면서 가죽옷 차림을 했다. 화전민은 땔감과 사냥을 하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

• 표선, 세화에 오소리가 많았으며, 오소리 기름은 아이들 중이염에 좋고(의료적인 목적), 고기는 약용으로 가격이 비싸며, 가죽 가격도 비싸다

• 관덕정(1945년까지 오일장)에서 족제비털, 오소리 털 판매했다.

• 중산간지역에서 천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음.

• 중산간지역 개를 집집마다 모두 키웠다. 개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사용했다.(개가죽이 가볍다)

• 꿩바치는 노루, 꿩(털을 이용)사냥하는 사람으로 제주방언으로 '사농꾼', '사농바치'라 했다.

• 40년 전 가죽감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좀이 슬고 관리가 힘들어 버렸다.

• 가죽버선은 천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 가죽신의 경우 값이 비쌌으며 제주시내에서는 부자가 신었다. 쌀10 가마의 값이었으며, 현재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의 가치이다.

• 개는 누런 개와 흰 개가 있었으며 흰 개가 비쌌고, 누런 개는 일반적으로 길렀다.

dCollection @ jeju

오문복 님(2010년 2월 6일 면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936년생)

• 제주도 한라산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여 노루 사냥시기가 있었다. 음력 10월이 지나서 첫눈이 내리고 난 후 어느 정도 얼어붙어 사람이나 개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을 때 사냥을 시작하며 가죽은 옷이나 모자를 만들고 고기를 먹었다고 하였다.

• 제주도는 직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옷감이 귀하였다.

• 가죽의 종류로 옷: 노루가죽, 송아지가죽, 모자(감태): 오소리, 버선과 신: 소가죽, 노루가죽이다.

• 가죽옷은 소가죽의 경우 두껍고 무거워서 사용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가벼운 송아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 교래리 송봉현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교래리에 가죽옷, 개가죽바지, 모자, 신을 착용하고 다녔으며 대부분 노루가죽으로 지어 입었으며 4.3사건 이후 노루들이 많이 멸종하였다.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신발만 만들어 신었다. (4.3사건이후 가죽값이 비쌌다.)

• 가죽발레는 가죽신의 일종으로 소나 말을 키우는 목장의 풀과 가시밭을 다니는데 다리를 긁히거나 다치거나 않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 가죽옷의 형태는 법도에 따라 정해졌으며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 오소리 감태를 착용한 사람을 천하게 보았다. '영주풍아'에 노루가죽 버선에 개가죽 옷 입고~양반이라 뽐내지만~ 에서와 같이 가죽옷은 서민들이 착용하였다.

• 가죽 감태(=감투)는 돌하루방 머리에 쓴 것과 같은 모양으며 벅수머리라고 한다.

•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개가죽 옷 옷이 사냥꾼 옷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사실은 산간지역의 눈이 많이 내려 추웠기 때문에 방한복으로 착용되었다. (제주에서는 사치품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장례를 치를러 갈 때 추운 날에 착용함. 하지만 여우가죽의 경우 육지에서는 사치로 착용하였다.

• 민속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소가죽 옷의 경우 송아지나 망아지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소가죽은 무겁고 두꺼워서 옷으로 만들어 입지 않았다.

dCollection @ jeju

오영종 님(2010년 6월 7일 면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937년생)

• 개가죽옷은 털이 질기고 가볍고 따뜻하다. 가죽에 가슴과 등부분에 모질이 좋은 가죽(강아지가죽)을 덧대었는데 이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다른 천을 붙이는 효과(장식효과)였다. 멋으로 달았다.

• 오소리감티 '지달이감티'라하며 털이 많이 달려있으며 개, 소가죽보다 훨씬 따뜻하였다. 보온성이 가장 좋다. 사냥꾼 '사농바치'라 한다.

• 개가죽옷은 사냥 다닐 때 주로 입었다.(한라산이 추웠기 때문에 방한용임)

• 가죽버선은 개가죽(집에서는 멋으로 털을 제거하지 않고 신는다), 소가죽으로 하며 털을 제거하고 만들며 아무나 만들어 신었다.

• 가죽버선은 털을 제거하고 딱딱해지면 돼지기름(돗기름), 들깨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하고, 짚신을 착용한다.

• 가죽발레는 노루가죽, 개가죽이며, 노루가죽은 털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 가죽옷은 부잣집 사람은 입지 않고, 산에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방수효과),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방한용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비옷대용으로 착용하였다.

• 노루가죽은 얇고 따뜻하며 질기지 않으나 털이 빳빳하고 굵으며 잘 꺾기기 때문에 털을 깎아서 사용해야한다.

•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으로 만들며 얇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비올 때 신으면 방수효과가 있으며 따뜻하였다.

•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 사냥에서 얻은 노루고기는 제삿날에 사용했다.

• 오소리는 개사냥으로 했으며, 고기는 보양식으로 먹기 위해 사냥했다.

• 가죽발레, 가죽버선은 가죽실을 사용하며 일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죽신은 특별한 사람이 신는 것이었다.

•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옷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dCollection @ jeju

고한구 님(2011년 5월 18일 면담. 제주시 봉개동. 1936년생)

• 가죽감티는 노루가죽, 오로가죽(오소리)으로 만들며 형태는 털이 달려 있고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여 위는 평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납작한 형태가 된 것이다.

• 가죽감티는 반달모양의 둥근형태로 음양오행 중 양(하늘)을 뜻한다. 사냥이나 목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 가죽옷: 소가죽이며(질기고 따뜻하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음), 말가죽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 가죽옷은 옷이 없을 때 추위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옷이었으며 산에 다니는 사람, 우마를 키우는 사람, 사냥다 닐 때 착용하였다.

• 가죽옷은 소가죽으로 만들며 바람도 차단시켜주고 가시덩굴, 곶자왈 등 다닐 때 긁히지 않도록 입었다.

• 가죽옷은 동네에서 2~3명 정도 착용하며 자랑으로 여겼다.

• 소가죽옷이 딱딱해지면 돼지기름을 발라 가죽을 문지르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돼지기름은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소나 말이 상처 날 때 사용하였으며, 양약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난 곳에 돼지기름을 발라두면 3~4일이면 좋아진다. 뱀 물릴 때도 사용했다.)

• 가죽다루는 방법: 바닥에 불을 떼서 가죽이 불에 닿게 한 뒤 가죽의 기름을 녹이고 얇게 만들며, 털이 붙어 있는 쪽은 위로 올라가 털이 타지 않는다. 이것을 각 모서리에 못으로 고정하여 잡아당겨 그늘에 말린 뒤 돼지기름을 솥뚜껑에 넣어 끓이고 굳혀 가죽부분에 골고루 문질러주면 직물처럼 부드럽게 된다.

• 가죽실 제작방법: 소가죽, 말가죽의 배, 겨드랑이 부분의 부드러운 가죽을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자를 대고 실처럼 얇게 자른 뒤 60cm길이로 잘라서 사용한다.

• 가죽버선은 소가죽 실로 사용하며, 일반실을 사용할 경우 오래 신을 수 없다.

• 가죽버선은 발목부분 밑은 소가죽, 발목부분 위는 광목이나 미녕을 사용하며,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트임을 주기도 한다. 전체 소가죽신을 신기도 하나 발목 윗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는 않았다.

dCollection @ jeju

김인순 님(2011년 3월 22일 면담. 제주시 오라3동. 1933년생)

• 가죽감티는 노루가죽, 개가죽으로 만들며, 따뜻하며 가볍다.
• 가죽옷의 종류는 오소리조끼, 개가죽이다.
• 가죽을 사방에서 당겨서 못으로 박고 딱딱해지면 돼지기름(돗기름)으로 계속 문질러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 가죽버선은 가죽실을 사용하였으며, 실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죽을 얇게 만들에 큰 바늘에 꿰어 버선을 연결했다.
• 100년 전에 가죽옷 입었던 것 같다.(할머니 살아 계실 때 착용했다.)
• 가죽버선은 소가죽으로 사용. 보온성이 좋다. (40년 전까지도 신었다.)
• 가죽버선에 나막신 착용했다.
• 가죽옷 입은 사람 한동네에 1~2명 정도이다.

dCollection @ jeju

송재희 님(2011년 5월 1일 면담. 제주시 오라3동. 1933년생)

• 가죽옷 소재는 개가죽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착용한 것을 보았음. 개가죽을 조각끼리 연결하여 만들었다. 아마도 개가죽이 작아서 연결한 것 같고,멋으로 했던 것 같다.

• 미녕옷(무명옷) 입은 사람은 부자이며, 가죽옷 입은 사람은 천민이었다.

• 200m 이상 고지에 화전민이 많았으며, 화전민은 못사는 사람, 집안이 망한 사람(학식있는 사람도 포함), 범죄자, 땅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 중산간지역에서 땅을 일궈 살았다.

• 가죽버선은 소, 말가죽이다.

• 오소리가죽은 다른 가죽에 비해 따뜻하다.(땀이 날정도로 따뜻했다.)

• 오소리가죽은 털이 촘촘하게 나있어 다른 가죽보다 따뜻하며, 가죽이 얇고 가볍다.

• 중산간지역인 제주대학교 부근, 정실쪽(죽성이라 불림)에서 노루, 꿩, 오소리 사냥을 했으며 오소리기름은 귀 아플 때 약으로 사용하며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 만들었다.

• 가죽옷의 재료는 노루, 개가죽 인 것 같다고 하였다.

• 화전민은 200~250m고지에 살고, 소테우리(목자)는 200~400m 고지 최고 600m 고지에 목장지대에 생활터전으로 가장 천한사람이다.

• 개가죽옷은 누런 개는 일반적으로 사용, 흰색은 값이 비싸다.

dCollection @ jeju

정신생 님(2011년 9월 7일 면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921년생)

• 소가죽감티, 소가죽옷, 소가죽발레, 소가죽버선, 소가죽신을 착용했다.
• 소가죽버선에 짚신을 신었다.
• 음력 1월에 동네에서 소를 추렴했으며 소가죽은 땅에 묻었다 밟아서 기름을 제거하며, 완벽하게 기름제거를 하기위해 재로 문지르며 돼지(돗기름)기름 계속 발라주면 매우 부드러워진다.
• 한라산 중턱 소,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주로 입으며 보온성이 매우 좋다.
• 만드는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부락에서 1~2명 정도만 착용했다.
• 가죽옷과 가죽감티는 해안지역에서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 소가죽, 노루가죽으로 바지를 만들어 입었으며 형태는 갈중이 형태이다.

dCollection @ jeju

진성기 님(2010년 11월 12일 면담. 제주시 삼양3동. 1936년생)

• 가죽감티는 사냥하는 사람을 제주에서 '사농바치'가 방한용으로 착용했다.
• 가죽옷은 실용적이며 방한복으로 최상의 옷이다.
• 털벙겆은 검은소털, 황색소털이 있으며 검은 소털이 고급품이었다. (제주에서 흑우가 유명하였기 때문에 벙거지 역시 황소보다 흑우의 털을 으뜸으로 생각했다.)
• 털벙겆은 상투를 보호하기 위해(가리기 위함) 착용한 것이며 양태 끝부분에 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휘갑치기를 했다.
• 돌하루방 머리가 벅수머리이며 이것이 가죽감태를 착용한 것이다.

dCollection @ jeju

고신화 님(2011년 9월 8일 면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923년생)

• 가죽감티는 노루, 오로(지달이가죽)라 한다.

• 오로(지달이가죽)감티는 아무나 쓰지 못하였으며 사냥, 목장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 가죽옷: 소가죽이며, 말가죽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 가죽발레는 소가죽으로 만들며 따뜻하고 두껍다.

dCollection @ jeju

김영훈 님(2009년 12월 21일 면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939년생)

- 50년전에 소테우리(목자)가 집이 없어 창고에서 지내며 이때 가죽옷은 크기가 크고 따뜻했기 때문에 소를 몰 때 착용하거나 밤에 이불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머리에는 오소리감티를 착용하여 추운겨울을 지냈다.
- 가죽옷은 소재가 털이 밖으로 보이는 개가죽으로 추측된다.
- 가죽버선은 소가죽이며, 나막신을 신었다.
- '지달이감태' 오소리감티를 말한다.

dCollection @ jeju

김정숙 님(2011년 9월 15일 면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41년생)

• 가죽옷은 어머니 시대인 80년 전에 착용 했던 것 같다고 했다.

• 가죽감태를 '가죽감티'라고도 하였으며 소재는 소가죽으로 따뜻하고 바람도 막아준다.

• 가죽감티는 유별난 사람들이 착용했다.

• 가죽감티는 검은색 소가죽이다.

dCollection @ jeju

고우탁 님(2011년 3월 27일 면담.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1925년생)

• 해안지역에서는 털옷, 가죽신, 가죽모자 등 착용한 것을 본적 없으며, 중산간지역에서 가죽모자를 착용한 것을 보았다.

dCollection @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제주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Jeju Traditional Style of Fur or Leather Clothes

Researched by Ko Sun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Hyunjoo

Jeju maintained a primitive style in the culture of clothing, compared to that of the mainland. This was caused by Jeju'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t was isolated from cultural exchange and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its geographical and climate circumstances. Especially, the cowboys, hunters and firefield farmers used to wear clothes made of animals' fur or leather to be adapted to their cold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igin of Jeju's traditional clothes, the reasons for their development, taking some meaningful examples for wearing them. It also tries to find how to make the clothes and manage them. This study presents the distinctiveness of sewing, decoration and materials by using the remains, revealing the corelation between Jeju, the north eastern China and internal Mongo. It finally tries to establish a theoretical system regarding Jeju's traditional fur or leather clothes.

The method of this study contains the study of literature and actual proofs and interviews. The books written by the exiled scholars were used for the study of literature and the remains exhibited in the Jeju provincial museums for the actual proofs. The seniors aged more than 70 along the mid mountains were interviewed as a method of folklore survey.

dCollection @ jeju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Jeju has unique features in terms of geographical, natur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ainland. Instead of farming fibrous materials, the inhabitants residing along the mid mountains raised cattle or horses. In addition, they obtained the leather or fur from wild animals such as roe deer or badgers, from which they may have devised their clothes.

Secondly, to study Jeju's style of clothes of fur or leathers, literature and actual proofs study and interviews were implemented. Its clothes were categorized into hats, wears, socks and pouches. The hats were made of fur or leathers of deer, cows, dogs and badgers, etc. Especially the leather of badgers has an advantage of fine and light texture plus thermal insulation effects.

The clothes were made of leather, mostly obtained from dogs or cattle. The leather was used without any tanning. Dogs' leather was often mentioned in various books. Because dogs were domestic animals with soft and tough leather, their leather were easily used for clothes. Leather pants called "leather balle" were very useful to protect their body against cold weather. The socks were categorized into leather socks and shoes which were made of cows or deer leather. They were used to protect their feet and ankles. For their lower legs, cotton cloth was used for their convenience when wearing their shoes.

Thirdly, the style of Jeju's traditional fur or leather clothes included various needle work such as stitching by bamboo needles which was one of the unique needle works existing only in Jeju. This needle work was used for clothes of cow leather to protect pain when wearing them.

Fourthly, decorative techniques such as patchwork, decorative saddle stitching, a nose pendant, patch, twist, cutting and stamping were used in Korea traditional fur and leather garments. Decorative saddle stitching were used in the joint of Korean leather socks called "leather beoseon", between leather and cotton and a nose pendant are also used at the bottom of leather beoseon and pockets. Clothes shaped like a leaf is

dCollection @ jeju

used to reinforce the heels of socks, which is called patch. The ways of cutting or twist leather are used in leather boots and then leather boots are decorated by stamping patterns on them.

Fifthly, The material used in Jeju traditional leather and fur garments came from cattle and wild animal such as roe deer, cows, dogs, badgers, horses, calves etc. This material were used in garments without processing. The materials were appropriately used in Jeju, considering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aterial. Instead of using leathers of horses, people used leathers and fur of roe deer and badgers that could be obtained by hunting. The main material of clothes was leathers of cows and dogs because this material was excellent for keeping out the cold, wet and wind.

Sixthly, it is predicted that there were corelations between the fur and leather clothes of Jeju Island, North Eastern China and Inter Mongo. There were similarities between the styles of the two regions. First, the shape of garments was like a long cape made of leather or fur. Mongolian wore overalls called Tugo that had very similar function with Jeju leather Balle for preventing pants from wetting. Second, leather boots were made of leather from the bottom to the ankle and cloth was attached to the upper part to make it easy to wear or remove boots. And the round shape of pocket was also similar.

Seventhly, The current study found out that the fur, leather garments of Jeju had completed form and status, based on their surroundings by interviews, literary consideration and demonstrative study focusing on collections of museums in Jeju. fur, leather garments of Jeju were closely related to Jeju traditional culture and got influenced.

The previous study classified fur and leather garments as work clothes but the study also found out the facts that fur and leather garments were worn by hilly and mountainous areas to protect themselves from cold.

Collection @ jeju

감사의 글

어느덧 짧지 않은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업적 성취에 있어서의 아쉬움만이 아닌, 대학원 생활 동안 고마운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힘이 되고 올바른 방향의 길을 가도록 잡아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많은 격려로 이끌어 주신 장현주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도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송미경 교수님, 김동섭 선생님, 백영미 교수님, 장애란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큰 열정으로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 배움을 가르쳐주신 의류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완성을 위해 소장유물 자료를 실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문집자료를 제공해주신 김익수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임은숙 선생님, 김현미 선생님 외의 많은 대학원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랑으로 언제나 제 옆에서 힘을 주시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며느리와 딸이 되기 위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많은 도움을 주는 다정한 남편과 사랑하는 채민이, 주호에게도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학문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출발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합니다.

고순희 드림

dCollection @ jeju